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 예술에의 초대

2006. **8** Vol. 176

[www.bsculture.busan.kr](http://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_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신임지휘자 이동신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_ 변박의 왜관도와 용틀임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_ 아쟁과 해금을 아시나요?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_ 그대 안의 바다





부산 · 울산 · 경남 3개 시도립합창단 합동음악회

# “꿈의 합창축제”

VI



3개시도합창지휘  
이 상 열



2006. 8. 28 (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06. 8. 29 (화) 19:30 김해문화의전당 대극장

2006. 8. 31 (목) 19:3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김해시 GIMHAE

문의 부산문화회관 625-8130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6070 www.bsCulture.busan.kr  
부산시립합창단 607-6125, 6126 www.bschorus.or.kr

주관: 부산문화회관 협찬 FORTAD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인터넷 예매 ■ 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 부산은행 - 티켓 365 www.ticket365.co.kr  
금정구: 신나라레코드 518-6686(부산대앞), 골든악기사 512-4295(부산예고앞) 서면: 동보서적 803-8001, 영광도서 816-9500, 유니트매장 462-0833 (까  
남포동: 남포문구 245-8911, 문우당서점 245-3843, 국도레코드 247-4240(광복동) 남구: 면학도서 623-9404(경성대 앞) 해운대구 해운대약국 752-0100  
비바체클래식 743-0003(선프라자 1층) 사하구 향학서점 203-9381(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부산은행 (부산, 경남) 200개 지점



당신의 인생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제38기 가을학기 회원모집

• 접수기간 :  
**8.1 ~ 9.8**

### 제38기 가을학기 회원모집

- 강좌기간 :  
2006. 9. 1(금) ~ 2006. 11. 30(목)
- 접수기간 :  
기존회원 8. 1(화) ~ 9. 8(금)  
신규회원 8. 3(목) ~ 9. 8(금)
- 접수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은 수강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접수처 : 범내골 삼성생명BD 5층 문화센터
- 문의전화 : 630 - 6301~4  
※강좌 전단을 우편 및 FAX로 우송해 드립니다.  
(수강접수는 현금 및 삼성카드로 가능합니다.)
- 삼성생명 계약자 특전 ※ 신분증 지참요  
삼성생명 계약자(본인)인 경우 수강료 10%할인을 해 드립니다.  
(단기강좌, 1회강좌 제외)  
※ 대리접수의 경우 계약자 미확인시 정상수강료 받습니다.(추후 환불불가)

a partner  
for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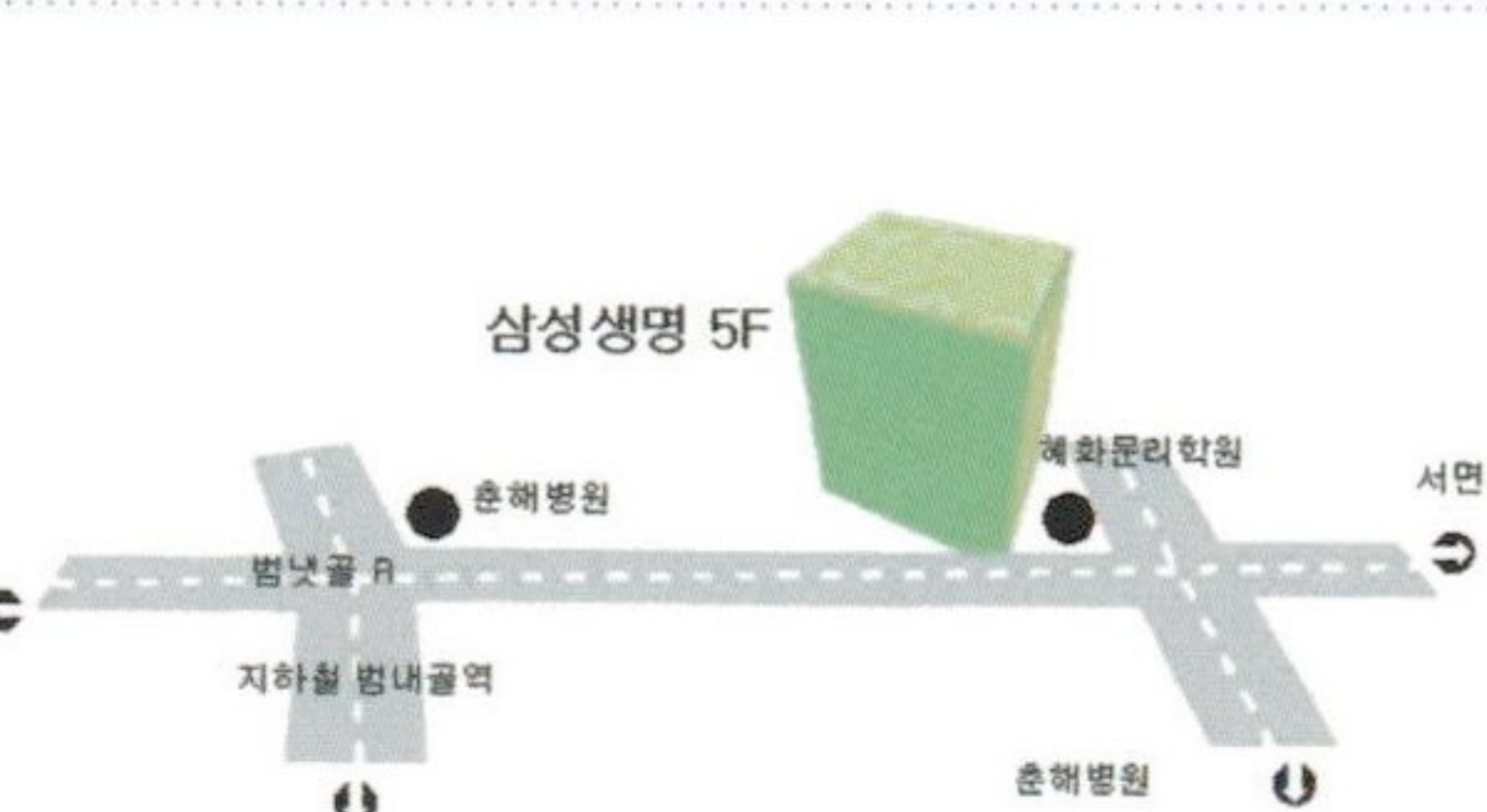


### 강좌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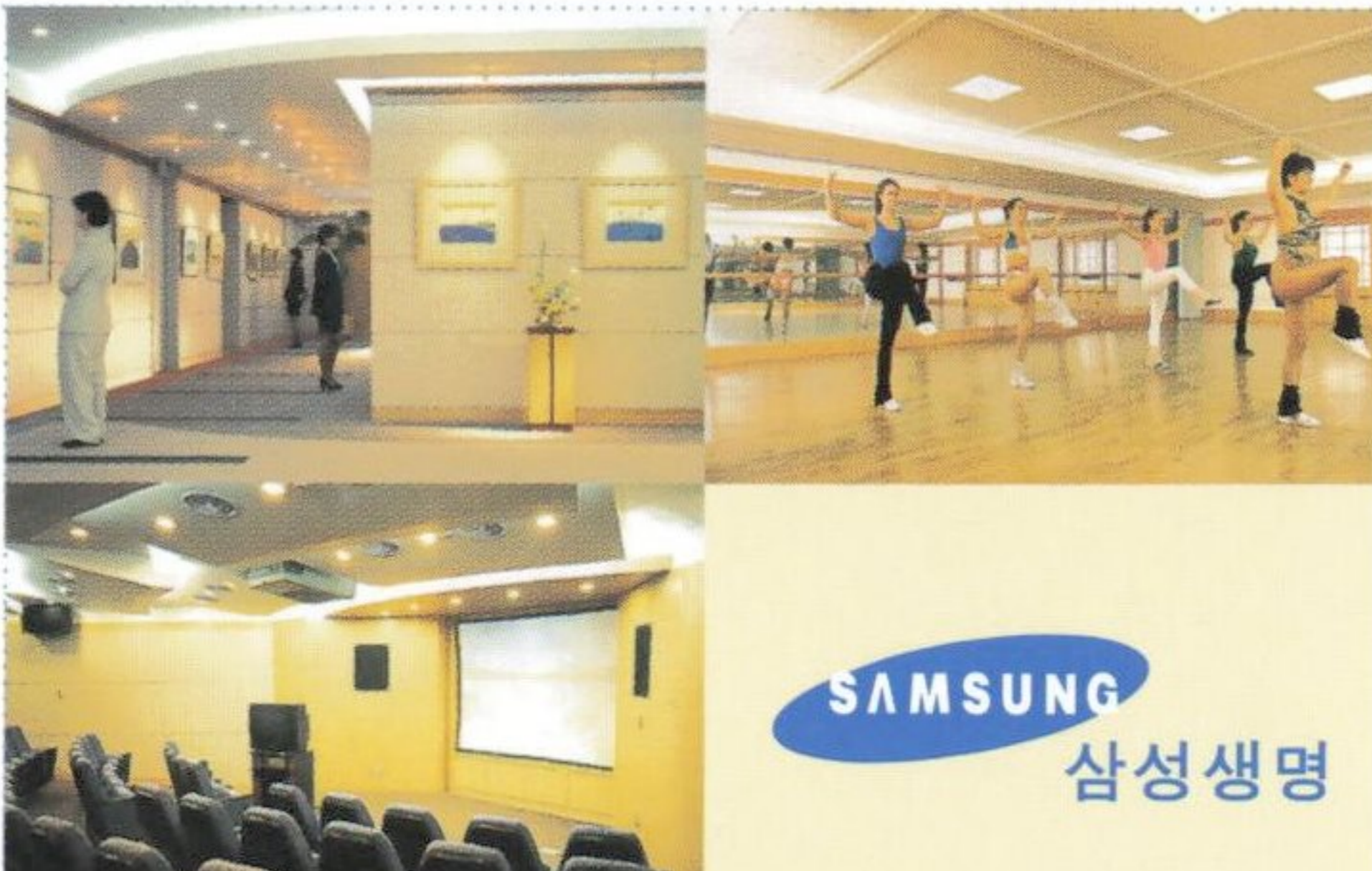
- 건강부문 요가, 필라테스, 댄스포츠, 라틴디스코, 주부당구교실, 음악줄넘기 등
- 컴퓨터&전통부문 컴퓨터, 한국무용, 소학, 장구와 민요 등
- 공예&취미부문 전통매듭, 에그아트, 손뜨개, 토속인형만들기, 오색한지공예, 토피어리 등
- 교양부문 클래식 음악감상, 글씨교정반, 영어, 역학, 동화구연, 미술, 수화 등
- 노래&미술부문 김임경/ 김현호/ 박노섭/ 이주랑 노래교실, 팝송/엔카 노래교실, 서양화, 수묵화 등
- 단기특강부문 부모훈련준비, 사이버증권과정, 선물포장, 부동산 등

### 회원 특전

- \*삼성생명 계약자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공연 티켓 제공(선착순 50매 한정)  
-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6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 8. 25(금) 오후 7:30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2회 정기연주회 '클래식으로 듣는 가을의 소리' : 9. 14(목) 오후 7:30
- \*무료영화 상영회  
- 8월~11월 매달 2,4째주 수요일 14:30분(대형 스크린 및 음향 완비)



※ 강좌전단을 우편 및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SAMSUNG 삼성생명

### 삼성생명 문화센터 가을학기 회원모집

#### 10% 할인권

본 할인권을 가져오시면 신규등록고객에 한하여  
수강료 금액의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중복할인 불가. 일일강좌 할인 제외)  
사용기간 : 2006. 8. 1(화) ~ 8.31(목)  
문의 : 051)630-6301~4



4Tenors+1Bass ENSEMBLE '7th CONCERT

제7회 정기연주회

남성성악앙상블 4+1

사랑, 우정

그리고

열정

청소년을 위한  
추천음악회

Love, Friendship & Passion

5인5색의 목소리가 전해주는  
사랑과 우정의 메시지

재미있는 해설 음악회

무더운 여름,  
유쾌하고 즐거운  
음악에 빠져보자

2004년 2005년  
부산을 열광시킨  
남성성악앙상블 4+1

4명의 테너와 1명의  
베이스가 만들어내는  
중후한 화음의 묘미



해설 음악평론가 윤성원



피아노 최혜련

5명의 남성성악가로 구성된 <4+1>  
너무나도 감미로운 음색으로 가슴깊  
파고드는 서정을 자유롭게 변화시키  
품위 있으면서도 강렬한 울림과 흐름  
객석을 사로잡는다.  
이들은 각각의 매력이 하나로 뭉쳐, 때  
흠어져서 그 감동의 폭을 배가한다.



테너 김지호, 김동국, 서명보, 오동주 / 베이스 권영준

2006. 8. 27(일)

2회공연 오후 4시, 7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남성성악앙상블 4+1

2006 여름 청소년을 위한 특별연주회

2006. 8. 21(월)  
2회공연 오후 4시, 7시



KBS부산홀

■ 공연문의

회장 010-2400-3994

총무 017-556-5058



# Contents

2006 · 08

- 06 부산문화회관 8월 공연 일정
- 08 부산시민회관, 금정문화회관 8월 공연 일정
- 10 마음을 여는 글 | 재미있는 음악과 필요한 음악 · 임병원
- 12 반갑습니다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신임지휘자 이동신
- 14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 변박의 왜관도와 용틀임 · 김충진
- 18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 아쟁과 해금을 아시나요? · 홍희철
- 20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그대안의 바다 · 김형술
- 22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 출발! 비키 · 김희진
- 24 연극속으로 | 하모니는 벽을 뚫고 울린다-체홉 '갈매기' · 변미선
- 26 그곳에 가면 | 국내 최초 조각보박물관 '주천 조각보박물관'
- 28 우리는 문화 가족 | 뮤클합창단
- 30 캠페인 1인 1기를 배웁시다 | 탄소불어보기<8> · 채수만
- 32 이 사람 | 부산무용제 대상 수상한 동아대학교 장정윤 교수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상화
- 34 문화가 화제 | 한여름 부산을 달구는 다양한 여름축제
- 40 부산시립예술단 8월 공연관람 가이드
- 44 8월 프로그램 가이드
- 58 쉽게 듣는 클래식 | 트럼펫 · 곽근수
- 59 부산문화회관 소식
- 60 새로 나온 음반
- 61 새로 나온 책
- 62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안내
- 64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번지)  
TEL. 625-8130, FAX. 607-6204

· 발행인 조병규 | 편집인 공영훈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6년 7월 25일

· 인쇄처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601-836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1156-11번지)  
TEL. 468-2468, 2757, FAX. 468-2515

※ 예술에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 표지설명: 부산문화회관에서 8월 23일 마술개그, 줄타기, 대중가요와 흥겨운 국악으로 여름 무더위를 씻어줄 시원한 음악여행을 펼친다.(사진은 '왕의 남자'의 줄타기 대역 권원태)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8 월 공연일정

## 전시실

### 제 3회 아시아 수채화대전-대·중전시실

7월 28일(금)~8월 13일(일)

문의 권영훈(505-1231, 011-9508-9503)

### 한·중 현대미술 우수작가 300인 초대전-대전시실

8월 15일(화)~8월 19일(토)

문의 정일환(644-0005, 011-488-3375)

### 제 12회 부산서예대전-중전시실

8월 22일(화)~8월 26일(토)

문의 박명희(645-9948, 018-565-9948)

### 신라대학교 미술학부 졸업작품전-대전시실

8월 29일(월)~9월 1일(금)

문의 신라대학교(999-5425)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안내 : 9쪽)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극장

## MAIN THEATER

1	tue	무대점검 및 보수공사(7. 24~8. 15)
2	wed	
3	thu	
4	fri	
5	sat	
6	sun	
7	mon	
8	tue	
9	wed	
10	thu	
11	fri	
12	sat	
13	sun	
14	mon	
15	tue	
16	wed	
17	thu	
18	fri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금난새와 함께 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11:00, 16: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19	sat	토요상설무대 '효산 가야금연주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0	sun	남산놀이마당 영남의 소리, 몸짓, 풍물 그 세 번째 이야기 '파방굿' 18:00 1만2천원·8천원/남산놀이마당(516-4434, 016-856-4434)
21	mon	방학특집 2006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청소년을 위한 클라리넷 선율의 세계 2' 균일 7천원/부산클라리넷콰이어(011-583-2810)
22	tue	
23	wed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아주 특별한 국악여행 '팔빙수같은 시원한 음악회' 19:30 3만원·2만원·1만원/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
24	thu	부산콘서트 콰이어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17:00 1만원·5천원/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25	fri	부산콘서트 콰이어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17:00 1만원·5천원/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26	sat	부산콘서트 콰이어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14:00, 17:00 1만원·5천원/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27	sun	남성성악앙상블 <4+1> 제 7월 정기연주회 '사랑, 우정 그리고 열정' 16:00, 19:00 균일 6천원/오동주(624-8882, 017-556-5058)
28	mon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립 합동음악회 '한 여름밤 꿈의 남 성합창'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
29	tue	
30	wed	
31	thu	



# 중극장

## MEDIUM THEATER

- 1 tue 객석의자교체 및 무대보수공사(7. 24~8. 22)
- 2 wed
- 3 thu
- 4 fri
- 5 sat
- 6 sun
- 7 mon
- 8 tue
- 9 wed
- 10 thu
- 11 fri
- 12 sat
- 13 sun
- 14 mon
- 15 tue
- 16 wed
- 17 thu
- 18 fri
- 19 sat
- 20 sun
- 21 mon
- 22 tue
- 23 wed
- 24 thu
- 25 fri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6 한 여름밤의 춤 작품전'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
- 26 sat 토요일상설무대 '버سم새예술단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7 sun WBS 부산원음방송 개국 5주년 기념 음악회 '모두가 은혜입니다' 15:00 무료/원음방송(244-1075)
- 28 mon 피아니스트 김정숙 귀국 독주회 19:30 1만원 · 5천원/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 29 tue
- 30 wed
- 31 thu 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 '이웃사랑 4색 국악향연' 19:30 무료/부산여성문화회관(320-8341~4)

# 소극장

## SMALL THEATER

- 1 tue 무대점검 및 보수공사(7. 24~8. 15)
- 2 wed
- 3 thu
- 4 fri
- 5 sat
- 6 sun
- 7 mon
- 8 tue
- 9 wed
- 10 thu
- 11 fri
- 12 sat
- 13 sun
- 14 mon
- 15 tue
- 16 wed
- 17 thu
- 18 fri
- 19 sat
- 20 sun
- 21 mon
- 22 tue The Great Ensemble of KNUA 19:30 1만원 · 5천원/윤유진(010-3108-0327)
- 23 wed
- 24 thu
- 25 fri 시민무용교실 발표회 13:0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6118)
- 26 sat 문향예술연구회 제 7회 정기연주회-썸머 모짜르트 페스티벌 19:00 초대/박수경(850-3188, 017-540-5558)
- 27 sun 부산콘서트콰이어 '내일을 위한 음악회' 14:00, 17:00 1만원 · 5천원/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 28 mon
- 29 tue
- 30 wed
- 31 thu



● 부산시내 기타공연 ⑧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 문의 : 시민회관(630-5200)

1	tue	월요일 영화 '헛지' 10:30,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2	wed	월요일 영화 '엑스맨-최후의 전쟁' 10:30,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3	thu	월요일 영화 '엑스맨-최후의 전쟁' 10:30,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4	fri	월요일 영화 '비열한 거리'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5	sat	
6	sun	
7	mon	2006 부산국제해변무용제 19:30 -대극장 2만원 · 1만원 · 5천원/부산국제해변무용제 추진위원회(642-0943)
8	tue	2006 부산국제해변무용제 19:30 -대극장 2만원 · 1만원 · 5천원/부산국제해변무용제 추진위원회(642-0943)
9	wed	
10	thu	신세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9:30 -대극장 1만원 · 5천원/김현중(807-7338, 010-2245-5575)
11	fri	
12	sat	팝스&퍼커스 '타악기와 떠나는 음악여행' 15:00, 19:00 -대극장 균일 1만원/전영수(625-8019, 010-7309-8069), 프로인트(521-5729)
13	sun	월요일 영화 '수퍼맨 리턴즈' 10:30, 14:00, 17: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14	mon	월요일 영화 '수퍼맨 리턴즈' 10:30,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15	tue	월요일 영화 '수퍼맨 리턴즈' 14:00, 17: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16	wed	
17	thu	한 여름밤의 클래식 19:00 -대극장 1만원 · 7천원/부산음악협회(634-1295)
18	fri	카로스타악기앙상블과 함께하는 해설음악회 15:00, 18:00 -대극장 균일 1만원/시민회관(630-5200)
19	sat	부산의 · 치대관현악단 정기연주회 19:30 -대극장 안민원(011-9195-1305) 아현 제 25회 여름정기연주회 18:30 -소극장 강아로미(011-9512-5132)
20	sun	월요일 영화 '파이스토리' 10:30, 14:00, 17: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21	mon	월요일 영화 '파이스토리' 11:00, 14:00,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2006 한여름밤의 음악산책 19:00 -소극장 부산음악협회(634-1295)
22	tue	클래식음악을 영화에 담다 16:00, 19:0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그라시아 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소극장 이은영(017-580-7887)
23	wed	재미있는 성악세계 11:00, 15:00, 19:30 -대극장 1만원 · 8천원/오페라단 가야(747-6139)
24	thu	제 16회 소년의 집 자선음악회 19:30 -대극장 마리아수녀회(256-3901) 청소년음악회-뮤직클래식 15:00, 18:00 -소극장 옴니미디어(201-3301)
25	fri	타악기앙상블 무사 청소년 음악회 14:00, 17:00 -대극장 김정우(628-8377) 청소년음악회-뮤지스토리 15:00, 18:00 -소극장 옴니미디어(201-3301)
26	sat	어린이 캣츠 13:00, 15:00 -대극장 매니지먼트 나무(02-2632-5578~9) 경향음악콩쿠르 09:00 -소극장 경향신문 부산지사(462-7071)
27	sun	어린이 캣츠 13:00, 15:00 -대극장 매니지먼트 나무(02-2632-5578~9) 경향음악콩쿠르 09:00 -소극장 경향신문 부산지사(462-7071)
28	mon	월요일 영화 '파이스토리' 11:00, 14:00,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경향음악콩쿠르 09:00 -소극장 경향신문(462-7071)
29	tue	
30	wed	
31	thu	제 1064회 MBC목요음악회 '양산시립관악단 초청연주회' 19:30 -대극장 1만원 · 5천원/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금정문화회관** |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2)

1	tue	
2	wed	수요음악회 '국악 퓨전실내악단 여운 연주회' 19:30 -대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2)
3	thu	
4	fri	
5	sat	
6	sun	
7	mon	김성숙 · 형희전 듀오콘서트 19:30 -소공연장 균일 1만원/프로인트(512-5729)
8	tue	
9	wed	수요음악회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연주회' 10: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2)
10	thu	11시 브런치 콘서트 11:00 -소공연장 균일 1만5천원/N.G.N케이블TV방송(506-6305)
11	fri	재건부산교회 60주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념음악회 19:30 -소공연장 초대/이충성(010-4872-5701)
12	sat	
13	sun	
14	mon	
15	tue	
16	wed	수요음악회 '잰색소폰앙상블 연주회' 19:30 -대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슈마트리오 리사이틀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프로인트(521-5729)
17	thu	바리톤 최상재 독창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18	fri	오페라 '봄봄'과 예타래 공연 15:00, 19:30 -대공연장 피아니스트 현미경 독주회 19:30 -소공연장 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19	sat	오페라 '봄봄'과 예타래 공연 15:00, 19:30 -대공연장 교과서 음악회 14:00, 17:00 -소공연장 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20	sun	오페라 '봄봄'과 예타래 공연 15:00,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장은익(242-5231, 1544-3439)
21	mon	오페라 '봄봄'과 예타래 공연 15:00,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장은익(242-5231, 1544-3439)
22	tue	부산플루트앙상블 연주회 15:30, 19:30 -대공연장 균일 5천원/장국태(011-582-5189) 작곡마당 창작곡 발표회 19:30 -소공연장 초대/백현주(017-585-2052)
23	wed	수요음악회 '앙상블로 즐기는 노래세상' 19:30 -대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2)
24	thu	콘체르토, 다 모여라 19:30 -대공연장 균일 5천원/가람기획(626-6664, 011-9394-7169)
25	fri	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00 -대공연장 조경숙(011-550-1116) 어수희 피아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균일 1만원/프로인트(521-5729)
26	sat	인제대 관현악단 제 25회 정기연주회 19:00 -대공연장 김경일(011-9176-6568) 가족뮤지컬 '잠자는 숲속의 공주' 13:00, 15:00, 17:00 -소공연장
27	sun	가족뮤지컬 '잠자는 숲속의 공주' 13:00, 15:00, 17:00 -소공연장 균일 1만2천원/플러스기획(080-071-1212)
28	mon	숙음아르떼 다섯 번째 연주회 19:30 -대공연장 1만원 · 5천원/예은예술기획(632-6904)
29	tue	
30	wed	수요음악회 '김지민 피아노 연주회' 19:30 -대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2)
31	thu	브니엘예중 개교 10주년 기념연주회 19:00 -대공연장 초대/브니엘예중(582-7671)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예매할 수 있는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8/18(금) 11:00, 16:00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균일 10,000원	2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9/2(토) 16:00, 19:30	패티김 콘서트	VIP 88,000원 · R석 77,000원 S석 66,000원 · A석 55,000원	10%	JN미디어 홀딩스 (02-3444-2612)
시민회관 대극장	8/25(금) 14:00, 17:00	MUSA부산타악앙상블 청소년음악회	균일 7,000원	2,000원 할인	김정우 (628-8377)
	8/26(토)-8/27(일) 13:00, 15:00	어린이 캣츠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40%	공연기획 예명 (804-0087)
울속도문화회관 대극장	8/21(월) 14:00, 17:00	MUSA부산타악앙상블 청소년음악회	균일 7,000원	2,000원 할인	김정우 (628-8377)
	8/24(목) 19:30	노영심의 이야기 피아노 마음 心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20%	울속도문화회관 (220-5321~3)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9/22(금) 20:00, 9/23(토) 16:00, 19:00, 9/24(일) 15:00, 18:00	뮤지컬 '헤드윅'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10%	공연기획 예명 (804-0087)
KBS부산홀	8/26(토) 16:00, 19:00	웃찾사 오~개그 코리아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10%	요요기획 (622-5744)
부산전시 컨벤션센터	8/15(화) 19:00	재즈아티스트 로라 피지 부산공연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10%	공연라이프 (626-9494)
삼성생명 문화센터	9/1(금)-11/30(목)	삼성생명 문화센터 제 38기 가을학기	수강료 별도 문의	10%(접수기간 8/1~9/8)	삼성생명 문화센터 (630-6301~4)
그랜드호텔 칸스	8/11(금)-8/12(토) 19:00	코요테 어글리	균일 50,000원 (19세 이상 관람가)	20%	클럽 휴 (611-0002)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티켓 3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고(245-8911), 문우당서점(245-3843)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 금정구/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부산대 앞 518-0686), 골든악기사(부산예고 앞 512-4295)
- 남구/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해운대구/해운대약국(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비바체 클래식(선프라자 1층 743-0003)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203-9381)

타악기로 연주하는  
캐츠, 팝 그리고 영화음악...

여름방학특집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THE SPECIAL CONCERT  
PERCUSSION ENSEMBLE OF MUSA

MUSA

음악감독 송기태



주최: MUSA 부산타악 앙상블 공연문의: 010-5633-0864 051-628-8377  
부산시민회관 대표전화 051-630-5200 울속도문화회관 대표전화 051-220-5321~4

2006. 8.21(월) 19:30 1회 오후2시 2회오후5시 울속도문화회관 대극장  
2006. 8.25(금) 19:30 1회 오후2시 2회오후5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재미있는 음악과 필요한 음악

임병원 · 바이올리니스트, 경성대학교 교수

요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음악과 함께 있다. 그러나 음악이 옆에 있는 지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산다. 이것은 마치 공기를 마시면서 살지만 공기가 있는 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음악을 스스로 찾을 때는 음악이 꼭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길 바란다. 이때는 음악이 자신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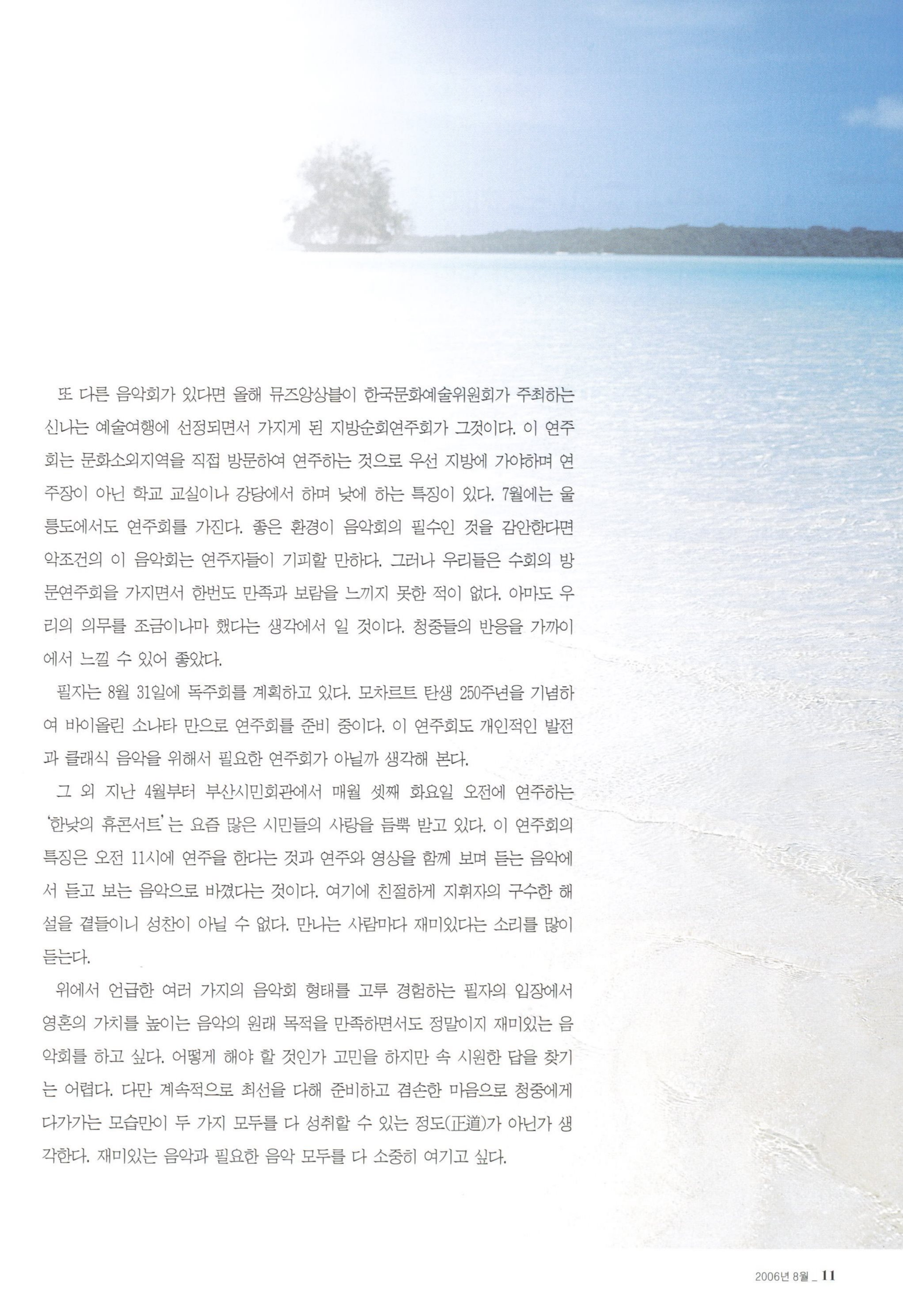
재미있는 음악은 요즘 청중이 원하는 모습 중에 첫째일 것이다. 재미있는 음악회의 예로 지난 5월에 부산시립합창단의 '7080 콘서트'를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연주곡목은 70년대와 80년대 추억의 대중음악으로 구성하였다. 이 곡들을 최석태 선생의 빼어난 솜씨로 재탄생시켰다. 합창의 화음과 바이올린의 선율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정말로 더 이상 재미있는 음악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했다.

이 연주회 중에서 필자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바이올린 독주로 연주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내 친구는 내가 이때까지 한 연주 중에서 손꼽히는 호연이었다고 칭찬했다. 그만큼 듣기가 좋았다는 것이리라. 필자도 이런 재미있는 음악을 즐기는 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음악만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음악을 왜 하는 것일까?' 하는 무척이나 어려운 질문에 용감하게도 음악은 영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 대답할 것이다.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재미있는 음악도 이런 기능을 할 것이지만 다른 면의 음악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면의 음악으로 작년 3월에 열린 무용공연 '최은희의 춤'에 출연하여 필자의 아버지이신 작곡가 임우상님의 '독주바이올린을 위한 郷'을 연주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곡은 한국의 가락을 현대음악으로 표현한 것이다. 꼭 무용 음악으로 작곡하신 것은 아니지만 최은희 교수가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고는 안무를 하셨다. 필자는 그 연주에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음악을 하는 보람을 느꼈다.





또 다른 음악회가 있다면 올해 뮤즈앙상블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신나는 예술여행에 선정되면서 가지게 된 지방순회연주회가 그것이다. 이 연주회는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연주하는 것으로 우선 지방에 가야하며 연주장이 아닌 학교 교실이나 강당에서 하며 낮에 하는 특징이 있다. 7월에는 울릉도에서도 연주회를 가진다. 좋은 환경이 음악회의 필수인 것을 감안한다면 악조건의 이 음악회는 연주자들이 기피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들은 수회의 방문연주회를 가지면서 한번도 만족과 보람을 느끼지 못한 적이 없다. 아마도 우리의 의무를 조금이나마 했다는 생각에서 일 것이다. 청중들의 반응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 좋았다.

필자는 8월 31일에 독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바이올린 소나타 만으로 연주회를 준비 중이다. 이 연주회도 개인적인 발전과 클래식 음악을 위해서 필요한 연주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 외 지난 4월부터 부산시민회관에서 매월 셋째 화요일 오전에 연주하는 '한낮의 휴콘서트'는 요즘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이 연주회의 특징은 오전 11시에 연주를 한다는 것과 연주와 영상을 함께 보며 듣는 음악에서 듣고 보는 음악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여기에 친절하게 지휘자의 구수한 해설을 곁들이니 성찬이 아닐 수 없다. 만나는 사람마다 재미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의 음악회 형태를 고루 경험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영혼의 가치를 높이는 음악의 원래 목적을 만족하면서도 정말이지 재미있는 음악회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지만 속 시원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청중에게 다가가는 모습만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성취할 수 있는 정도(正道)가 아닌가 생각한다. 재미있는 음악과 필요한 음악 모두를 다 소중히 여기고 싶다.



# 젊고 생기 넘치는 재미있는 오케스트라 구상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신임지휘자 이동신



지난 2월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를 통해 부산 음악계에 새 봄을 알리는 라틴 선율을 들려준 지휘자 이동신(40)씨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새로운 음악인생을 시작한다.

“청소년 교향악단을 통해 음악인재를 발굴하고 미래 관객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월드컵 기간 중 청소년 축구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한 것처럼 우리 음악계에서도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Post Doctorate Conducting Intern 및 Assistant Conductor로 활동하면서

미국의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가까이에서 접해본 이동신씨는 많은 지원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곳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항상 부러웠다. 청소년 교향악단은 음악적인 기량 연마보다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생활화하여 인성을 가꿀 수 있는 교육효과가 큰 만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로서 어깨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로 4년간 활동하기도 한 이동신씨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신춘음악회를 객원지휘하며 부산음악계와 첫 만남을 가졌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맑고 정제된 소리를 들려준다는 평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춘음악회 때 자주 연주하지 않는 라틴음악을 어떻게 표현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화려한 연주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과는 7월 20일 연습실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단체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해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이 많았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다. 선입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음악을 좋아하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5살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이동신씨는 음악을 이해해주고 이끌어 주는 주변 사람들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앞으로 단원 개개인의 기량을 파악하고 단원들과 젊고 생기 넘치는 재미있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이 아직 배우는 학생의 신분인 만큼 학문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아카데미한 곡에서부터 지휘자 자신이 좋아하는 말러까지,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발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지휘자가 되기전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운 그는 청소년 시절 수 차례 피아노 콩쿠르에서 수상을 하고 대구시립교향악단과 협연 무대를 가지기도 했다. 그는 협연자로 나선 대구시립교향악단과의 연주회에서 처음으로 지휘자의 꿈을 키웠다.

“중학교 때 피아노 협연을 위해 무대에 섰지만 지휘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오케스트라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지휘자가 되어야지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틈만 나면 공연실황 영상물을 보기 위해 음악감상실을 찾아 다닌 그는 계명대학교에서 평생 잊지 못할 지휘자 우종억을 만났다. 지금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무대에 서지 마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항상 새기면서 단상에 오른다.

이동신씨는 오페라를 특히 좋아한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에서 관현악 및 오페라 지휘수업을 받은 그는 재학시절인 199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부설 루빈시타인 국립극장에서 ‘세빌리아의 이발사’로 오페라 무대에 데뷔했다. 루빈시타인 국립극장에서 부지휘자로 활동하면서 Mariss Jansons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함께 여러 오페라 무대를 지휘했다. 귀국 후에도 창작오페라 ‘무영탑’ ‘신종’을 비롯 ‘라 트라비아타’ ‘라 보엠’ ‘사랑의 묘약’ ‘버섯피자’ ‘헨젤과 그레텔’ ‘호프만의 이야기’ 등의 오페라를 지휘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어 나가면서 오페라 음악에도 도전해볼 계획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지휘자 이동신이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앙상블이 기다려진다.



신임 지휘자 이동신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연습모습.





## 변박(卞璞)의 왜관도와 용틀임

김충진 · 화가

내 그림의 원천이 된 ‘변박(卞璞)’의 왜관도(倭館圖)는 1783년 여름에 그려졌다.

220 여년전, 동래부 소속의 화원(畫員)이었던 그가 초량왜관지역을 관찰하기 위해 걸었던 곳이 영도다. 조선정부의 공도(空島)정책으로 울창한 나무숲으로 덮혀 있었으나, 정상 조봉(祖峰)에는 할매 바위와 함께 아래를 조망할 수 있는 자연 전망대 역할의 바위군들이 있다. 그가 초량왜관을 한눈에 조망 할 수 있는 이곳을 놓칠 리 없다. 화원들은 그리기 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현장답사였으니까.

봉래산(蓬萊山) 조봉(祖峯)은 부산항을 팔방으로 조감(鳥瞰)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손에 잡힐 듯 부산 제 2 롯데월드 신축공사장(옛 용미산)이 정면으로 보인다. 시선이 용두산타워와 북병산, 수정산, 구봉산, 엄광산, 백양산으로 이어진다. 바로 부산 근현대사의 영욕의 흔적이 배여 있는 옛 초량 왜관지역으로, 이곳을 그린 것이 왜관도다.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왜관과 함께 표현된 주변 자연 풍광의 묘사다. 왜관도가 왜관전경과 주변을 조감형식으로 그린 기록화이기 때문에 당시 부산의 실경(實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56동의 건물과 그 명칭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건물의 배치와 개별형태가 사실과 일치 한다는 것이 문헌으로 확인되고 있다. 건물의 배치와 개별형태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의미는 왜관도를 그리기 위해 사전 스케치작업이 선행 되었음을 시사한다.

실제 조봉에서 용두산공원쪽을 보면 시점이 약간 우측으로 돌아 있지만, 남아있는 산의 모습으로도 왜관도 속의 현실경과 거의 흡사하다. 영도구 신선3동 신선초교 일원으로부터 신선2가 신선아파트까지는 화면 속의 구도와 방향이 거의 같다. 산점투시(散點透視)로 스케치하기 위해 택한 장소가 신선동 주변으로부터 조봉에 이르는 지역이다.

그가 왜관도를 그리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세필화(細筆畵, 工筆)에 동감(動感)을 불어넣는 일이었을 것이다. 기록화를 그리는 목적에 따라 세필화를 쓸 수 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한 부분, 실존 인물들의 묘사를 보자. 근경의 배 위에 무사와 뱃사람, 짐꾼과 칼 찬 무사, 대청에 앉아 있는 귀인자태의 인물상, 수문으로부터 쌍산(현 영주동)으로 향한 길에 짐꾼과 다양한 복장의 인물들의 세밀하고 정확한 묘사는 과거의 현실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제 실눈을 뜨고 적당한 거리에서 화면 전체를 보라. 화면을 관통하며, 소용돌이 치듯 업광산(고원전산)을 향하는 힘있는 선(力線)이 먼저 눈에 들어올 것이다. 변박은 명암으로 이어지는 '진한 색상의 연결 띠'를 만듦으로서 동세(動勢)를 취하려고 한다. 힘찬 역선(力線)의 형상, 이것이야말로 이 작품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단연 백미라 하겠다. 용(龍)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이 용두산(龍頭山), 꼬리부분에 해당한다 하여 용미산(龍尾山)이라 불렀는데, 1898년 용두산 신사(神社)가 들어서면서 일인들에 의해 쓰여지게 된다. 변박이 왜관도를 그릴 시기에는 소나무가 울창하다하여 송현산(松峴山)이라 불렀었다. 용두산이나 용미산이란 지명이 생겨나기 110여년 전에, 이미 변박은 용두(龍頭)와 용미(龍尾)의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의도한 것 같다.

고개지의 <화운대산기>중에서 '세(勢)는 마치 꿈틀거리는 용(龍)과 같다'고 하였다. 또, 장사설에서는 '힘껏 내달리는 듯한 큰 세력이 있어야 한다' 하였다. 그가 말한 구도를 잡는 방법의 구체적 내용인 치진포세(置陳布勢)에서는 치진(置陳)은 그림 속 형상의 위치를 가리키고, 포세(布勢)는 배치된 형상의 내재적 역동성과 구체적 내용을 가리킨다 하였다.

기록화의 표현상 어쩔 수 없이 쓴 나약한 세필화의 약점을 보완하고, 사실적 생동감과 함께 역동적인 감흥을 불러 일으키려면 기운생동한 화면이어야 했다. 이것을 위해 짙은 명암의 띠로서 동감(動感) 즉, 동세(動勢)를 표현했다. 56동의 건물을 평지와 산 여러 곳에 배치하고 나면 쓸 수 있는 카드는 명암법과 상징물을 채용한 사의(寫意)의 표현뿐이다. 그러면 배치된 형상의 내재적 상징은 무엇이었나? 필자는 상징적 동물인 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龍)은 예부터 동양 사람들에 있어서는 신령의 걸물이요, 권위의 상징이었다. 용이 만물 조화의 능력을 갖춘 영험과 신비의 상징으로 혹은 권위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는 한편으로 길상(吉祥)과 벽사, 또는 수호의 능력을 동시



김충진 화백의 작업실을 장식하고 있는 왜관도는 1783년 동래부 소속의 화원 변박이 그렸다.





왜관도는 부산의 옛 모습을 담고 있는 실경화(實景畵)로 남아 '잊혀진 부산'을 상기시켜주고 있다.(그림은 김충진작 '잊혀진 부산항')

에 갖춘 동물로서도 애호되었다. 조선시대 왕이나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부터 궁궐의 지붕 위나 임금이 임하는 곳, 사찰, 부도, 묘비, 그림, 가구, 문구, 장신구 등 그림이나 조각 등으로 표시하여 인간의 욕구와 기대를 용의 힘을 빌어 성취하고자 하였다. 소리가 우렁찬 종을 만들기를 원할 때는 그 염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용을 선택하였고, 향로의 불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불을 좋아하는 용을 향로에 조각했다는 옛 기록을 보면 형상의 내재적 상징으로 용을 택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 그려진 모습이 용트림의 형상과 너무나 흡사하다.

용트림의 형상이라 단정하면 모든 의문이 순조롭게 풀린다. 화면 하단우측 용미산으로 부터 한 마리의 용이 엄광산을 향해 용틀임하며 올라간다는 설정임이 분명해진다. 용의 머리부분이 용두산에 도달할 때 쯤이면 고개지가 말한 '힘껏 내달리는 듯한 큰 세력'으로 형성되고, 일단 멈춤의 형상이 된다. 이것을 구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로 '역동성의 구도'다.

또 다른 의미들은 화면 중앙에 힘을 모아 주는 것과 위로 향한 방향성을 극대화하는 것, 용두의 이미지를 강조하게 되는 것들이다. 용두산을 용두(龍頭)의 이미지와 송현산(松峴山)의 이미지로 짙게 채색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북병산을 지나치게 옅은색으로 표현한 것도 같은 의도이다. 만약 '일단 멈춤의 형상' 없이 짙은 명암의 띠가 계속 연결되었다면 화면은 동서로 찢리고, 용두(龍頭)의 구별이 곤란해졌을 것이다. 변박은 짙은 명암의 띠로서 용의 형상으로 동감(動感) 즉, 동세(動勢)를 만들었다. 이것은 기(氣), 흐름을 가시화시켜 기운생동(氣韻生動)한 화면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기록화의 속성상 사실(寫實)에 머물 수 밖에 없었지만 화가의 자존심 같은 사의(寫意)는 이렇게 표출된다. 왜관도는 부산의 옛 모습을 담고 있는 실경화(實景畵)로 남아 '잊혀진 부산'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조선의 화원들에 대해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가 더욱 생생하고 입체감 있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삶의 자취를 찾아보는 일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에 공감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예술성이나 내포된 사의(寫意)를 밝혀내는 일에 한해서는 화가들의 몫이 중요하다. 같은 화가로서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이라야 한 획의 선이나 점을 통해서도, 무릎을 치는 교감의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변박은 이름이 밝혀진 최초의 부산출신화가로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조이며 스승이다. 그를 찾아 조봉을 오른다.



# 부산항의 다양한 모습을 화폭에 담아온

## 서양화가 김충진



부산항의 다양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화가 김충진(62)씨. 부산항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부산데파트 4층이 김충진씨의 작업실이다.

함경도 원산이 고향인 김충진씨는 6·25전쟁 중 8살에 피란길에 올라 부산에 정착했다.

“군산 피란민 수용소를 떠나 밤늦게 도착해 처음 본 부산항의 어선들과 집들이 뿜어내는 밝은 불빛, 자갈치 시장의 사람들을 보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랐던지, 아직도 그때 모습이 내 그림 속에 살아있어.”

사실 어린 시절 그림을 반대한 아버지 때문에 그림공부를 할 수 없었던 김충진씨는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다. 1992년 부산항 장

기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부산항의 단계별 변천사를 그리는 지도 작업에 참가하면서 부산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김충진 선생은 항만연구회와 각 대학 전문가들의 자료를 보며 본격적으로 부산항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선생 그림의 원천이 된 변박의 왜관도를 알게 되었고 변박의 발길을 따라 봉래산 조봉을 수십차례 오르내렸다. 김충진씨는 변박의 그림은 물론 한국적인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뒤늦게 한국 디지털대학에 입학, 2006년 문화예술학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그 작업의 결실을 2004년 영광갤러리에서 선보인 김충진 선생은 개항당시 부산항일대의 지형과 마을을 그린 100호 짜리 ‘잊혀진 부산항’을 발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의 그림은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 평론가들로부터 현실풍경과 옛지도로 대비된 풍경사이에서 발견되는 인식의 차이를 통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현을 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재현하고 나름대로 상상을 보태 부산의 또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그림이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이정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부산항을 누비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는 청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 아쟁과 해금을 아시나요?

홍희철 · 고신대, 경성대, 부산교대 외래교수

얼마 전 기말고사를 친 뒤 답안지를 채점하면서 하마터면 쓰러질 뻔 했다.

“아쟁과 해금을 비교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거의 모든 학생들이 너무도 꼼꼼하게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잘 적을 리가 없는데...”

좋은 성적을 받기위해 최선을 다해준 학생들에게 고마운 생각이 밀려 올 무렵, 잠깐이지만 나를 가슴 답답하게 한 이유가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다. 시험치기 전에 악기이름을 혼동하지 말라고 그토록 당부했건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악기를 비교설명한 제목이 서로 바뀌어 있는 게 아닌가! 아쟁의 답에 해금에 대한 설명이 뽁뽁이 적혀있었고, 해금에는 반대로 아쟁에 대한 설명이 친절하게(?) 아주 꼼꼼히 적혀있는 것이었다. 열심히 공부하고 답을 적었지만 결정적으로 악기제목을 바꿔 적어 0점 처리된 학생이 상당한 것을 보며, 아쟁과 해금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모양이었다. 상가집에서 실컷 울고 난 후 “죽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경우와 비슷한 허탈감을 느꼈다.

한 달 전인가 여러 음악인들이 사석에서 모임 일이 있었다. 간단히 나를 소개했는데 멀리 앉아있던 한 사람이 일 부러 내 앞에 가까이 다가오더니 국악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늘어놓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국악기가 <아쟁>이라면서 애써 연주하는 시늉을 보여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설명하려는 악기가 아쟁이 아니라 <해금>이었다. 평소 아쟁과 해금을 혼동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일러줬는데 별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 왜냐면 옆자리 의 사람들에게도 국악에 대해 엉뚱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쉬지 않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악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무지 앞에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나중에 알았는데 이 사람은 서양음악을 전공한 중학교 음악교사였다.)

아쟁이라는 악기는 한마디로 가야금같이 생겼다. 그리고 활대를 사용한다. 해금은 세로로 세워져 연주하는데 역시 활대를 사용한다. 아쟁과 해금은 활대를 사용하는 공통점을 가진 우리나라의 대표적 찰현악기(현을 활대로 마찰시켜 소리 내는 악기)이다.

아쟁은 고려시대에 들어온 악기로서 ‘알쟁’이라는 중국악기가 한국화된 악기로 볼 수 있다. 우리역사와 함께 궁중 음악 등에 연주되어 오다가 일제시기 전후에 민속음악 등의 연주를 위해 개량된 형태의 아쟁(소아쟁)으로 나뉘어 두 종류가 연주되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필요에 의해 첼로, 비올라, 더블베이스 등으로 악기군들이 확장, 개량, 재창 작되어 오늘에 이르듯 빠른 음악을 위해 변신을 시도한 끝에 탄생한 악기가 오늘날의 산조아쟁이다.



특이한 것은 대아쟁의 경우, 활대를 나뭇가지를 꺾어 사용한다는 점이다. 전 세계의 수천가지 악기 중 나뭇가지로, 그것도 말총이나 실 하나 달지 않고 송진만 바르고 뽀뽀 문지르며 연주하는 악기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아쟁이 유일할 것이다. 첼로, 바이올린에 비해 투박해도 너무 투박하다. 서양음악의 우아한 고전음악에 귀가 젖은 사람이 들으면 경악할 연주기법을 가진 악기가 아쟁이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아쟁연주자들은 이 나뭇가지 활대로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 좀 투박해도 훨씬 깊고 호소력 있는 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대아쟁은 관현악의 저음부를 담당하며 궁중음악계통의 음악에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산조아쟁은 민속음악의 독주나 합주, 그리고 창작곡의 연주에 빠지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중국에는 이미 사라진 이 아쟁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더욱 대중화되어 새로운 연주를 위해 개량되고 재창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해금이라는 악기는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한 악기다. 일단 줄이 두 개뿐이다. 하지만 이 두 줄에서 참으로 다양한 음색, 표정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 이런 악기가 있는 것이 마냥 자랑스러울 뿐이다. 특이한 것은 바이올린이나 첼로같이 활대가 악기 몸통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줄 사이에 끼워져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해금이라는 악기가 몽골계통 유목민의 악기이기 때문에 말 위에서 한손으로 고삐를 잡고, 또 한손으로 악기를 잡았을 때 활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말 위에서도 연주할 정도이니 악기가 크거나 무거우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해금은 다른 국악기에 비해 작다.

해금과 비슷한 악기가 중국에도 있는데 二胡(얼후)라고 한다. 해금에 비해 화려한 음색을 가졌고 중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악기다. 해금이 중국의 얼후에 비해 음색이 화려하거나 크지도 않지만 참 매력을 가졌다.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움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옛날 그대로의 모습과 음색을 간직한 해금이 더욱 사랑스럽고 애뜻하게 들리는 것이 비단 필자만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바이올린이나 얼후에 비해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느린 곡을 연주할 때는 한없는 여유를, 빠른 곡을 연주 할 때는 우리선조들의 당찬 기상을 느낄 수 있어 해금은 아무리 들어도 좋다. 서양인의 생김새에 한국인의 그것을 비교 하는 것이 의미없는 일이듯, 비교하지 말고 감상해보자. 지금껏 배워왔던 서양음악적 가치관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면 너무도 사랑스러울 것이다.

지치기 쉬운 여름, 진한 여운을 느끼게 하는 아쟁산조와 바닷바람 같이 들려오는 해금의 선율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 추천하고 싶은 음반** - 한일섭 아쟁산조, 장월중선의 음악세계, 박종선 아쟁산조, 윤윤석 아쟁산조, 박대성의 국악 세계, 지영희 해금산조, 김천홍 해금정악, 이현의 농(주영위), 한범수류 해금산조, 정수년 강은일 꽃별의 창작곡



# 그대 안의 바다

## - 최석운의 그림 〈꿈꾸는 바다〉

김형술 · 시인

언제 사람들은 바다를 그리워할까. 어느 때 바다는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인간의 세상으로 은밀한 신호를 보내는 걸까. 지구상에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 그 처음부터 바다는 동경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근원이었으며 지배하고 극복해야 할 경이로움의 대상이었다. 대륙과 대륙 사이에 가로놓인 그 무량한 거리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푸르고 검은 그 물빛 아래의 깊이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변화무쌍함이 바다의 실체이자 매력이다. 동서고금의 무수한 예술가들이 이 신비한 매력을 그림과 글, 음악의 형식을 빌어 표현하고 기록해왔지만 바다를 만날 때, 바다가 있는 풍경 그 어디 쯤에 서게 될 때, 사람들은 누구나 예술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름의 느낌과 소회가 몸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낀다.

바다는 저 스스로 수많은 말들을 품고 있지만 또한 인간의 몸과 마음 속에 억눌린 채 잠재해 있는 크고 작은 말들을 토해내게 하는 능력 또한 갖고 있다. 그럴 때 바다는 마치 어린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어머니와도 같아서 사람들은 늘 바다를 그리워하며 바다에게 제 속을 털어내 보이고 싶어한다.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이고 연인의 뒷모습은 늑대의 꼬리를 가졌으며 세상은 귀도 그림자도 꼬리도 보이지 않는 괴물의 그것이라고. 그렇게 몸과 마음을 텅텅 소리가 나도록 비워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바다가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된다.

최석운의 그림 〈꿈꾸는 바다〉 속의 바다는 친근하고 다정한 바다이다. 이곳엔 거칠게 날뛰는 물결이나 세상을 뒤엎을 듯 커다란 힘으로 달려오는 바람도 없다. 이 그림 속의 바다는 평온하기 그지 없어서 작은 물이랑 하나 뱃전에 부서지며 포말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수평선의 중간 쯤에 희미한 섬그림자 하나가 떠있고 바위 위에 흰 갈매기도 한 마리 앉아있는 걸로 보아 이 바다는 내륙 깊숙이 들어온 호수같은 바다임이 틀림없다. 그 바다 위에 조각배 하나 띄워놓고 화가는 자신의 그림 속에 자주 등장하는 개 한 마리도 동승한 채 바다의 끝 어딘가를 하염없이 보고 있다.

그림의 제목은 〈꿈꾸는 바다〉이지만 기실은 화가 자신의 꿈속이기도 할 이 그림은 단박에 고은의 시를 떠올리게 한다. “배가 있었네/ 작은 배가 있었네./아주 작은 배가 있었네//(중략)//작은 배로는/떠날 수 없네/아주 멀리 떠날 수 없네(작은 배)” 속 먼 바다를 향해 떠날 준비를 한 사람이 입을 만한 옷이 아니라 그저 평상복을 입고, 일상을 상징하는 개 한 마리를 배에 태우고 작은 배 위에 앉아 화가는 바다의 끝 저 너머를 꿈꾼다.

그저 꿈만 꿀 뿐 항해를 할 마음가짐이나 구체적인 준비를 할 생각은 애초에 없다. 오히려 바위 위에 앉은 흰색의 형체뿐인 갈매기와 방금 물 속에서 튀어오른 물고기는 화가가 바라보고 있는 바다의 반대쪽을 향해 있다. 새와 물





최석운작 '꿈꾸는 바다', 1998, Acrylic on Canvas

고기가 바라보는 바다의 반대쪽이란 다름 아닌 일상의 세계, 즉 팔을 걷어붙인 셔츠와 넓은 청바지를 입고 강아지와 산책하는 지상의 시간, 똑같은 시간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차하고 권태로운 인간의 세계이다. 망망대해, 바다 너머의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화가는 진작부터 그건 꿈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다. 해가 저물고 바다에 어둠이 내리면 자신은 작은 배의 머리를 물으로 돌려야하고 물 속에서 솟구쳐 오른 물고기는 물 속으로 돌아가야 하며 바위에 앉아 쉬던 갈매기는 다시 날개를 펼치고 날아올라 자신의 영역인 거친 바람이 있는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런 고정불변의 시간 아래 놓여있음으로 인간에게 언제나 꿈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그 꿈은 대수롭지만 아주 소중한 일상의 한 요소라는 걸 그림 속의 풍경들은 말하고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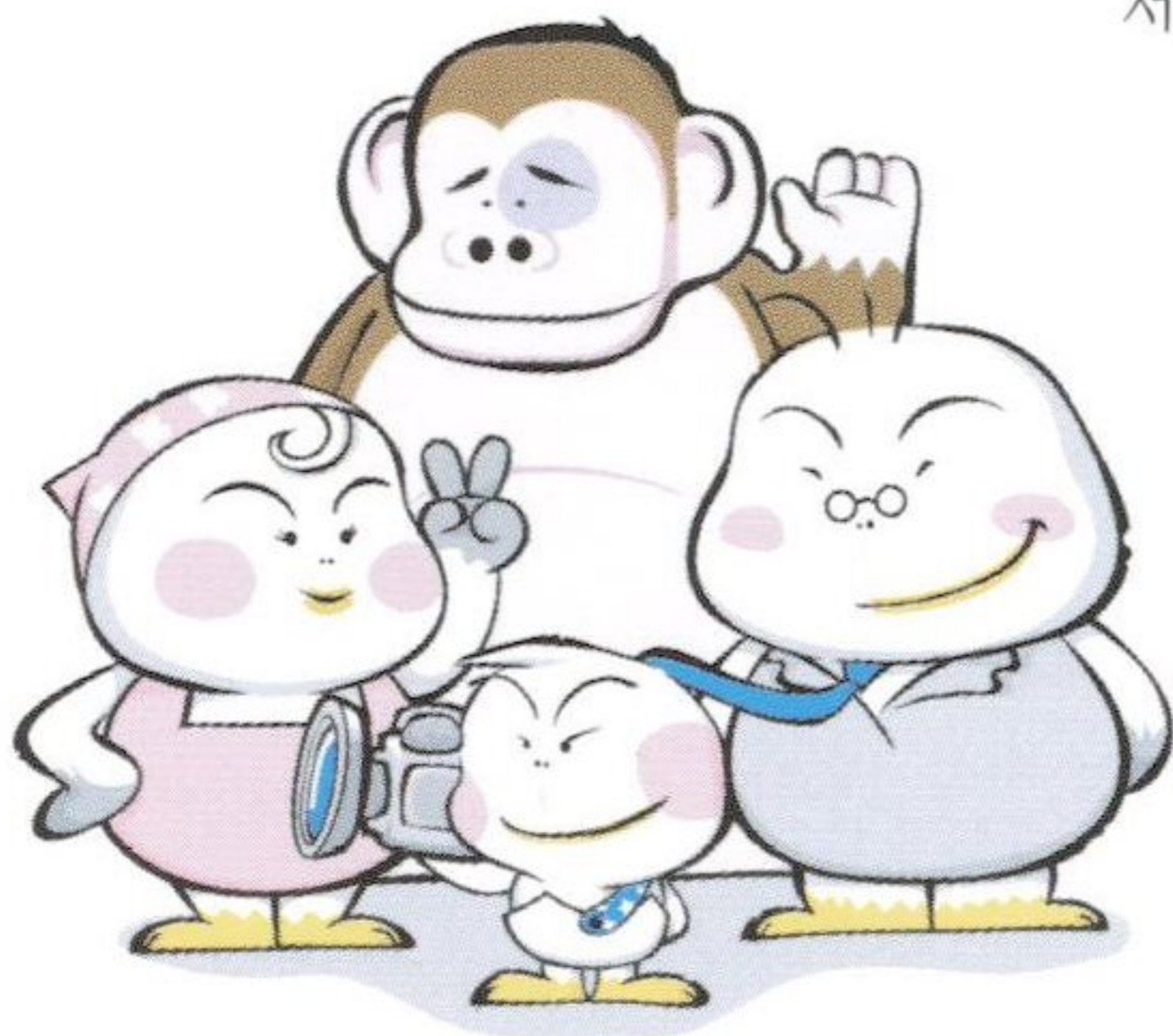
여름이 와서 아주 잠시, 사람들이 집을 떠나 바다를 찾는 일 또한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꿈꾸기의 한 방편이다. 꿈을 꾸는 일이란 일상에서 잊고 잃어버린 삶의 작지만 소중한 부분들을 되찾아 다시 몸과 마음 속에 간직하게 되는 경건한 의식이기도 하다. 인간이 잃어버린 꿈들에 관해 다시 생각하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것들 또한 인간과 함께 꿈꾸기를 시작한다. 꿈꾸는 바다, 꿈꾸는 새, 꿈꾸는 물고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언제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깃들어 있다. 그리고 지금은 8월, 기꺼이 바다를 꿈꾸어야 할 시간이다.





# 출발! 비키

김희진 · 영화감독



제1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비키BIKI)가 드디어 이 달 스크린을 펼친다.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해운대 메가박스를 중심으로 5일 간의 일정을 진행한다. 사실 지금도 과연 영화제가 시작될 수 있을지 걱정이 든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모든 행사의 어려움일 수 있지만 비키는 참 어렵게 준비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컸다. 영화제 사무국은 매일 가능한 행사 규모를 조절하기 위해 머리를 마주하고 오랜 논의를 해야만 했다. 경기 불황에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이벤트로 협찬을 따내는 것이 유난히 힘든 해였다. 시 예산도 참 어렵게 확보했다. 기대

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제에 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므로 이후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한 좌석 후원 같은 개인 후원금 모금 등을 통한 기금 마련 행사를 준비하여 조금이라도 더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내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이들의 눈망울에 조금이라도 더 밝고 희망찬 빛을 비추기 위해 비키는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다.

차츰 비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드는 생각 중 한 가지는 영화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이다. 영화는 역사를 통해 가장 대중적인 매체 중 하나가 되었다. 현대의 신화는 모두 영화를 통해 만들어질 정도로 영화는 정서적인 파급 효과를 자랑해 왔다. 누구나 어린 시절 또는 지난 과거의 영화 한 장면쯤은 마음에 담고 있을 정도니, 영화는 인간의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영화가 사람의 의식을 구성하고 정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영화를 적절히 활용하여 사회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화는 성인들에게 보다는 어린이들에게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매체가 아닌가 생각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정서 함양에 영화가 적절하게 기능할 때 세상은 좀더 풍성해 지리라 믿는다. 비키는 바로 이러한 의미로 출발했고 올 해 첫 영화제의 시작은 멈출 수 없는 사명이 될 수밖에 없다. 영화라는 무궁한 상상력의 세계는 어린이들을 통해 좀 더 순수해질 필요가 있다. 분명 어린이들은 비키를 통해 성장할 것이고 영화에 대한 그들의 주권을 찾을 것이다.



비키의 가장 큰 버팀목인 김상화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일생을 통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다.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고 있기도 하다. 그가 비키에 가지는 애정은 한 아버지로서 가지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 뿐 아니라 한 명의 교육자로서 가지는 교육에 대한 열정도 포함된다.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대학 교수인 그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을 만들어 가는 모습은 충분히 모범이 된다. 단지 신자유주의 시대에 부응하는 세상살이에 둔감하다는 이유로 그의 의미 있는 활동이 쉬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영화제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시각도 다분하지만 적어도 어린이 영화제만은 순수해져야 하기에 그는 꼭 필요한 예산을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옆에서 지켜보기에 그에게도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함께 마음을 모은 집행위원, 후원회원들에게도 시작이 너무 힘들다. 그러기에 비키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모두 열정을 다하는 것 같다. 힘든 일은 분명 무언가 큰 교훈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집행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면서 비키의 사무국 직원들의 노력은 나에게도 자극을 준다. 매일 도시락을 싸와 함께 나누어 먹는 점심 식사 중에도 그들이 가지는 어린이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비키가 단순히 한 해 중 한번 치러지는 행사가 아니라 일년 내도록 상시적인 활동을 하는 점에서 이 점은 더 뚜렷해진다. 어린이 영화캠프, 어린이 영화 학교, 달리는 영화관, 어린이전용극장, 어린이 영화 교육을 위한 강사 워크숍, 어린이 용 영화 교육 교재 개발 등 그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시간이 빠듯한 만큼 필요로 하는 곳도 많다. 영화를 꿈꾸며 자랐고 그 영화가 교육적으로 활용되기에 좋은 매체란 것을 빠르게 인식한 그들이 자신의 영화를 만들거나 그럴듯한 직장을 구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우선해 이 일을 선택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은 분명 세대를 이어가리라 생각된다. 그들과 아이들은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친구가 되어가고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한 때 우리 모두는 어린이였고 그 시절을 사랑한다. 어린이처럼 살아가는 법을 깨닫고 어린이와 함께 행복한 꿈을 꾸길 선택한 그들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어른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는다.

자 그럼, 제1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의 문턱으로 조금만 다가가 보자. 허리를 굽히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상상력의 세계에 빠져 보자. 총 102편의 영화가 우릴 기다리고 있다.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이 영화들은 세계의 어린이들이 만들거나 보는 영화들이다. 먼 나라에서도 왔고 가까운 나라에서도 왔으며 바로 지금 이 곳에서 만들어진 작품들도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다. 잠시나마 잊고 지낸 낮고 어린 시야의 세계로 빠져 보자. 우리의 아이들과 신나게 얘기하고 뛰어 놀아보자. 어려운 시작을 하는 비키에게 몸으로 마음으로 격려를 보내자. 그래서 모두가 친구가 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온 세상 어린이들을 비키를 통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 다 만나보자.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 하모니는 벽을 뚫고 울린다

## 체홉 - 〈갈매기〉

변미선 · 연극배우, 부산대 강사

[프레블레프] 엄마가 평생 연극만 하고, 예술 한답시고 인류에 봉사를 했느니 어쩌니 하지만 내가 볼 땐 요즘 연극이라는 것은 틀에 박힌 인습에 불과해요. 해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삼면이 벽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구경하러 가죠. 신성한 예술의 사도라고 떠들어대는 배우들이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자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모양을 흉내 내죠.

[쓰린] 연극은 없어서는 안되지.

[프레블레프] 그러니까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형식 없이는 연극은 없어지는 게 나아요.

틀에 박힌 인습을 탈피한 새로운 형식의 추구는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체홉의 문학세계였다. 기존 문학세계의 찝찝한 틀과 긴장감 있는 갈등구조를 탈피해서 단순히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의 단면을 담담히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장식을 걷어낸 단순함은 빙산의 일각이다. 드러나지 않는 92%를 위해 연출가는 행간을 읽어내고, 배우는 디테일한 행동으로 구축해내며, 관객은 현시되는 일상 이면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클라이맥스라고 생각되는 곳은 점진적 상승이 아니라 순간 예고도 없이 발생한다. 그것조차 그리스극처럼 점프컷으로 잘려나가거나 무대 뒤에서 이루어진다. 진보적인 작가 프레블레프가 낭만주의적인 연기에만 길들여져 있는 스타 배우인 어머니의 몰이해와 주변의 진부한 작가들의 평가에 염증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은 멀리서 총소리로 처리된다. 프레블레프가 사랑한 니나가 그를 떠나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도 프레블레프의 담담한 설명으로만 처리된다. 프레블레프 어머니의 애인인 진부한 천재작가 프리고린에게 영혼이 팔려 따라나섰다가 버림받고 임신했던 애기마저 죽어버리는 니나의 인생역정은 이 작품에서 비일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몇 줄의 대사로 치환될 뿐이다. 일상은 축소되고 극적인 사건만이 강조되는 일반적인 작품에 비하면 옷을 뒤집어 입은 느낌, 혹은 바나나 껍질을 먹는 느낌에 가깝다.

관객에게 인물의 심리적 변화를 모두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세련되게 읽어내도록 하는 이러한 기법은 당시 〈갈매기〉가 발표되어 첫 공연되었던 1898년에는 당연히 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평단의 악평을 들은 체홉은 절필을 선언했으나 그의 희곡이 새로운 기법으로 공연되는 기회가 찾아왔다.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새로운 연극세계의 문을 열고 있던 연출가 겸 배우 스타니슬라브스키와 연출가 겸 작가인 네미로비치 단첸코가 싱그러운 미소와 함께 악수를 청했다.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의 〈갈매기〉 공연은 대성공이었고, 절필을 청산한 체홉은 이후로 〈세 자매〉, 〈벚꽃 동산〉 등의 작품을 써서 사실주의 연극세계의 장을 연다. 스타니슬라브스키는 현대 배우의 연기법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희곡, 연출, 연기 모두가 훌륭히 조화되어야만 성공한 연극이 탄생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체홉은 <갈매기>로 개척에 성공했지만 <갈매기>의 극내용에서는 선구적인 작가가 버림받고 있다. 극의 마지막까지 니나는 구태의 연한 인습에 물들어있는 소설가 프리고린이 자신을 파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랑을 놓지 못한다. 프레블레프는 그가 유명 소설가로 성공한 이후에도 결코 니나의 사랑을 얻지 못한다. 과거 세대로 상징되는

어머니는 이미 타락한 배우이고, 새로운 세대로 상징되는 니나는 여전히 허영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 니나와 프레블레프는 둘 다 사냥꾼에게 총을 맞은 갈매기임을 인지한다.



틀에 박힌 인습을 탈피한 새로운 방식을 추구한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홉의 대표작 '갈매기'는 전 세계에서 자주 공연되고 있다.

[프레블레프] 내 대본이 너무 형편없어서 나의 재능이란 건 그저 평범함에 지나지 않은 것을 잘 이해하고 있겠지. (발을 탕 구르며) 난 돌대加里야, 골통이야. (죽은 갈매기 시체를 가리키며) 이렇게 대加里에 총 맞은 놈이야!!! (멀리서 오는 프리고린을 발견) 흥, 저기 진짜 천재가 오는군. 걷는 자세도 햄릿과 비슷하군. 당연히 책도 들고 있고... '말, 말, 말뿐이다.' (자기 말은 듣지도 않고 그쪽만 바라보고 있는 니나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퇴장)

[니나] 난 갈매기예요! 기억나요? 그 쪽이 언젠가 갈매기를 쏘 죽인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나가던 남자가 그 처녀를 보고 심심풀이로 파멸을 시켜 버렸다. 하하하 (이마를 문지른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스타니슬라브스키와 단첸코가 추구한 연극이 진실한 무대와 앙상블이었듯이 체홉이 만들어낸 <갈매기>의 인물들은 어느 하나 중요성 없는 엑스트라로 등장하지 않는다. 크고 작은 모든 역은 각자의 인생을 진하게 드러내고 있다. 모든 배역이 살아있는 인물설정, 이것이 체홉의 별스럽지 않은 연극에 있어 또 하나의 매력이다. 주조역의 조화, 이러한 하모니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가져온다. 이것은 선과 악 이분법이 지배하던 인간구범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이후 100여년 문학예술계는 상황 속에 놓인 인간의 다양성에 대해 무한한 질문을 터트리게 된다.





## 국내 최초 조각보 전문 박물관 주천 조각보박물관

남는 천이나 자투리 천을 한뼘 한뼘 이어 만든 조각보에는 그 옛날 어려웠던 시절을 슬기롭게 헤쳐왔던 우리 어머니들의 정성과 멋이 담겨져 있다. 자투리천이 하나둘 어우러져 빛어내는 조각보의 아름다움은 근래 들어 우리의 전통적인 멋을 대표하는 예술작품으로도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각보 전문박물관인 '주천 조각보박물관'이 부산에 문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천 조각보박물관'은 조각보 연구가인 주천 김순향씨가 우리 전통의 멋을 고스란히 간직한 조각보의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7월 13일 문을 열었다. 3년전 박물관 개관을 염두에 두고 자리를 알아보던 중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해운대에 동지를 트게 되었다.

김순향씨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바느질법으로 평생동안 조각보를 만들어왔다. 조각보를 가까운 지인에게 선물하면서 작품으로서 조각보가 가진 예술성에 눈을 돌린 그는 가는 바늘 하나로 묵묵히 작품을 만들어 왔다. 조용히 작품세계를 펼치던 그의 솜씨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2002년, 지인들의 권유로 대한민국





조각보 연구가인 주천 김순향씨가 지난 7월 13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조각보 전문 박물관인 주천 조각보박물관.



100여명 규모의 전시관을 갖춘 주천 조각보박물관(사진은 2003년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수상한 '쪽빛 모시 꽃보')

전승공예대전에 작품을 출품하면서 부터이다. 지난해까지 4회 연속으로 수상하면서 솜씨를 인정받았던 그는 지난 2003년에는 한국무형문화재 조각보 기능보유자로 지정되기도 했다.

김순향씨가 작품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평소에도 '우주를 삼키는 안내로 福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한다는 그는 작품에 들어가면 하루 10시간이 넘게 바늘과 씨름한다. 그런 김순향씨의 열정 때문에 이번 박물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웃지못할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다.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보안상 경비업체를 통해 지문인식기를 도입했는데, 열 손가락 모두 지문이 인식되지 않더군요.”

지문마저 닳아 없어진 그의 손 끝에서 40여년간 조각보에 기울인 그의 노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본을 따라 만드는 퀼트는 알면서도 자투리 천을 이용해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조각보에 대해서는 왜 그리 무관심한지 안타깝다”는 그는 간혹 배워보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얼마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기가 일쑤라 안타까울 때가 많다.

100여명 규모의 전시관과 교육관을 갖춘 주천 조각보박물관은 옛 전통 그대로 재현한 작품에서부터 변화하는 시대의식에 따라 그가 새롭게 창작한 작품까지 그동안 김순향씨가 작업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평생을 걸쳐 해 온 작업이라 작품 수 또한 만만치 않아 앞으로 주기적으로 작품을 바꿔 전시할 계획이다.

개관기념전이 열리고 있는 1층 전시관에 들어서면 김순향씨 대표작 중 하나인 '아리랑 태극기보(145×147.5cm)'가 관람객을 맞는다.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있는 '쪽빛모시꽃보(91×96cm)'는 2003년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모시조각보 부문 수상작으로, 이 땅의 하늘빛을 머금은 쪽빛의 오묘한 세계를 조각보로 구현한 작품이다. 이밖에도 은은한 향과 고결한 품위로 선비의 품성을 상징해온 난(蘭)을 주제로 한 '난보' 연작과 독창적인 화면구성과 함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있는 '연보', 경주 석가탑에서 착안했다는 '탑보' 등 그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다. 오는 9월 서울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인 김순향씨는 앞으로는 후대에 남길 창작활동에 더욱 치중할 계획이다.

■ 개관시간 : 화·목·토요일 오후 2시~5시(단체관람은 사전예약)

■ 문의 : 주천조각보박물관(744-0026, 747-6822)



## 뮤지컬 사랑을 노래하는 뮤클합창단



뮤지컬·클래식 애호가들의 모임인 '뮤클' 회원들로 결성된 뮤클합창단.

시민회관 3층 연습실을 들어서자 뮤지컬 '레미제라블' 삽입곡인 'One Day More'가 흘러 나온다.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함께 부르는 'One Day More'는 각 인물들에게 주어진 캐릭터에 맞는 멜로디가 들어있는 대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뮤클 합창단 연습이 있는 날. 굵은 빗방울 속에서도 공연을 앞두고서인지 많은 수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일찌감치 도착한 회원들은 서로 화음을 맞춰보면서 모여드는 회원들과 반갑게 눈인사를 맞춘다.

'뮤클합창단'은 뮤지컬과 클래식에서

그 첫글자를 딴 뮤지컬, 클래식 애호가들의 모임인 Daum카페의 '뮤클' 회원들로 구성된 혼성 4부 합창단이다. 동호회 초기 뮤지컬 넘버곡을 배워 불러보던 'Sing a Musical Number'에서 시작, 합창단으로 발전한 뮤클합창단은 지금은 뮤지컬·클래식 DVD상영,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체관람, 뮤지컬 노래부르기 & 합창, 뮤클원정대 등 뮤클 4대 정기모임으로 활동중이다. 2005년 3월 결성된 뮤클합창단은 지휘공부를 했던 회원 김세훈씨의 지도로 그해 7월부터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가 올해 1월 첫 정기연주회를 통해 공식적인 출발을 알렸다.

뮤지컬 노래 배우기에서 시작된 만큼 뮤클합창단이 부르는 합창 레퍼토리는 대부분이 뮤지컬 넘버곡이다. 올해 2월 김순화 회원으로 새로운 지휘자가 바뀌면서 가곡과 가요 등 일반 합창곡으로 레퍼토리가 확대되기는 했지만 뮤지컬 넘버곡 연주하는 여타 합창단과는 다른 뮤클 합창단만이 갖는 매력이다.

현재 회원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뮤클합창단은 매주 한차례 정기모임을 통해 화음을 맞춘다. 한번 모였다 하면 연습에 빠져 시간가는 줄 모른다는 회원들은 그 열정만큼은 뮤지컬 배우



부럽지 않다.

뮤지컬을 사랑하고 노래부르기를 좋아한다면 누구라도 환영한다는 뮤클 합창단에게 노래를 잘 부르는 것보다 좋아하는 뮤지컬을 함께 즐긴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뮤지컬 삽입곡은 듣기에는 편하지만 막상 부르기에는 어려운 곡”이라는 회원 김숙희씨. “삽입곡 대부분이 솔로 혹은 코러스 위주의 곡이라 합창곡으로 편곡하기 힘들다”는 그는 “합창에 있어서도 처음 원곡의 느낌을 살리는데 무엇보다 중점을 둔다”고 한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넘버들을 가장 좋아한다는 그는 정기모임 ‘Sing a musical number’ 회원이던 2003년 4월부터 쪽 활동해오고 있다.

“우리 무대를 지켜본 사람들이 노래에 갖고 그 관심이 뮤지컬에게 까지 이어진다면 뮤지컬 장르를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는 회장 이상훈씨. 더 나아가 뮤지컬에 관심을 갖게된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게 된다면 공연 관람문화 활성화에도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한다.

뮤지컬 곡은 아직 대중적이지 않아서 악보를 구하기가 처음엔 쉽지 않았으나 틈틈이 해외에서 구입한 50여권의 단행본 뮤지컬 악보와 20여권의 뮤지컬 합창메들리 곡이 최근 뮤클 합창단의 레퍼토리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뮤클 합창단은 지난 7월 23일 영광도서 문화 사랑방에서 가진 <영광도서와 뮤클이 함께하는 클래식·예술공연 DVD상영> 1주년을 기념하는 축하공연을 가졌다. 이날 무대에서 뮤클 합창단은 캣츠, 미스 사이공,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등 세계 4대 뮤지컬 넘버곡을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올 하반기부터는 성악을 전공한 전문 지휘자와 함께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질적인 내실을 꾀하겠다는 뮤클합창단은 앞으로는 정기연주회 외에도 시민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뮤지컬 사랑을 계속 펼쳐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다음카페 뮤클(cafe.daum.net/mukle), 뮤클 합창단 총무 조원호(010-9058-3641)



뮤지컬 노래배우기 모임에서 시작된만큼 뮤지컬 넘버곡을 주요 레퍼토리로 부르는 뮤클합창단.



뮤지컬을 사랑하고 노래부르기를 좋아하는 뮤클합창단 회원들의 열정은 뮤지컬 배우 부럽지 않다.







1장과 3장, 그리고 5장에서 마무리 부분을 연결시켜 채보하였다. 연주시간은 4-5분 소요된다.

시조(時調)를 부르는 인구가 100만이 된다 한다. 한국인의 피 속에는 학문을 좋아하는 것과 악(樂)을 즐기는 요소가 다량 흐르는 것 같다. 시조는 선비들의 정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정서이다. 그 시(詩)를 노래로 부르니 흥이 많은 한민족으로서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시조창에 관한 문헌은 영조 때의 학자 신광수의 석북집(石北集) 관서악부에 관련 한시가 있고 악보로는 정조 순조 때의 학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중 유예지(遊藝志)와 이규경의 구라철사금자보(歐羅鐵絲琴字譜)가 있다.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戌樓)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 호가(一聲胡茄)는 남의 애를 끊나니.

												□    30	
終章				中章				初章				前奏	평 시 조 평 時 調 男 唱
潢 冲 - - 潢 潢 潢 冲 - 潢 潢	남 의 - - 潢 潢 潢 冲 - 潢 潢	淋 冲 - - 潢 潢 潢 冲 - 潢 潢	어 디 - - 潢 潢 潢 冲 - 潢 潢	冲 하 - - 潢 潢 潢 冲 - 潢 潢	기 에 - - 潢 潢 潢 冲 - 潢 潢	冲 기 - - 潢 潢 潢 冲 - 潢 潢	옆 에 - - 潢 潢 潢 冲 - 潢 潢	冲 아 - - 潢 潢 潢 冲 - 潢 潢	수 루 - - 潢 潢 潢 冲 - 潢 潢	潢 - - 潢 潢 潢 冲 - 潢 潢	달 밝 은 - - 潢 潢 潢 冲 - 潢 潢		

시조창은 불러지는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서울 중심의 경제(京制), 전라도 지방의 완제(完制), 경상도의 영제(嶺制), 충청도의 내포제(內浦制) 등이 있다. 종류로는 평시조, 사설시조, 지름시조, 각시조, 반각시조, 중허리 시조, 우시조, 엮음지름 시조 등이 있다.

시조창의 반주 악기로는 대금과 단소가 많이 쓰이고 있어 초, 중, 종장 모두를 채보하였다. 유빈(賔)소리는 지공을 3.5, 즉 세 개 반을 막고 요성을 크게 해준다. 전주(前奏)와 초장, 중장 끝부분 다섯 박자는 노래는 쉬고 단소로만 연주하니 더욱 세심히 연주해야 된다.

8회에 걸쳐 단소 붙어보기 연재를 하면서 지면으로 설명하기가 한계가 많음을 실감하였다. 1회 때 단소를 시작하신 분들, 계속하고 계시는지. 그동안 관심을 가져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단소 시작이 평생의 친구가 되길 빌어 본다.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것이 예술이다.

단소붙어보기는 이번호로 끝을 맺습니다. 상세한 해설로 지상강좌를 해 주신 채수만님께 감사드립니다.



## 제 15회 부산무용제에서 대상 수상한

동아대학교 교수 **장 정 윤**



지난 7월 6일 막을 내린 제 15회 부산무용제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동아대학교 장정윤 교수. 장 지오노의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을 새롭게 해석한 창작무 '우주나무'로 대상을 수상한 장정윤 교수는 지난 1994년과 1998년에 이어 부산무용제에서만 세 번째 대상을 수상한 관록의 춤꾼이다.

'우주나무'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춤 위주의 작품 완결성과 안무자의 메시지 전달이 좋은 우수한 작품으로 실험성과 무용수들의 기량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원작이 지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마음이라는 우주 속에서 자라는 한 그루 나무인 '우주나무'를 우리들 마음속에 심어 인간 본연의 심성을 회복하자는 안무자의 염원을 잘 담아내고 있다.

“경쟁속에서 각자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많은 동인단체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다”는 장정윤 교수. 특히 안무가로 성장해 나가야 될 젊은 무용인들의 참여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선배 무용인으로서 안타깝기만 하다.

“무용에 있어 안무란 국어에 있어 문장과도 같습니다. 문장의 잘잘못에 따라 좋은 글과 나쁜 글로 나뉘듯 동작의 어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 제자들에게 '춤추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닳도록 공부하라'고 조언해온 장정윤 교수는 그 자신도 작품에 있어서 만큼은 완벽주의를 추구한다. 이번 '우주나무'를 구상하면서 조사한 자료만 하더라도 그 양이 엄청나다는 그에게 철저한 텍스트 연구는 필수이다.

요즘 장정윤 교수는 방학도 잇은채 오는 9월 포항에서 열리는 전국무용제를 앞두고 작품 보완에 여념이 없다. 전국무용제 두 번째 출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던 그로서는 이번에는야말로 대상을 수상하겠다는 각오로 연습에 열심이다.



# 어린이가 주인공인 어린이 영상문화축제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상화**



“어린이는 미래의 영화 관객들입니다. 어린이가 영화제의 주인공이 되어 영화를 직접 만들고, 만든 영화를 함께 보며, 영화를 배워 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상화씨(44·부산예술대학 만화예술과 교수)는 8월 15일로 다가온 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어느 때 보다 분주하다.

PIFF 집행위원의 한사람으로 부산국제영화제 개최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김상화 위원장은 어린이 영화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몇몇 뜻 있는 영화인들과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를 조심스럽게 준비해 왔다. 부족한 예산으로 힘겹게 출발하지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젊기 때문에 집행위원

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는 그는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꾀를 낼 수 없다. 현재 부산독립영화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화 위원장은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일본 히로시마 국제애니메이션 대회, 캐나다 오타와 국제 애니메이션, 97 프랑스 앙시 국제 애니메이션 대회 등에 작품을 출품한 바 있어 어린이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영화인으로 꼽힌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50여개의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어린이들의 순수함, 열정을 배우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부산국제영화제의 신화를 다시 한 번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 ‘한 좌석 후원회’ 모집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상화 위원장은 바쁜 중 틈틈이 제 2회 영화제를 구상하고 있다. 어린이 영화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이 그를 움직이는 최고의 힘이다.



# 한여름 부산을 달구는 다양한 여름축제

한여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양문화도시 부산은 다양한 여름축제들이 펼쳐진다.

8월 1일 막을 올리는 부산의 대표적인 여름축제 '부산바다축제'를 시작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매직페스티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아시아 최고, 최대의 어린이 영상문화축제를 꿈꾸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가 8월 한달 부산을 뜨겁게 달군다.

## 부산바다축제

8월 1일(화)-8월 7일(월) 부산 주요 해수욕장



열정과 낭만이 넘치는 해양도시 부산의 대표적인 여름축제인 부산바다축제가 8월 1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1996년 제 1회 부산바다축제를 시작으로 올해로 11회를 맞은 부산바다축제는 '축제의 바다, 물결치는 세계도시'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까지 일주일간 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 등 부산의 주요 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 부산바다축제는 매년 다양한 행사와 수준높은 문화공연,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부산 시민 뿐 아니라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바다와 축제가 어우러진 휴양지로서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왔다.



올해는 8월 1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인기연예인 축하공연과 멋진 불꽃쇼가 어우러진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국내외 유명 무용단의 열정 넘치는 춤을 감상할 수 있는 부산국제해변무용제(4일~6일 광안리해수욕장),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부산이 낳은 국민가수 故 현인선생을 추모하는 제 2회 부산현

인가요제(5일~6일 송도해수욕장), 국내외 유명 록그룹이 참가하는 젊음의 축제 2006 부산국제록페스티벌(5일~6일 다대포해수욕장)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이밖에도 수상오토바이, 바나나보트, 모터보트, 카누, 카약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2006 해양스포츠 시민체험회(2일 광안리해수욕장)를 비롯 장애인 한바다축제(3일 광안리해수욕장), 해양래프팅대



회(4일 수영만요트경기장), 비치발리볼대회(6일 광안리해수욕장) 등 부산의 여름바다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 스포츠 행사도 펼쳐진다.

■ 주요행사

- 개막행사(1일 해운대)
- 부산비치게임페스티벌(2일 광안리)
- 송도바다축제(2일~4일 송도)
- 송정해변축제(3일~4일 송정)
- 해양레프팅대회(4일 수영만요트경기장)
- 제 2회 부산현인가요제(5일~6일 송도)
- 2006 부산국제록페스티벌(5일~6일 다대포, 2006 아시안뮤직마켓 6일~7일 민주공원)
- 핀수영대회 및 시민강습회(5일~6일 광안리)
- 2006 한국해양문학제(1일~2일 광안리)
- 2006 해양스포츠 시민체험회(2일 광안리)
- 장애인한바다축제(3일 광안리)
- 국제신문과 함께하는 2006 열린음악회(3일 광안리)
- 부산국제해변무용제(4일~6일 광안리, 7일~9일 시민회관)
- 전국윈드서핑대회(5일~6일 광안리)
- 제 7회 부산시장배 요트경기대회(6일 광안리)

■ 문의:(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888-3396)

## 2006 부산국제록페스티벌

8월 5일(토)-8월 7일(월) 다대포해수욕장



한여름밤 젊음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2006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8월 5일부터 사흘간 다대포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7회를 맞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바다, 젊음, 사랑'이란 주제로 국내외 유명 록그룹과 록매니아, 시민들이 참석하는 초대형 음악축제이다. 올해는 델리스파이스, 노브레인 등 우리나라 록그룹을 비롯 U.F.O(영국), 에드가이(독일) 등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5개국 14개

팀의 록아티스트가 참가한다.

이틀로 나뉘어 열리는 본공연 첫날인 5일에는 스트라이커스(한국), 트랜스픽션(한국), 스카쉬 오니언스(일본), 델리 스파이스(한국), K2 김성면&이현석 밴드(한국), U.F.O(영국)가, 이튿날인 6일에는 13 스텝스(한국), 다운헬(한국), 나티(한국), 독 홀리데이&아파치 트레인(일본), 노브레인(한국), 앤드류 W.K(미국), 에드가이(독일)가 출연한다. 첫날인 5일에는 공로상 수상자로 결정된 시나위와 서울전자음악단의 기념공연도 펼쳐진다.

올해는 행사기간동안 국내외 음악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2006 아시안 뮤직마켓을 부산민주공원에서 가진다.



## 2006 제 2회 부산국제해변무용제

8월 4일(금)-8월 9일(수) 광안리해수욕장 특설무대, 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의 여름바다를 수놓을 아름다운 춤의 향연 2006 부산국제해변무용제가 8월 4일부터 6일간 광안리해수욕장과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후 올해로 2회를 맞는 부산국제해변무용제는 '꿈의 바다로... 축제의 바다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와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6개국 37개 작품이 참가한다.

부산국제해변무용제는 8월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개국 14개 작품이 소개되는 해외 초청팀 공연과 국립발레단, 뒷마루무용단, 청주시립무용단 등 국내 초청무용단 13개팀 공연, 올해 처음 시도한 '자유참가작' 공모 입상팀 10개 팀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발리댄스, 스포츠댄스, B-boy 등 일반인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가 마련된다.

### ■ 4일(금) 오후 7:00 광안리 특설무대



- H.K Fantasy(안무/홍장호), 아하마드 이집트 발리댄스 공연단(안무/아하마드 압둘 아짐) -식전행사
- Koresh Dance Company(미국)
- Ronald K.Brown/Evidence Company(미국)
- Saito Eiji Dance Company(일본)      · Ballet Deutsche Am Rein(독일)
- Company ezdanza(캐나다)      · 강미리 홀 무용단 '樂'(안무/강미리)

- 김영희 재즈무용단 'STREET VOL.1'(안무/김영희)

### ■ 5일(토) 오후 8:00 광안리 특설무대



- Koresh Dance Company(미국)      · Company ezdanza(캐나다)
- 국립발레단 '해적 2막' 중 '침실장면'(안무/박인자)
- 이영희 무용단 'Let's go 수평선으로'(안무/이영희)
- Jodie Farrugia Dance Company(호주)      · Saito Eiji Dance Company(일본)
- Ballet Deutsche Am Rein(독일)
- 성은지 현대무용단 'Let it be...' (안무/성은지)

- 김영희 재즈무용단 'STREET VOL.1'(안무/김영희)

### ■ 6일(일) 오후 8:00 광안리 특설무대

- APE Dance Company(일본)      · Ronald K.Brown/Evidence Company(미국)
- 청주시립무용단 '화선무(花扇舞)'(안무/박재희)      · Jodie Farrugia Dance Company(호주)
- 부산발레연구회 '여름날의 추억들'(안무/주수광)      · Company ezdanza(캐나다)
- Koresh Dance Company(미국)      · 김희은 댄스컴퍼니 '전쟁과 평화'(안무/김희은)



■ 7일(월)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 APE Dance Company(일본)                      • Ballet Deutsche Am Rein(독일)
- 윤여숙 무용단 '運' (안무/윤여숙)              • Jodie Farrugia Dance Company(호주)
- Koresh Dance Company(미국)



■ 8일(화)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 Ballet Deutsche Am Rein(독일)                      • APE Dance Company(일본)
- 신은주 무용단 '몸의 소리' (안무/신은주)              • Jodie Farrugia Dance Company(호주)
- 이영찬 댄스 프로젝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안무/이영찬)

(※ 해외초청 참가팀은 무대마다 다른 작품을 선보입니다.)

■ 문의/부산국제해변무용제 사무국(642-0943, www.bibdf.com)

##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2006

8월 10일(목)-8월 15일(화)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매직페스티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2006'이 8월 10일부터 6일간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진다.

우리나라와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 13개국 40여명의 마술사들이 참가하는 이번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시원한 해운대 바다와 함께 세계적인 마술사들의 마술 향연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람의 상하체를 분리하거나 대형물체를 사라지게 하는 일루션 마술계의 세계 3대 거장 프란츠 하라리(미국)를 비롯 카드마술의 1인자 앙리 에번스(아르헨티나), 코믹마술의 대가 알도 콜롬비니(미국), 러시아 최고의 마술사 빅토르 보이트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세대 마술사 이은결, 최현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마술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8월 10일 오후 7시 앙리 에번스, 빅토르 보이트코, 겐지 미네무라(일본), 노병욱, 홍준표(한국)의 갈라공연을 시작으로 그 화려한 막을 여는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매일 저녁 펼쳐지는 전 세계 유명 매지션들의 테마별 갈라쇼와 국내외 마술사들이 참가, 총 상금 1만달러를 놓고 그 실력을 겨루는 매직경기대회, 국내외 유명 매지션의 마술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는 '매직카페&클로즈업', 환상과 감동이 어우러진 마술극 '마법삼총사', 영어와 마술이 만나 더욱 흥미로운 교육프로그램 '매직 잉글리쉬', 세계 최고 수준의 마술을 배울 수 있는 명인 마술강연과 초보자들을 위한 일반 마술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 문의: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사무국(746-2838, )



부산의 아이, 영화에 첨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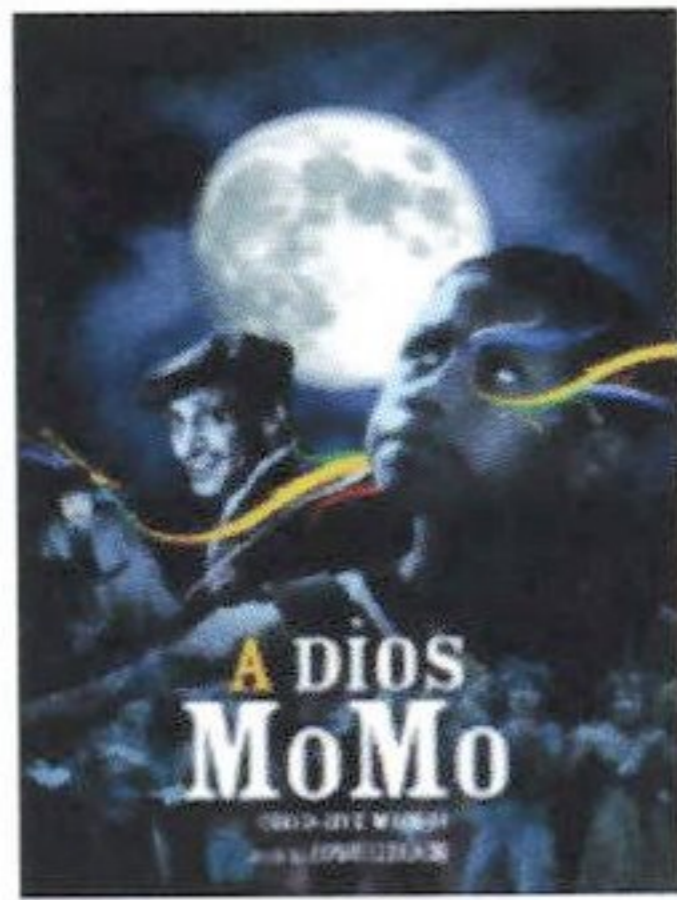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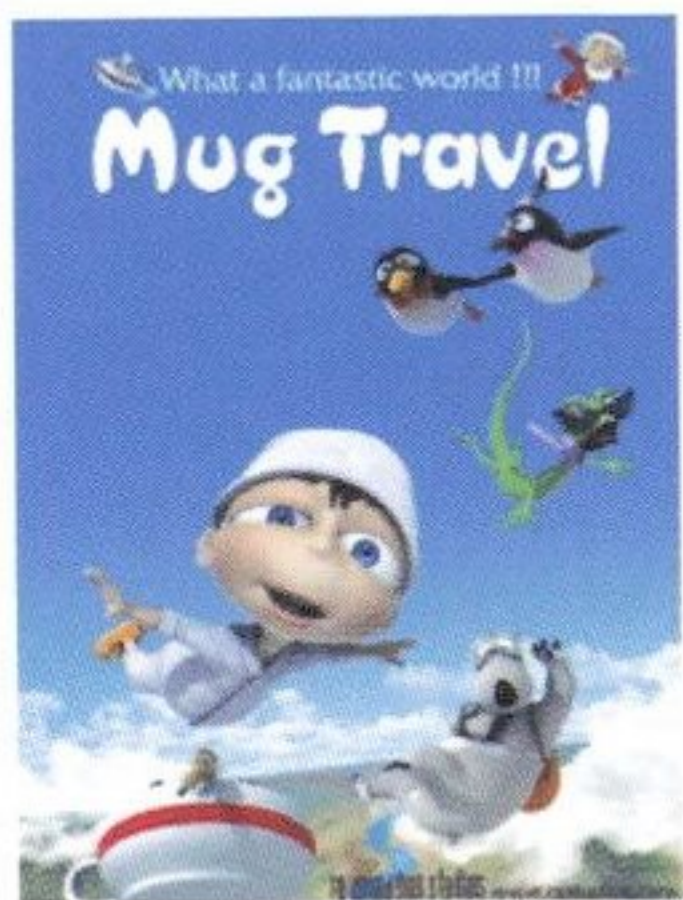
# 제 1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개막

8월 15일(화)-8월 19일(토) 해운대 메가박스, 부산MBC 아트홀, 그랜드 호텔 등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프레페스티발을 선보인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Busan International Kids' Film Festival : Biki) 제 1회 영화제가 8월 15일 막이 오른다.

어린이와 함께 꾸미는 아시아 최대, 최고의 어린이 영상문화축제가 될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슬로건은 '바다의 아이, 영화에 첨병!'. 오는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을 비롯 일본, 태국, 홍콩,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22개국 102편의 장편, 단편영화들이 비키 초청작(중·장편), 비키 초청작(단편), 동유럽애니메이션 특별전(체코, 헝가리), 네덜란드 특별전, 영화읽기, 가족시네마, 세계인기애니메이션, 레디액션(어린이가 만든 영화) 등 10개 섹션으로 나뉘어 펼쳐지고 개·폐막 파티와 테마전시, 애니콘서트, 어린이 영화 캠프 등 주제별 이벤트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제 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으로는 한국의 임아론 감독의 '머그잔 여행(Mug Travel)'과 어린이 제작영화 '유어 마이 프랜드!'가 선정되어 어린이 관객들을 맞는다. HD 컴퓨터 애니메이션 작품인 '머그잔 여행'은 다섯살 박이 외로운 꼬마 아이 베베가 노인에게서 선물 받은 펜던트에서 불러낸 신비한 머그잔을 타고 차원을 넘나드는 환상의 여행을 떠나게 된다. 폐막작은 문맹의 신문팔이 소년이 마술사를 만나 인생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신비로운 화면에서 펼쳐지는 우루과이 영화 '아디오스, 모모(A dios Momo)'가 상영된다.



- 개막작 '머그잔 여행' (Mug Travel/임아론 감독/한국/70분/HD/2006/월드 프리미어/전체 관람가/월드 프리미어)  
유어 바이 프랜드!(경산 동부초등학교/17분)
- 폐막작 아디오스, 모모(A dios Momo/레오나디 리카그니/우루과이/90분/아시아 프리미어/2005/7세 이상)

※어린이 영화 중 관객 투표에 의해 '인기상'으로 선정된 작품함께 상영

## ■ 비키 초청작-장편(중, 장편 극영화 7편의 월드프리미어)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진 어린이를 위한 영화들을 소개하는 섹션으로 다양한 어린이 영화를 만날 수 있다.

- 내 이름은 오이젠(마이클 스타이테/스위스)
- 늑대소녀와 서커스(후쿠가와 요시히로/일본)
- 조랑말 품(올리비에 린저/프랑스)
- 사랑이 필요해(시와폰 풍수완/태국/110분)
- 아기여우 헬렌(케이타 코우노/일본/109분)
- 왁자지껄 음악대(콘스탄틴 림프뤼스/미국/6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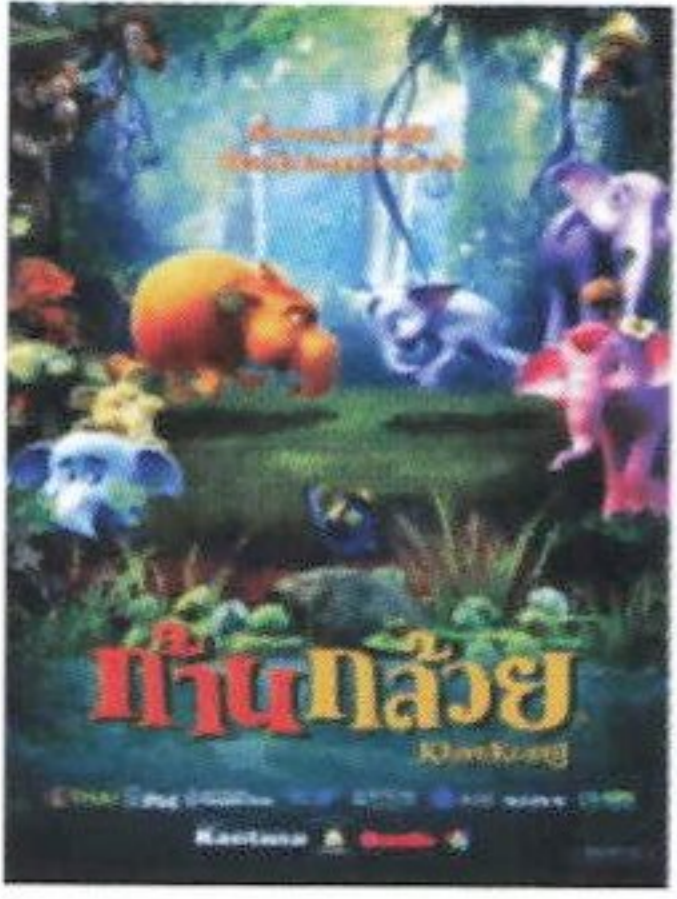
## ■ 비키 초청작-단편(24편)

단편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독창적인 작품들이 소개된다.

- 오토그래프북 • 빈센트 • 토끼 • 친구만들기 • 첫키스 • 상상 속의 친구 • 오프사이드 • 아빠가 필요해



- 햇살 한 주머니 • 뷰티풀 드림러 • 어린이 바이엘 상권 • 똥이 어디로 갔을까? • 마이티 맨 • 민진이의 숙제
- 1학년 1학기 • 소행성 325호 • 화초 • 빼꼼 • 하얀물개 • 오아시스 • 마법의 성 • 네발 자전거



■ 비키 초청작-애니메이션(중, 장편 4편)

- 맥덜, 동창회(샘슨 치우/홍콩/전체 관람가)
- 머핀가족 달타냥(이고르 베쉬타긴/스웨덴/12세 이상)
- 아기 코끼리 칸 쿠웨이(콤포 캄콤니/태국/12세 이상)
- 파이스토리(이경호, 존 폭스, 하워드 베이커/한국)

■ 동유럽 애니메이션 특별전(단편 26편) -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강국인 체코와 헝가리의 작품들을 소개한다.

- 이다의 동화 이야기 : 무당벌레 • 돌 연대기 • 허풍쟁이 고슴도치 • 나무 인간 피터 • 백합 골짜기
- 새양쥐의 모험 • 코고는 사자 레오 • 얼어붙은 레오 • 똥똥보 레오 • 레오의 사랑 • 오스카
- 오스카의 생일 • 수리수리마수리 • 바다는 왜 짜? • 세 자매와 반지 • 다마스커스의 세 꼬추 등

■ 네델란드 특별전(장편 3편, 단편 6편) - 유머와 아이디어가 넘치는 네델란드의 영화를 즐길 수 있다.

- 윙키의 성탄절(미샤 캄프/네델란드/12세 이상) • 호러 버스(피터 쿠퍼스/네델란드/12세 이상)
- 엄마는 못 말려(마틴 쿨호벤/네델란드/84분/애니/2005/12세 이상)
- 차의 향기/아버지와 딸/청소부 탐/수도승과 물고기(마이클 두덕 드 비트/네델란드/애니/12세 이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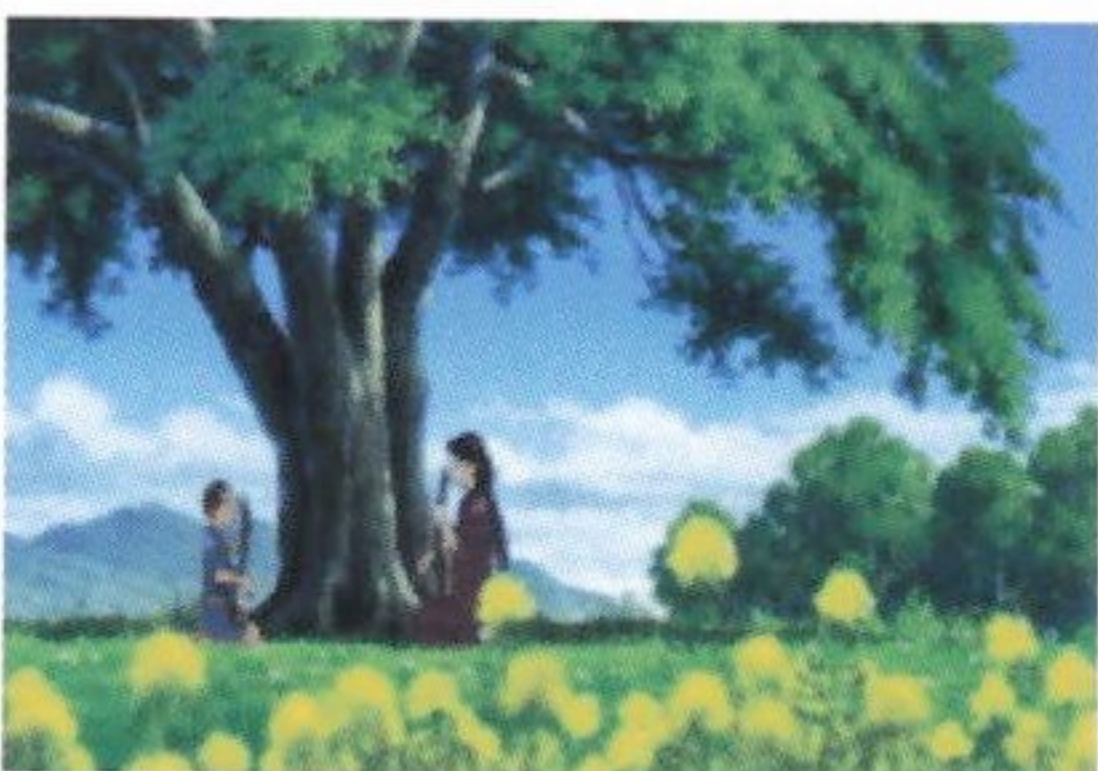
■ 영화읽기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과 대화하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 카치페(미로슬라브 야넥/체코) • 비오는 날 맑음(안민선/한국) • 마이티 맨(박수영, 박재영/한국)

■ 가족시네마 : 아이들의 초상 - 영화 속에 투영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생의 의미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작품소개.

- 샤오얀 이야기 • 올리버 트위스트 • 사랑해 말순씨 • 빠디 마르팡 • 비트 키즈 • 호로비츠를 위하여



■ 세계 인기애니메이션

- 블랙잭(데자끼 오사무/일본/12세 이상)
- 니타보(니시자와 아키오/일본/리용아시아영화제 최우수 애니메이션상 수상)
- 키리쿠 키리쿠(미셸 오슬로, 베네딕트 갈롭/프랑스/74분/2005/7세 이상)

■ 레디 액션(어린이가 만든 영화) - 학교나 단체 등에서 팀을 이뤄 어린이가 만든 영화를 소개.

- 유 아 마이 프랜드 • 가사동아리의 전설 • 블루 링 • 유브 갓 메일 • 마음의 보석 • 양초 도깨비
- 종달이네 가족의 어떤 일요일 • 썸마을의 미류나무 • 친구야, 난 네가 참 좋아! • 엄마도 그랬어요 등

■ 상영시간 : 15일 개막식 및 개막작, 19일 폐막식 및 폐막작 상영 17:00

16~18일 1회 10:30/2회 13:00/3회 16:00/4회 18:30(1일 4회 상영)

■ 입장료 : 개 • 폐막작 6,000원/일반 상영작 4,000원

■ 문의 :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조직위원회(www.biki.or.kr, 743-7652)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 2006 부산연주인시리즈 II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8월 18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금난새

청소년 음악회의 대명사로 불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여름방학 특별기획 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가 8월 18일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1996년부터 부산의 청소년들에게 지휘자 금난새의 재치 있는 해설로 클래식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들려준 '클래식은 내 친구'는 매 공연마다 전석 매진행진을 기록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다. 지난해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의 객석의자 교체 작업으로 공연을 할 수 없어 클래식은 내 친구를 만나지 못한 청소년들의 아쉬움이 컸다.

2년 만에 부산 청소년들과 만나는 지휘자 금난새는 틀을 깨는 독특한 발상과 재치 있는 언변, 신선한 아이디어로 청중에게 사랑받으며 민간 오케스트라 운용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이번 무대는 부산연주인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부산출신의 촉망받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이 협연자로 부산 청소년들과 만난다. 12세에 줄리아드 대학 학장 Stephen Clapp에 의해 발탁된 김수연은 줄리아드 예비학교 장학생으로 입학, 첫 해인 2003년 줄리아드 콩쿠르에서 우승하여 줄리아드 오케스트라와 뉴욕 링컨센터에서 데뷔하였다. 김수연은 2004년 미국 Mae & Fletch Fish Young Artist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연소 1등, 2005년 롱아일랜드 Friday Woodmere Young Artist 콩쿠르 우승했다. 2006년 3월 Washington Johansen 국제 콩쿠르에서 Finalist로 선정된 김수연은 워싱턴포스트로부터 '나이답지 않은 음악의 성숙함'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김수연은 이번 무대에서 독주자의 눈부신 기교를 요하는 사라사테 '카르멘 환타지 작품 25'을 들려준다. 김수연의 독주에 이어 2부에서는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으로 청소년들과 만난다. 1874년에 작곡된 '전람회의 그림'은 무소르그스키의 친구이자 건축가 겸 화가인 하르트만의 유작전시회에 전시된 설계도, 스케치, 디자인 등에서 영감을 받아 쓴 곡이다. 원작은 피아노곡으로 되어있지만,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관현악곡으로 편곡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1922년 지휘자 쿠세비츠키의 의뢰로 라벨이 편곡한 곡이 특히 유명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라벨의 편곡작품을 들려준다.



김수연

■ 입장료 :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여름특선, 아주 특별한 국악여행  
**팔빙수 같은 시원한 한밤의 음악회**  
 8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05년 여름 시원한 음악선물을 선사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오는 8월 23일 새로운 레퍼토리로 부산의 음악애호가들과 아주 특별한 음악여행을 떠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박호성의 지휘로 우리음악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보일 이번 연주회는 늘 새롭고 신선한 음악을 선보이는 국악관현악단이 '여름특선, 아주 특별한 국악여행'을 테마로 다양하고 풍성한 여름 무대를 꾸민다.

특히 이번 무대는 국악관현악단 연주에서는 좀처럼 시도하기 어려운 새로운 장르의 만남이 눈길을 끈다. 최초로 시도되는 환상의 매직쇼, 국악관현악과 화제의 영화 '왕의 남자' 대역인 권원태와 함께 하는 '남사당 줄타기', 구수하고 호소력 짙은 장사익의 국악가요와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가수 김수희의 무대가 마련된다.

'여름특선, 아주 특별한 국악여행' 첫 무대는 촉망받는 부산의 젊은 작곡가 백규진의 창작곡 힘찬 창작관현악 '화랑'을 시작으로 이경섭곡 국악관현악 '거울나라'와 부산 출신 개그맨 이영재의 개그마술, 왕의 남자 '남사당 줄타기' 명인 권원태와 국악관현악과의 만남이 이어진다. 우리나라 영화사를 다시 쓴 화제의 영화 왕의 남자의 줄타기 대역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권원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이수자로 현재 안성시립남사당 배우단이 풍물단 상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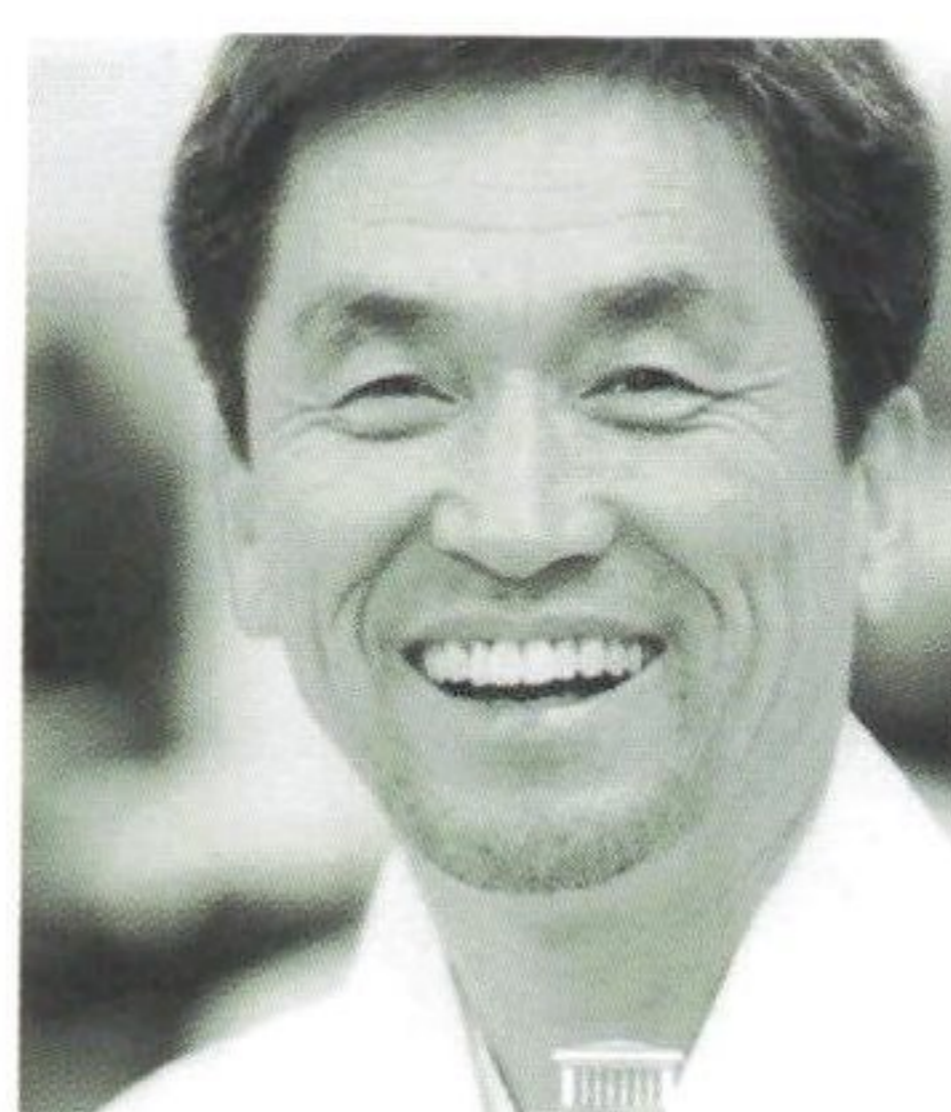
2부 무대는 흥겨운 가요와 국악관현악단과의 만남으로 구성된다. 국악애호가들에게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리꾼 장사익과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중의 마음을 달래준 가수 김수희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과 호흡을 맞춘다. 태평소 연주로 이름을 날리며 전주대사습놀이 장원, KBS 국악대상 대통령상 등을 수상했던 장사익은 1995년 46세의 나이에 뒤늦게 1집 음반 '하늘 가는 길'을 발표, 진솔한 삶을 담은 그만의 소리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영재



권원태



장사익



김수희

■ 입장료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R석과 S석에 한해 1인 4매 30% 할인, 30명 이상 단체 R석과 S석에 한해 20% 할인, 단 정기회원 할인과 단체할인은 중복 될 수 없음)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 2006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8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서정숙



김현숙



이화성

여름 더위를 씻어주는 해학적인 무대로 사랑을 받은 여름마당춤관 '男 콩쥐 vs 팔쥐'에 이어 부산시립무용단이 8월 25일 특별공연 '2006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으로 부산의 여름을 한층 빛내는 열정적인 창작춤 무대를 마련한다.

올해는 서정숙(총무), 김현숙(부수석), 이화성 단원이 정기공연 무대에서 선보이지 못한 개성넘치는 자신만의 춤 언어로 참신한 춤 세계를 펼쳐낸다.

첫 무대를 여는 김현숙의 'love<sup>2</sup>'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무대이다. '일부일처제'가 보통 사람들의 감정생활의 실상에 비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인지에 대한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 김현숙은 'love<sup>2</sup>'을 통해 '일처다부의 사랑과 비독점적인 다자연애'를 통해서 결혼제도 전체에 대해 시비를 묻는다. 미칠 것 같은 외로움 때문에 사랑의 정열을 다시 불러 일으킬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런 인간의 모습...,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춤언어로 표현한다.

부산시립무용단 수석 단원 이성원과 (전)홍신자 무용단 웃는돌 단원 김승태가 'love<sup>2</sup>' 무용수로 다자간의 사랑을 심리극으로 표현해낸다. 특히 'love<sup>2</sup>'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신문범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이세호가 연주를 맡아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화성의 '가방이 무거운 여자'는 채우려는 가방 속에 늘어만 가는 가벼움을 춤언어로 표현한 작품이다.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김기원과 부산시립극단 단원 염지선, 안무자 자신이 무용수로 출연한다.

서정숙의 '장승과 까치'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장승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든 규범들을 까치에 비유, 현대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춤언어로 담아낸 작품으로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 김병주를 비롯 정진희, 강모세, 허태성, 류권홍, 최의욱, 김윤희, 서정숙이 출연한다.

■ 입장료 : 균일 5,000원

■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2006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립합창단 합동음악회

## 한 여름밤 꿈의 남성합창

8월 28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8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김해문화의 전당 대극장

8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이상렬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문화 교류를 위해 2001년부터 부산과 울산, 경남의 3개 시도립 합창단들이 연합합창을 구성, 그윽한 남성양상블을 들려주는 '한 여름밤 꿈의 남성합창' 2006년 무대가 8월 2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공연을 시작으로 김해, 울산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함께 연주한 창원시립합창단을 대신해 김해시립합창단이 경남을 대표,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과 호흡을 맞춘다. 김해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이상렬이 지휘하고 부산플룻양상블, 김해시립합창단 여성단원이 특별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중후하고 섬세한 남성합창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합창곡들로 색다른 모습을 선보인다.

이번 연주회의 지휘를 맡은 이상렬 지휘자는 대전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김해시립합창단, 한울림합창단 상임지휘자, 인제대학교 음악과 겸임교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성합창에 강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이상렬 지휘자는 남성합창이 갖는 웅장함과 중후한 매력이 넘치는 합창곡들을 선곡, 부산, 경남 음악 애호가들과 만날 예정이다.

오 주여 당신의 긍휼 안에, 아베마리아, 주님 예수 오심을 등 종교음악을 비롯 한국가곡, 오페라 속의 합창곡 등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곡들로 한여름 무더위를 마감할 수 있는 자리이다.

· 특별출연/김해시립합창단 여성단원, 부산플룻양상블

프로그램

구노/아베마리아, 흑인영가/하늘마차 타라, 김연준/청산에 살리라

구노/Choeurs des soldats(병사들의 합창) 등 수곡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



##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여름방학 특집 특별 기획 공연

###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18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금난새

김수연

틀을 깨는 독특한 발상과 재치 있는 언변으로 청중에게 가장 사랑 받고 있는 지휘자 금난새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함께 마련하는 '금난새와 함께 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12세에 줄리아드 Stephen Clapp 학장에게 발탁되어 도미, 천부적인 음악성을 인정 받은 김수연이 부산연주인시리즈 두번째 주인공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다.

#### 프로그램

사라사테/카르멘 환타지 작품 25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라벨 편)

- 지휘 및 해설/금난새
- 협연/김수연(바이올린)

**입장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선정작품

### 남산놀이마당 영남의 소리, 몸짓, 풍물 그 세 번째 이야기 파방굿

20일 일요일 오후 6:00

영남의 소리, 몸짓, 풍물을 전승, 계승하여 전통적인 놀이판의 흥과 신명을 전해주고 있는 남산놀이마당의 영남의 소리, 몸짓, 풍물 그 세 번째 이야기 '파방굿'.

파방굿은 1900년대 초에 부산, 경남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을 벌여왔던 전문예인집단인 '숫대쟁이' 패의 신명과 흥이 모두 녹아났던 굿의 제일 마지막을 장식했었던 부분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제 11-가호인 진주, 삼천포 12차 농악에서 전승되었다.

· 연출/김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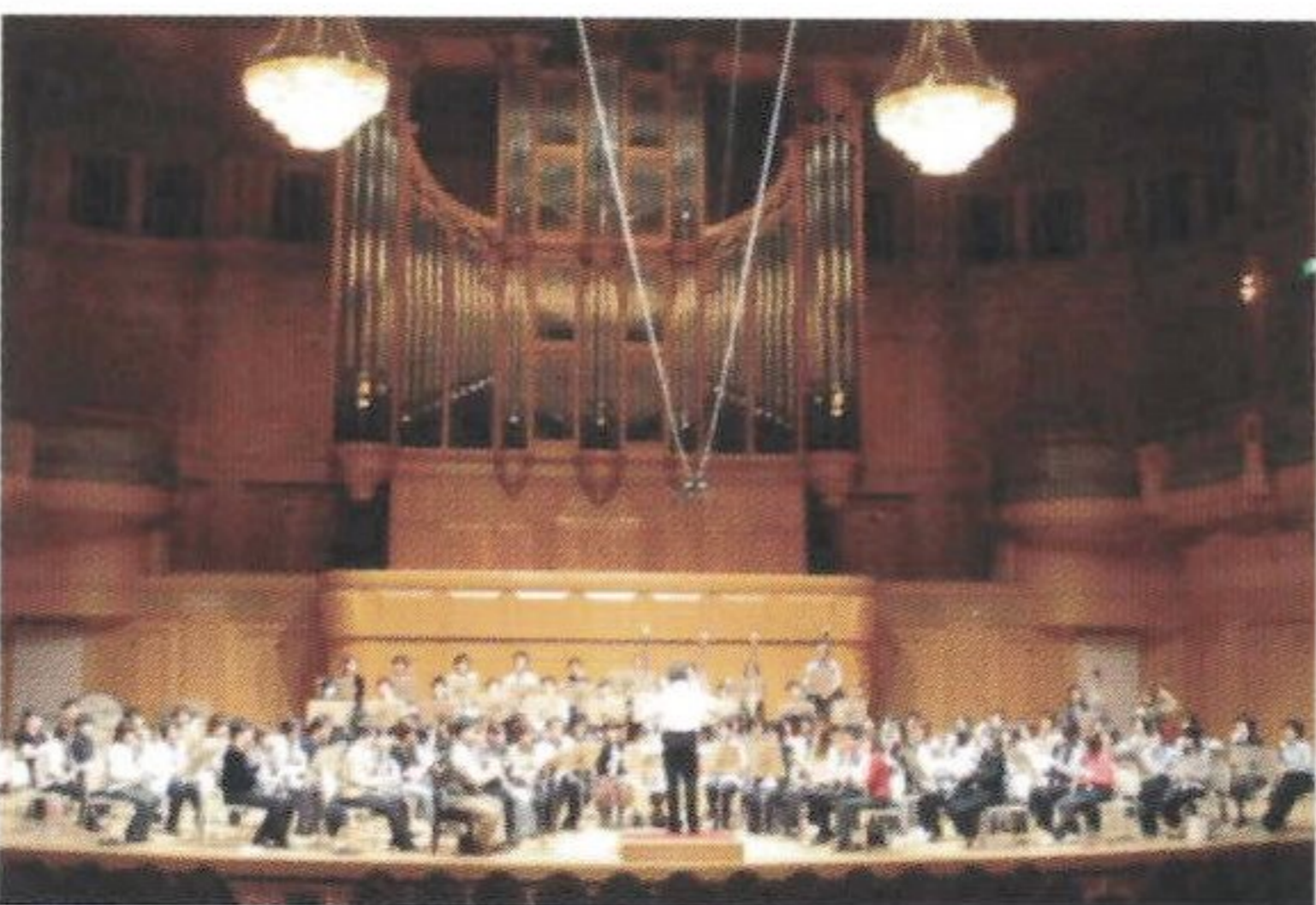
**입장료** 일반 12,000원 · 학생 8,000원

**문의** 남산놀이마당(516-4434)

방학특집 2006 부산클라리넷콰이어

### 청소년을 위한 클라리넷 선율의 세계2

21일 월요일 오후 7:30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부산 클라리넷 콰이어에서 마련하는 두 번째 무대.

교향곡에서부터 우리 가곡, 오페라 아리아, 스페인 민요 등 우리 귀에 익은 곡을 아름다운 클라리넷으로 연주, 청소년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제 5번 '운명' 다단조작품 67  
비발디/ '사계' 중 '가을'

안성현/강변살자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Caro nome'  
라라/그라나다 등 수곡

- 지휘/정우영(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음악감독 겸 지휘자)
- 특별출연/소프라노 고예정, 테너 전병호

**입장료** 균일 7,000원

**문의** 부산 클라리넷 콰이어(다음카페 부산 클라리넷콰이어, 011-583-2810, 011-574-3687)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여름특선, 아주 특별한 국악여행 팔빙수 같은 시원한 음악회

23일 수요일 오후 7:30



흥겨운 우리 음악으로 즐기는 시원한 여름 국악음악여행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여름특선, 아주 특별한 국악여행'.

이번 무대는 왕의 남자 감우성, 이준기의 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계줄타기 우승자 권원태와 함께 하는 '남사당 줄타기'와 마술 개그와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구수하고 호소력 짙은 장사익의 국악가요와 애모, 남행 열차 등 수 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가수 김수희가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 프로그램

백규진/힘찬 창작관현악 '화랑'

이경섭/개그맨 이영재의 마술 개그와 국악관현악 '거울나라'

김현혜/왕의 남자 '남사당 줄타기'와 국악관현악

장사익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황혼길, 꿈꾸는 세상 외

김수희의 대중가요와 국악관현악/애모, 남행 열차, 광야

- 지휘/박호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이영재(마술개그), 권원태(어름산이), 장사익(소리꾼), 김수희(가수)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R석과 S석에 한해 1인 4매 30% 할인, 30인 이상 단체 R석과 S석에 한해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콘서트콰이어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24일-26일 목-금요일 오후 7:00  
토요일 오후 2:00, 5:00



1992년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출발, '아말과 크리스마스의 밤' '불우이웃돕기 음악회' '사랑 나눔 음악회'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운동' 등 자선공연을 펼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음악을 전해온 부산콘서트콰이어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하는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 24일 목요일 오후 7:00

프로그램

*Largo, 그대 창밖에서, Die Forelle, Ich liebe dich* 등 수곡

· 출연/장은미, 황혜진, 김나영, 이성희, 김형욱, 서관수, 최현욱, 박현욱

· 특별출연/바이올린 박찬양

· 해설/송필석

■ 25일 금요일 오후 7:00

프로그램

*Halt, 뱃노래, 동심초, Panis Angelicus, Una furtiva lagrima* 등 수곡

· 출연/권순유, 김새미, 이정희, 구명금, 최춘식, 한동훈, 조승환, 강은태, 리코

더합주단

· 특별출연/피아노 김현주, 바이올린 김희정

· 해설/송필석

■ 26일 토요일 오후 2:00, 5:00

프로그램

사냥꾼의 합창, 신고산타령,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등 수곡

· 합창/부산콘서트콰이어

· 특별출연/최춘식, 서관수, 장은미, 오카리나 음악사랑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남성성악앙상블 <4+1> 제 7회 정기연주회

## 사랑, 우정 그리고 열정

27일 일요일 오후 4:00, 7:00

5명의 남성성악가들로 구성된 <4+1>이 재미있고 명쾌한 해설로 진행하는 제 7회 정기 연주회 '사랑, 우정 그리고 열정'

이태리 유학을 마친 후 귀국한 세 명의 테너 서명보, 김동국, 오동주와 한 명의 베이스 권영준이 서로 뜻을 모아 2003년 <3+1>으로 출발한 <4+1>은 2005년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테너 김지호, 피아니스트 최혜련과 음악평론가 윤성원(단장)을 영입, 이름을 <4+1>로 바꾸고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4+1>은 감미로운 음색으로 가슴깊이 파고드는 서정을 자유롭게 변화시키고, 품위 있으면서도 강렬한 울림과 흐름으로 객석을 사로잡고 있다.

프로그램

*E.A. 펜스타드/우정의 노래*



한국민요/거문고 뱃노래

조두남/뱃노래

S.가스탈톤/금지된 노래

E.쿠르티스/나를 잊지말아요

뮤지컬메들리/뮤지컬 '와일드캐츠' 중 '자! 나를 보게', 뮤지컬 '캐츠' 중 '메모리' 등 수곡

· 출연/테너 서명보, 테너 김동국, 테너 김지호, 테너 오동주, 베이스 권영준

· 피아노/최혜련

· 해설/음악평론가 윤성원

입장료 균일 6,000원

문의 서명보(010-2400-3994)

오동주(017-556-5058)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립 남성 합창단 합동음악회

## 한여름밤 꿈의 남성합창

28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과 울산, 경남의 문화 교류를 위해 2001년부터 펼쳐온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립 남성 합창단 '한 여름밤 꿈의 남성합창' 2006년 무대.

올해는 부산과 울산, 김해시립합창단 남성단원들이 김해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이상렬의 지휘로 힘차고 때로는 섬세한 남성합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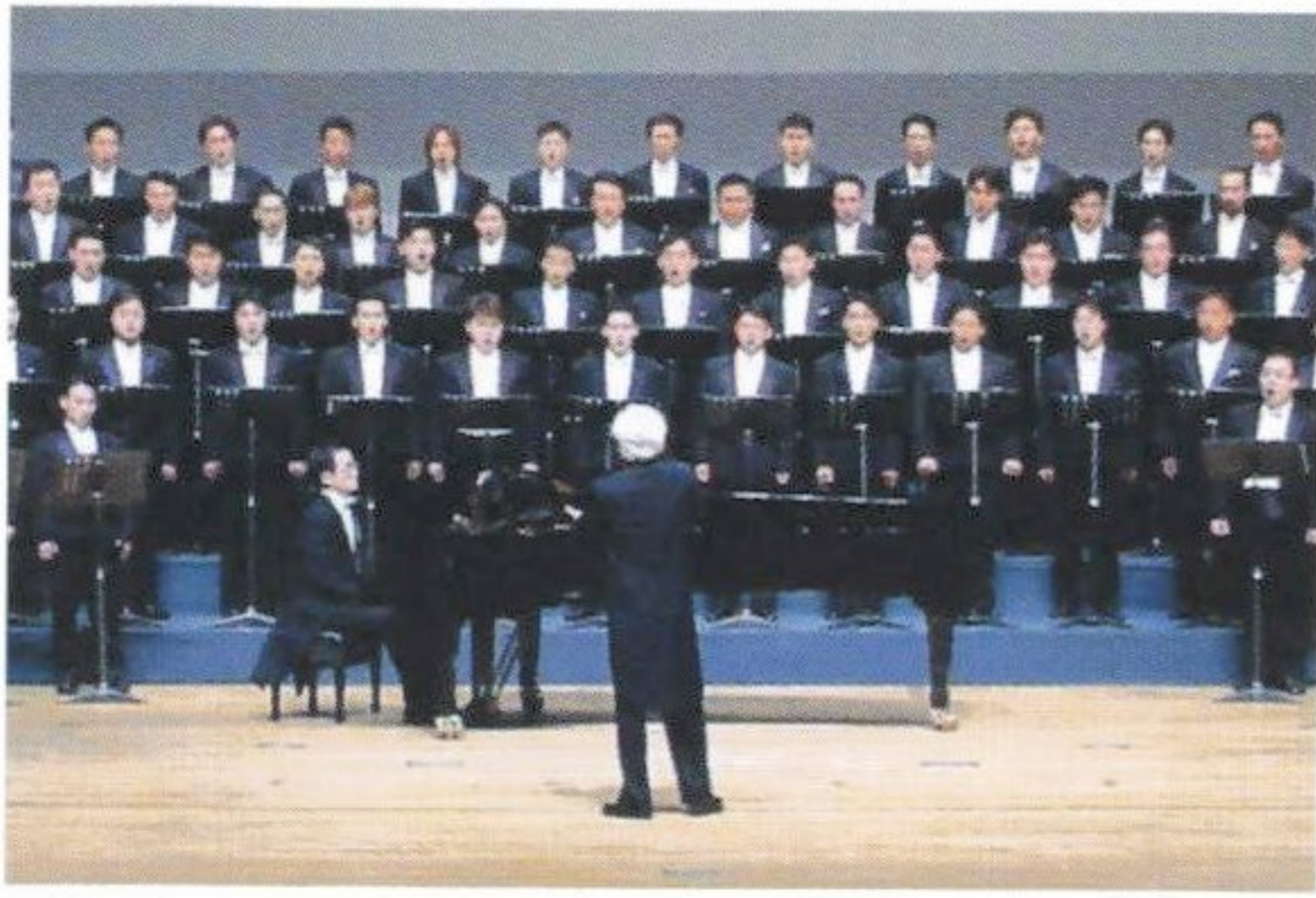
FORAD  
종합광고대행사

# 통합 마케팅 시대의 뉴 브레인! 포애드

광고기획, TV/RADIO 광고제작 및 대행, 신문/전단/카타록 인쇄광고 제작, 기업CIP/BIP,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광고 마케팅 기획

[주]포애드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2층  
TEL: 051) 627-2563(대) FAX: 051) 627-2560





매력을 전해준다.

**프로그램**

구노/아베마리아  
 흑인영가/하늘마차 타라  
 김성태/이별의 노래  
 김연준/청산에 살리라  
 구노/Choeurs des soldats(병사들의 합창) 등 수곡

· 지휘/이상렬(김해시립합창단 지휘자)  
 · 특별출연/김해시립합창단 여성합창단  
 부산플룻앙상블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2006 패티김부산콘서트  
 -객석으로**

9월 2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와 매력적인 목소리로 47년 동안 한국 가요계의 대표가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패티김 부산공연.

패티김은 대중가수들에게는 꿈의 무대였던 세종문화회관 무대와 한국대중음악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카네기홀 단독 공연을 갖기도 했다.

**입장료** VIP석 88,000원 · R석 77,000원  
 S석 66,000원 · A석 5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JN미디어 홀딩스(02-3444-2612)

**중극장**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6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25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김현숙, 이화성, 서정숙 단원이 펼치는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정기공연 무대에서는 선보이지 못한 자신의 춤 언어로 참신한 춤 세계를 펼쳐낸다.

**프로그램**

■ 김현숙 'Love²' (안무/김현숙)  
 · 출연/이성원, 김승태  
 · 특별연주/신문범(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이세호(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 이화성의 '가방이 무거운 여자' (안무/이화성)  
 · 출연/김기원, 염지선(시립극단 단원), 이화성

■ 서정숙의 '장승과 까치' (안무/서정숙)  
 · 출연/김병주, 정진희, 강모세, 허태성, 류권홍, 최의옥, 김윤호, 서정숙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WBS 부산원음방송 개국 5주년 기념 음악회

**모두가 은혜입니다**

27일 일요일 오후 3:00

부산원음방송의 개국 5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음악회로 부산에서 폭 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인들이 출연, 성악, 중창, 포크가요, 정통가요, 국악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조두남/백노래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레온까발로/아침의 노래  
 이수인/내 맘의 강물  
 최영철/동백섬 등 수곡

· 출연/소프라노 임성영, 바리톤 안지환, 테너 허동권, 청공남성중창단, 소리새, 김용임, 소리꾼 박성희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원음방송(244-1048)

**피아니스트 김정숙 귀국 독주회**

28일 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로 유학, 글린카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한 김정숙의 귀국 피아노 독주회.

부산음협콩쿨에서 1등으로 입상, 그 실력을 인정받은 김정숙은 유학중 오스트리아 비엔나 21C Internation Association Art and Education에서 3등으로 입상했다.

**프로그램**

스카를라티/소나타  
 프로코피에프/로미오와 줄리엣 작품 75  
 리스트/메피스트 왈츠 등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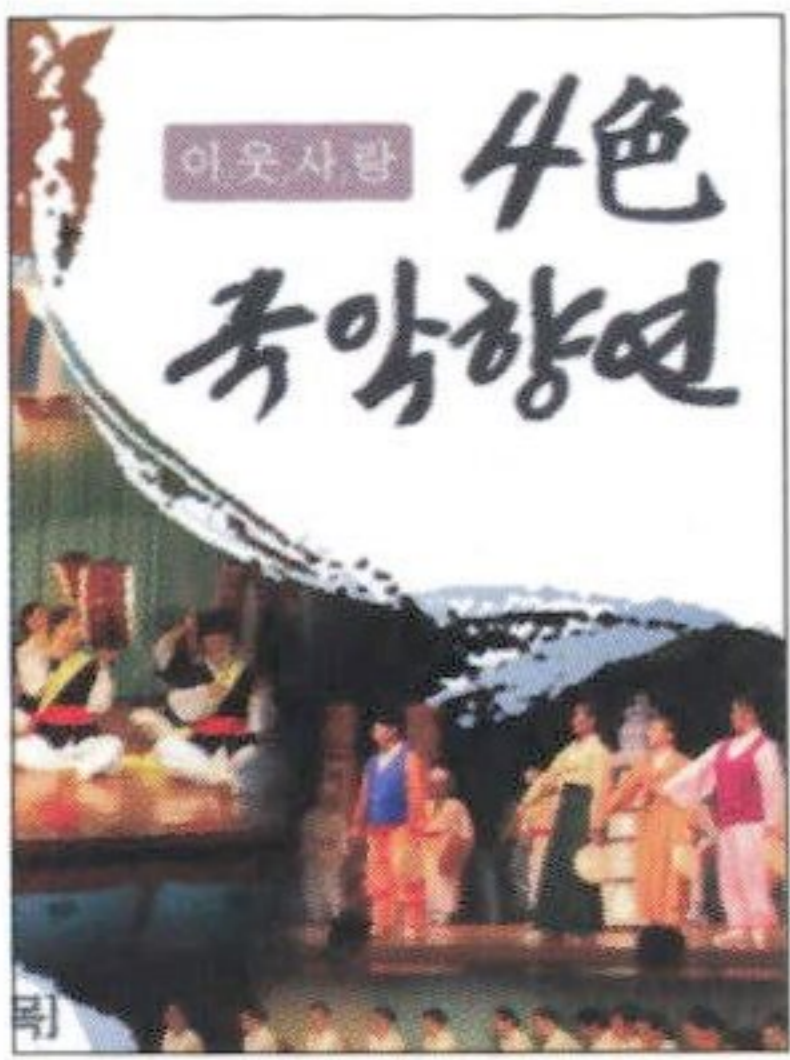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2006 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 국악공연

**이웃사랑 4色 국악향연**

31일 목요일 오후 7:30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이 부산시민을 위해 마련하는 '이웃사랑 4色 국악향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개최해 온 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은 여성, 주부들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예술봉사단으로서 연 50회가 넘는 공연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프로그램**

가야금 산조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  
가야금 병창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풍물/삼도사물놀이  
민요판소리/흥부네 별난 박에선 뭐가 나와  
( '흥부전' 중 '흥부 박타는 대목' 창작극)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여성문화회관(320-8341~4)

**예원회 네번째 피아노 이야기  
가족과 함께 하는  
이지 클래식**

9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대학교 안원희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예원회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피아노 소품으로 레퍼토리를 구성, 편안한 음악회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쇼팽/왈츠 중 '강아지 왈츠'  
생상/동물의 사육제

**헨델/대장간의 합창 등 수곡**

· 출연/신성희, 조경희, 최옥경, 박수미, 김인재, 조선경, 정꽃님

**입장료** 균일 30,000원  
**문의** 김인재(010-3626-0036)

**소 크 장**

**The Great Ensemble of KNUA**

22일 화요일 오후 7:30

한국예술종합학교 동문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차세대 연주자 피아니스트 윤유진,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 비올리스트 배은진, 첼리스트 김원정 등으로 구성된 크누아 피아노 퀸텟의 연주회.

이번 연주회에서는 각자의 기력을 선보일 솔로 연주와 함께 슈만 피아노 5중주 작품 44를 들려준다.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윤유진(010-3108-0327)

문향예술연구회 제 7회 정기연주회- 모짜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

**썸머 모짜르트 페스티벌**

26일 토요일 오후 7:00

2002년 창단 이후 매년 어린이 예술축제와 세미나, 학술제 등을 주관해 온 문향예술연구회의 7회 정기 연주회.

이번 정기연주회는 모짜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귀에 익은 피아노 듀오곡과 협주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Four Hands Sonata K.19d C Major, Four Hands Sonata K.358 B-flat Major, Four Hands Sonata K.381 D Major, Two Pianos Sonata K.448 D Major 등

· 출연/권미정-노해경, 황해정-박수경, 김은희-김선경, 심세현-박옥희, 백은영-문희경, 박수정-김수진, 김지연-하은아, 신영희-이진미, 김경미-육희정, 이은경-최하영

**입장료** 초대  
**문의** 박수경(017-540-5558)

**부산콘서트 콰이어 '내일을 위한 음악회'**

27일 일요일 오후 2:00, 5:00

부산콘서트콰이어와 부산의 청소년 유망주들이 함께 마련하는 내일을 위한 음악회.

**프로그램**

O sole mio, Santa Lucia, Torna a Suriento 등 수곡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클래식아트 매니저(817-8002)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야마하 공식 A/S점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 음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국도아트홀(247-4242)
- 금정문화회관(519-565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놀이아트홀(631-0660)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민족굿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30-5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소극장 너른(622-3572)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울숙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학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 부산홀(620-7100)
- MBC아트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21-8518)

(※ 가나다순)

음악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 2일 신나는 퓨전국악과의 한바탕 놀이



2004년 창단 이후 남북 어린이돕기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대중에게 다가가는 무대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국악 퓨전실내악단 여운 앙상블 무대.

· 지휘, 해설/홍희철

■ 9일 목관악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산 우드윈드앙상블 연주회

■ 16일 색소폰, 나도 할 수 있으면 좋겠네!

-잼 색소폰앙상블 연주회

■ 23일 <4+1> 앙상블로 즐기는 노래세상

테너 김지호, 김동국, 서명보, 오동주와 베이스 권영준이 들려주는 성악 앙상블의 무대.

■ 30일 나의 조국, 나의 연인에게

-김지민 피아노 연주회 '쇼팽음악의 세계'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가람 프리미엄 태교&어머니를 위한 굿모닝 콘서트

매주 수요일 오전 11:00  
가람아트홀

모차르트, 바흐, 브람스의 작품 중 엄선된 연주곡을 들려주는 가람 프리미엄 태교&어머니를 위한 굿모닝 콘서트.

입장료 월 수강료 40,000원

문의 가람아트홀(626-6664)

모차르트, 슈만 그리고 쇼스타코비치  
김성숙, 형희전 듀오콘서트

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음악대학원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성숙, 형희전이 마련하는 듀오콘서트. 올해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

주년, 슈만 서거 150주년을 맞아 세 작곡가의 작품을 들려준다.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프로인트(521-5729)

11시 브런치 콘서트

10일 목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클라리넷 5중주 앙상블 클라시아가 들려주는 브런치 콘서트.

· 해설/홍성택(음악감독)

· 협연/권나래(가야금)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N.G.N 케이블TV방송(506-6305)

신세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 22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0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신세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청소년 음악회.

· 지휘/김현중

· 연주/황의숙, 김정순, 심소희, 김채연(이상 소프라노), 고의봉, 황종덕, 임충진(이상 테너), 정우영(클라리넷), 손명균(트럼펫)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김현중(010-2245-5575)

팝스&퍼커스 제 4회 정기연주회  
타악기와 떠나는 음악여행

1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시민회관 대극장

클래식과 영화음악, 팝 등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연주곡을 타악기만의 독특한 리듬과 음색으로 감상할 수 있는 청소년음악회.

· 특별출연/김희주(마림바), 영 팝스 앤 퍼커스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전영수(010-7309-8069)

### 슈마 트리오 리사이틀

16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라틴어로 '최고'라는 뜻을 지닌, 부산예고 출신의 젊은 연주자 피아니스트 김란, 바이올리니스트 고아라, 첼리스트 최지현으로 구성된 슈마트리오 연주회.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프로인트(521-5729)

### 한 여름밤의 클래식

17일 목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콰르텟 뮤즈 리더로 활동중인 임병원 경성대학교 교수의 재미나는 해설로 진행되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 해설/임병원(경성대학교 교수)

· 출연/콰르텟 뮤즈(임병원, 황지원, 최영화,



김판수, 금정여성합창단(지휘/정거화), 우원식(테너), 박현정(피아노), 이말라(시낭송)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문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 바리톤 최상재 독창회

1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고신대학교, 이태리 Adria Antonio Buzzola 국립음악원, Teramo 국립아카데미 등에서 음악수업하고 이태리에서 활동해 온 바리톤 최상재 독창회.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청소년과 온 가족이 오지 여행가 도용복과 함께하는 영상으로 즐기는 뮤지컬

### 노틀담의 곰추

17일 목요일 오후 3:00, 7:00  
글로벌아트홀

오지여행가 도용복의 재미나는 해설로 즐기는 뮤지컬 '노틀담의 곰추' 영상 상영회.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2006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특별공연 애니콘서트 두비둥 덕이둥

18일 금요일 오후 5:00, 19일  
토요일 오후 2:00, 5:00 MBC 아트홀

창작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면서 성우들의 더빙과정과 국악기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국악콘서트의 만남.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조직위원회  
(743-7652, www.biki.or.kr)

### 카로스 타악기앙상블과 함께하는 해설음악회

18일 금요일 오후 3: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마림바, 팀파니, 실로폰 등 선율이 있는 건반 타악기로 연주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 음악감독/이영완 · 지휘/이일구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여름가족음악회 특집

### 오페라 '봄봄' 과 예타래 공연

18일(금)-21일(월) 오후 3:00,  
7:30(19일 토요일 오전 11:00  
공연 추가)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남포동  
자갈치 중앙 아치탑 앞  
각종 공연 예매처  
Tel: 245-3843

### 문우당서점의 특별한 혜택!

문우당서점 회원카드로 문우당과 CGV(영화)에서 사용!  
도서구입시 5%적립 CGV 10%적립 및 특정요일 할인

가마골소극장 할인! 문우당 영수증제시로 수요일은 문우당의 날로 50%할인 화·목·금요일 20%할인(일부대관공연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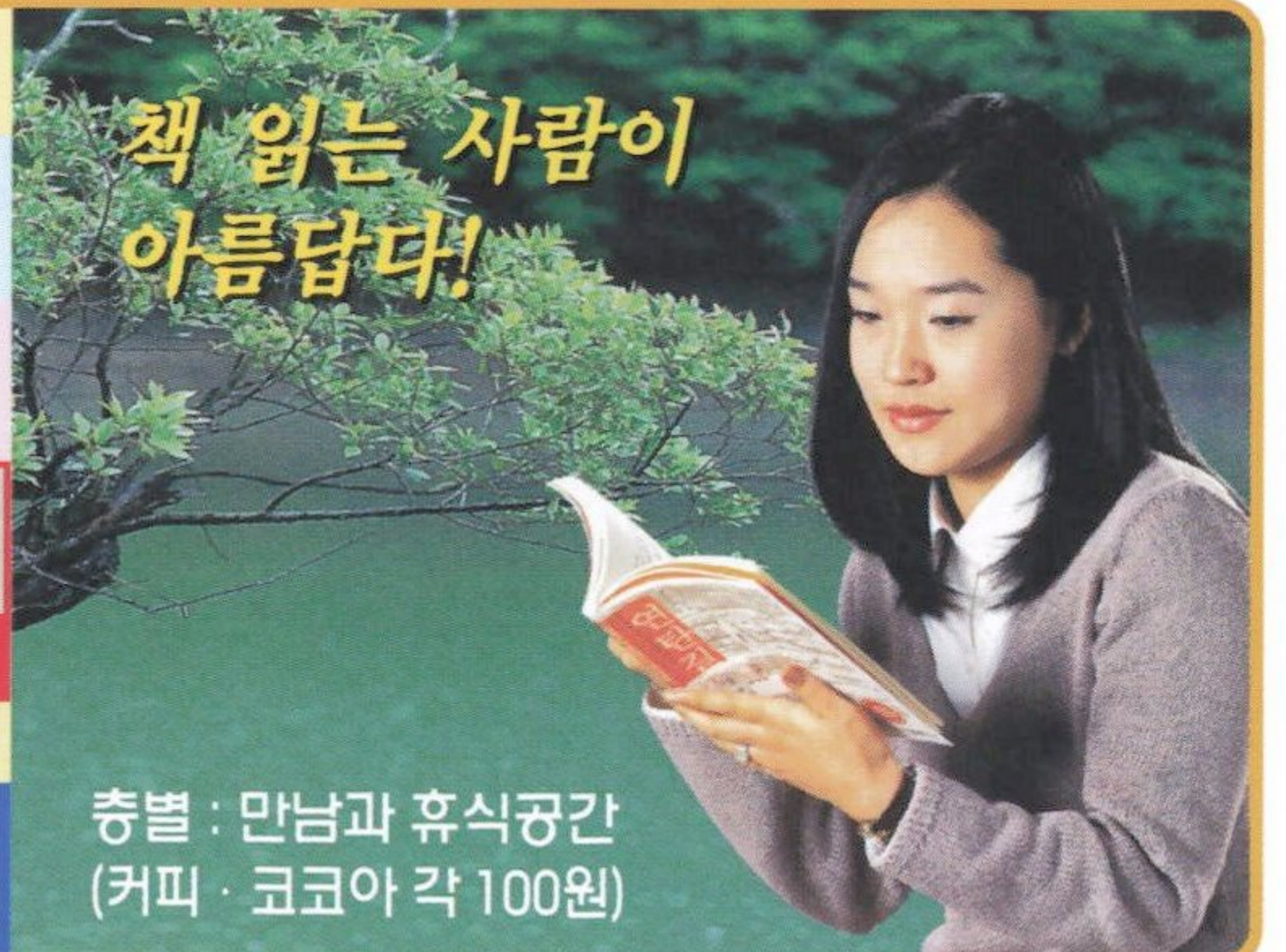
문우당창립 51주년 기념 1년간 책구매시마다 사은품 증정  
부산교통수첩(버스노선 외), 세계명언집(수첩형)

세계최초제작 > 국제화 입체세계지도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광안리 미월드 자유이용권 할인매장

책과 지도의 백화점  
전국최고의 종합지도와 지구본 대형매장(대형코팅 전문)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층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 · 코코아 각 100원)



김유정의 대표작 '봄봄'을 각색, 우리의 전통 해학을 오페라로 즐기는 가족오페라와 1998년 창단 이후 크로스오버 무대를 통해 우리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온 퓨전시나위 예타래의 흥겨운 무대가 펼쳐진다.

- 지휘/박종휘 · 연출/안호원
- 오페라 출연/이윤정, 박연경, 윤현숙, 김화정, 박찬, 양승엽, 고영호, 고봉수 외
- 퓨전시나위 예타래/허인대, 정세윤, 조익래, 이갑석, 류성식, 김상룡, 최지환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장은익(242-5231)

## 피아니스트 현미경 독주회

1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영국 왕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학사, 석사과정을 수석졸업한 피아니스트 현미경 독주회.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 청소년을 위한 방학숙제 음악회

18일 금요일 오후 6:00,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4:00,  
6:00 가람아트홀



김윤정

유영욱

두 대의 피아노로 들려주는 프로코피에프의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와 Harmonize Ensemble의 실내악 앙상블을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청소년 해설음악회.

- 피아노/김윤정, 유영욱
- 나레이션/조장미
- Harmonize Ensemble/유영욱(피아노), 성기엽(플룻), 권성은(오보에)

**입장료** 균일 6,000원

**문의** 가람기획(626-6664)

## 부산 의 · 치대 관현악단 제 34회 정기 연주회

19일 토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부산대학교 의 · 치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부산 의 · 치대 관현악단은 1973년 창단 이후 꾸준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 지휘/김상철 · 협연/이지운(플룻)

**입장료** 초대

**문의** 안민원(011-9195-1305)

## 아현 제 25회 정기 연주회

19일 토요일 오후 6:30  
시민회관 소극장

부산대학교 의 · 치대 · 간호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클래식기타연구회 아현의 25번째 정기 연주회.

**입장료** 초대

**문의** 강아로미(011-9512-5132)

친구야 숙제하러 가져!

## 젼나는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19일 토요일 오후 2:00,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콘서트콰이어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국내외 가곡 및 성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 우리에게 친숙한 성악곡을 들려준다.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MUSA 부산타악앙상블 여름방학 특집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 타악기로 연주하는 재즈, 팝 그리고 영화음악...

21일 월요일 오후 2:00,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극장  
25일 금요일 오후 2:00, 5:00  
시민회관 대극장



타악 전문연주단체인 뮤사 부산타악앙상블이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신명나는 타악의 세계.

- 음악감독/송기태 · 리더/김정우

**입장료** 균일 7,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00원 할인)

**문의** 김정우 타악기연구소(628-8377)

## 2006 한여름밤의 음악산책

21일 월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소극장



젊은 연주인들과 떠나는 한여름밤의 클래식 음악여행.

- 연주/김미영(오보에), 강미경(플룻), 이현욱(피아노), 이영화(소프라노), 광대희(첼로), 안경수(피아노), 양승엽(테너),



이기종(바이올린)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 클래식 음악을 영화에 담다

22일 화요일 오후 4:00, 7:00  
시민회관 대극장

영화에 삽입된 클래식곡을 스크린을 통한 영화의 한 장면과 함께 연주함으로써 감동을 전해주는 색다른 무대.

· 음악감독, 진행/박은희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 그라시아 플룻앙상블 제 2회 정기연주회

22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2001년 3월 창단 이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플룻음악의 보급에 힘써온 그라시아 플룻 앙상블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 협연/장진이(피아노), 곽승웅(클래식기타)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이은영(017-580-7887)

## 작곡마당 창작곡 발표회

2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전공과 음악장르를 초월,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통해 한국 창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청중들과의 소통과 교감의 장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펼쳐온 작곡가들의 모임 '작곡마당' 창작곡 발표회.

**프로그램**

신동일/댕구지 아리랑

백현주/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이중주

김연선/삼계절 수프 요리법 연작가곡 등

**입장료** 초대

**문의** 백현주(017-585-2052)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7회 청소년 교과서음악회

22일-23일 오후 3:00, 5:00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



교과서에서 배운 클래식곡을 중심으로 지휘자의 상세한 해설로 들려주는 교과서 음악회.

1부에서는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를, 2부에서는 세계 각국의 춤곡을 들려준다.

· 지휘/박성완(부산대학교 교수)

· 협연/이웅희(트럼본)

· 내레이션/이현주(부산시립극단 단원)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31, www.becs.go.kr)

## 글로벌솔리스트앙상블 해설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22일 화요일 오후 4:00, 7:00  
글로벌아트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글로벌솔리스트앙상블이 우리에게 친숙한 국내외 가곡을 들려주는 청소년 해설 음악회.

· 출연/고예정, 이은정, 전병호, 김성현, 손욱, 김종화, 이지영, 성미진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재미있는 성악세계

23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7:30 시민회관 대극장

부산남성중창단 리더, JOY어린이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김종석의 재미있는 해설로 진행되는 해설음악회.

· 지휘/이창균 · 피아노/홍지혜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병원

##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은 부산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한발 앞서가는 큰 병원으로 새롭게 도약·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내과 | 소화기내과 | 소아과 | 신경과 | 정신과 | 피부과 | 외과 | 흉부외과 | 정형외과 | 성형외과 | 신경외과 | 산부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치과 | 가정의학과 | 재활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방사선과 |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1330

· 대표전화: 051)507-3000 · Fax: 051)507-3001 · 홈페이지: www.busanmc.or.kr



· 출연/이재란, 김한나(이상 소프라노), 성미진(메조소프라노), 황성학, 우경준(이상 테너), 최인철(바리톤), 정용욱(베이스), 나리(바이올린), 해운대구소년소녀합창단

**입장료** 일반 10,000원 · 중고생 8,000원

**문의** 오페라단 가야(747-6139)

## 제 16회 소년의 집 자선 음악회

24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유명 연주가와의 교류무대를 통해 성숙한 음악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부산 소년의 집 관현악단이 마련하는 자선음악회.

· 지휘/안유경  
· 협연/조혜운(바이올린), 부산치과의사남성 앙상블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마리아 수녀회(256-3901)

## 청소년음악회-뮤직클래스

24일 목요일 오후 3:00, 6:00  
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김상철, 한아름, 양혜원, 서송은이 우리에게 친숙한 클래식 곡을 들려주는 청소년 음악회.

**입장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옴니미디어(201-3301)

## 콘체르토, 다 모여라!

2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피아니스트 원영아의 제자들과 영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한 무대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협주곡의 세계를 들려준다.

· 지휘/손경균(영남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가람기획(626-6664)

## 노영심의 이야기 피아노 마음 心

24일 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노영심이 관객과 함께 하는 영상과 피아노가 함께 하는 이야기가 있는 피아노 콘서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321~3)

## 샤론 챔버 앙상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24일 목요일 오후 4:00, 6:00  
글로벌아트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과 시민들을 위해 샤론 챔버앙상블이 들려주는 멘델스존 음악의 밤.

· 연주/백샤론, 김은진, 김경미, 우리라, 임예빈, 곽유진, 임솔빈, 현리사

· 클라리넷협연/진은경 김은영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아코르 청소년오케스트라 제 4회 정기연주회

25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2년 9월 음악을 사랑하는 청소년 50여명으로 창단한 아코르 청소년오케스트라(지휘/정홍기)의 4번째 정기연주회.

· 협연/한주연(피아노), 이지현, 이서현(플룻)

**입장료** 무료

**문의** 조경숙(011-550-1116)

## 어수희 피아노 독주회

2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서울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모짜르테움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다수 연주무대를 통해 세련된 무대매너와 탁월한 테크닉을 선보여 주목받은 피아니스트

어수희 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슈만의 낭만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환타지' 전곡을 연주한다.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프로인트(521-5729)



## 인제대의 관현악단 제 25회 정기연주회

26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그동안 닦은 연주 실력을 선보여온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관현악단의 25번째 정기연주회.

- 지휘/김성훈(의학과 2년)
- 성악협연/이진호, 박소영

**입장료** 초대

**문의** 김경일(011-9176-6568)

## 라이브 클래식과 함께하는 어린이 동화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

8월 26일(토)-9월 10일(일) 평일  
오전 10:00, 11:00, 주말 오후  
1:00, 3:00, 5:00(평일공연은 단체  
관람) 가람아트홀

어린이들이 클래식을 쉽고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제작한 어린이 음악회.

프로코피에프가 어린이를 위해 작곡한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를 들려준다.

- 연출/황진용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람아트홀(626-6664)

## 제 4회 부산사회복지합 창제

28일 월요일 오후 2: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 12개팀이 참가, 진정한 자기이해 및 인격형성을 돕는 문화의

장으로 마련한 부산사회복지합창제.

- 출연/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청학모자원, 두배인더스트리, 소망관, 기장군 노인복지관, 마리아모자원, 웨슬리마을 신나는 디딤터, 안나원,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아따장애인센터, 부산생명의 전화, 부산노숙인 상담보호센터

- 특별출연/금샘국악단, 사회복지봉사단21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506-6633)

## 숙음아르떼 다섯 번째 연 주회 -모차르트를 기억하며

2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숙명여자대학교 동문들로 결성된 숙음아르떼가 모차르트 탄생 100주년을 맞아 모차르트 연주곡으로 마련하는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 출연/주재란, 조경순, 정혜인, 제현주, 조혜영, 김현애, 최영은, 박정주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제 1064회 MBC목요음악회

## 양산시립관악단 초청연 주회

31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지난 2004년 창단한 이후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클래식음악의 보급에 힘써온 양산시립관악단 초청연주회로 마



련되는 MBC목요음악회.

- 지휘/박우진(양산시립관악단 지휘자)
- 협연/부산기독교연합합창단, 풍물연구원 '푸리'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 제 14회 임병원 바이올린 독주회

31일 목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의 대표적인 중견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바이올린 독주회.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로 꾸며진다.

- 피아노/이성은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임병원(620-4917~8)

자신의 연주를 음반과 비디오로 소장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연주자들이 바라던 클래식 전문 녹음실 & 촬영 스튜디오

연주 실황 녹음 \_ 음반 녹음 \_ 교수 연구실적 녹음  
연주 실황 촬영 (DVD, SVHS) \_ 콘서트 촬영

**Bird Classic**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센텀벤처타운 504호  
☎ 051-744-1150, www.vrvr.co.kr



## 연극

### 루나틱

7월 14일(금)-8월 1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  
(7/24~7/28일, 7/31일, 8/7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혼돈스럽고 각박한 사회현실 속에서 과연  
누가 정신병자인지를 코믹하게 그려낸 창작  
뮤지컬.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평  
일공연 중 · 고 · 대학생 40% 할인,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아마데우스(1588-9088)

### 극단 아센 **아비가일의 파티**

7월 21일(금)-8월 6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SH공간소극장



이웃간의 사교모임에서 벌어지는 헤프닝을  
통해 일상속에 내재한 인간의 나약함과 이면  
적인 속성을 코믹터치로 그려낸 작품.

· 작/수전 헤이우드 · 연출/호민  
· 출연/유상훈, 구민주, 양지웅, 황자미 외

**입장료** 일반 15,000원 · 학생 12,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SH공간소극장(611-8518)

### 극단 전위무대 **용감한 사형수**

11일(금)-20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 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를 거부하며 결국 형  
장으로 사라져가는 한 사형수를 통해 진실이  
란 무엇인가를 묻는 작품.



· 작/홀워드홀 · 연출/전승환  
· 출연/전성환, 권철, 윤석이, 박현형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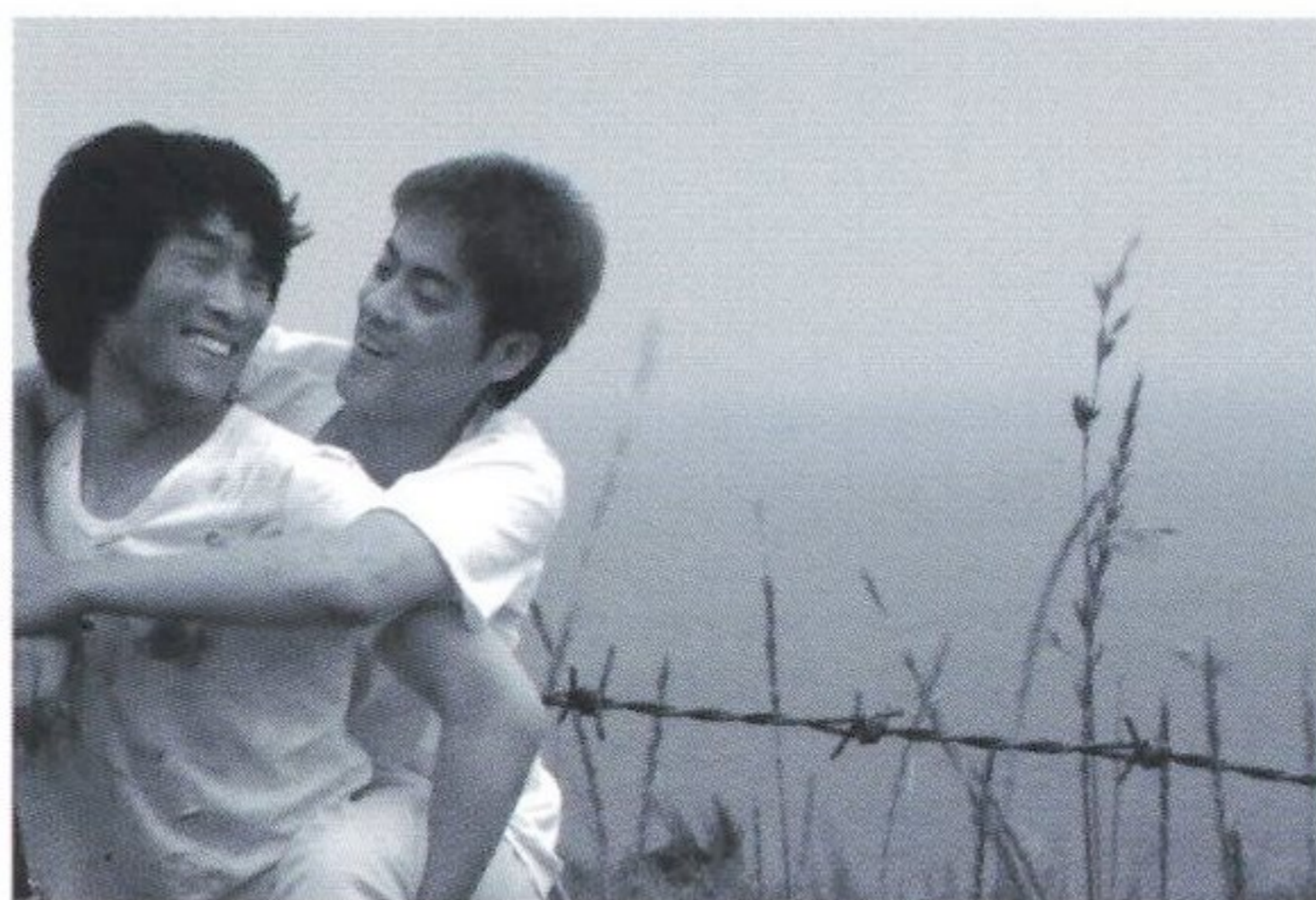
### 2006 부산광대예술제

12일(토)-27일(일) 액터스소극장,  
너른소극장, SH공간소극장, 광안리  
해수욕장 테마거리

수영구 내 위치한 액터스소극장, 너른소극  
장, SH공간소극장이 함께 마련하는 부산광  
대예술제 세 번째 무대.

#### ■부두연극단 '강택구'

12일(토)-27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  
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액터스 소극장(9/16일까지 계속공연)



실제 시베리아 벌목공들의 탈출기를 소재  
로 한 작품으로 이산가족의 애환과 잊혀져  
가는 분단의 아픔을 그린 작품.

· 작/전훈 · 연출/최성욱  
· 출연/하명호, 이광현, 이성진

#### ■극단 사계 '도덕적 도둑'

12일(토)-27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 SH공간소극장(9/10일까지 계  
속공연)

· 작/다리오 포 · 연출/허영길  
· 출연/조홍일, 김만중, 양지웅, 김장영 외

#### ■배우워크샵 '열정과 도전, 그리고 무대'

14일(월)-20일(일) 오후 2:00 너른소극장  
■극단 바문사 '가출소녀 우주여행기'  
15일(화)-20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 너른소극장

· 작/김지용 · 연출/홍성모  
· 출연/박동민, 이국희, 박영호 외

■경상전문대 엔터테인먼트과 '태몽'  
22일(화)-27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  
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너른소극장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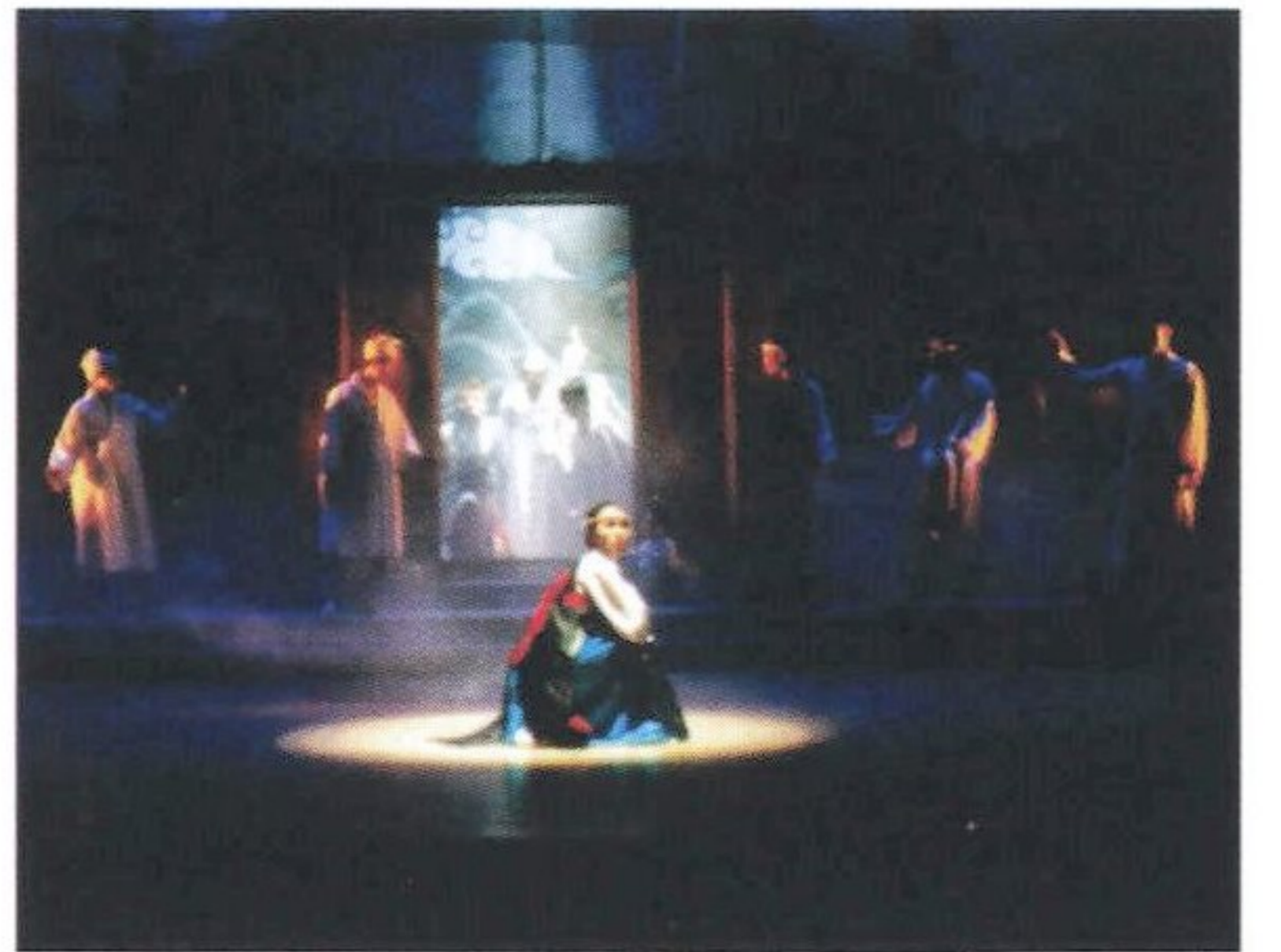
**문의** 너른소극장(622-3572)  
SH공간소극장(611-8518)  
액터스소극장(611-6616)

### 2006 동래 야외극 페스티벌 **한 여름밤의 꿈**

18일(금)-27일(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야외마당

무더운 여름밤 온가족이 야외에서 즐기는  
여름공연예술축제.

#### ■18일(금)-20일(일) 어무이 어무이요



중요무형문화재 동해안 별신굿의 거리굿  
형식으로, 한 어머니의 일생을 통해 우리  
의 전통윤리사상인 '효'를 이야기한 작품.

■21일(월)-22일(화) 댄싱 퍼포먼스 '러브'  
■23일(수)-24일(목) 가족극 '메아리'  
향파 이주홍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작품 '메아리'를 각색한 가족극.

■25일(금)-27일(일) 동래별곡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의 동래성 싸움을 소  
재로 우리민족의 한(恨)을 표현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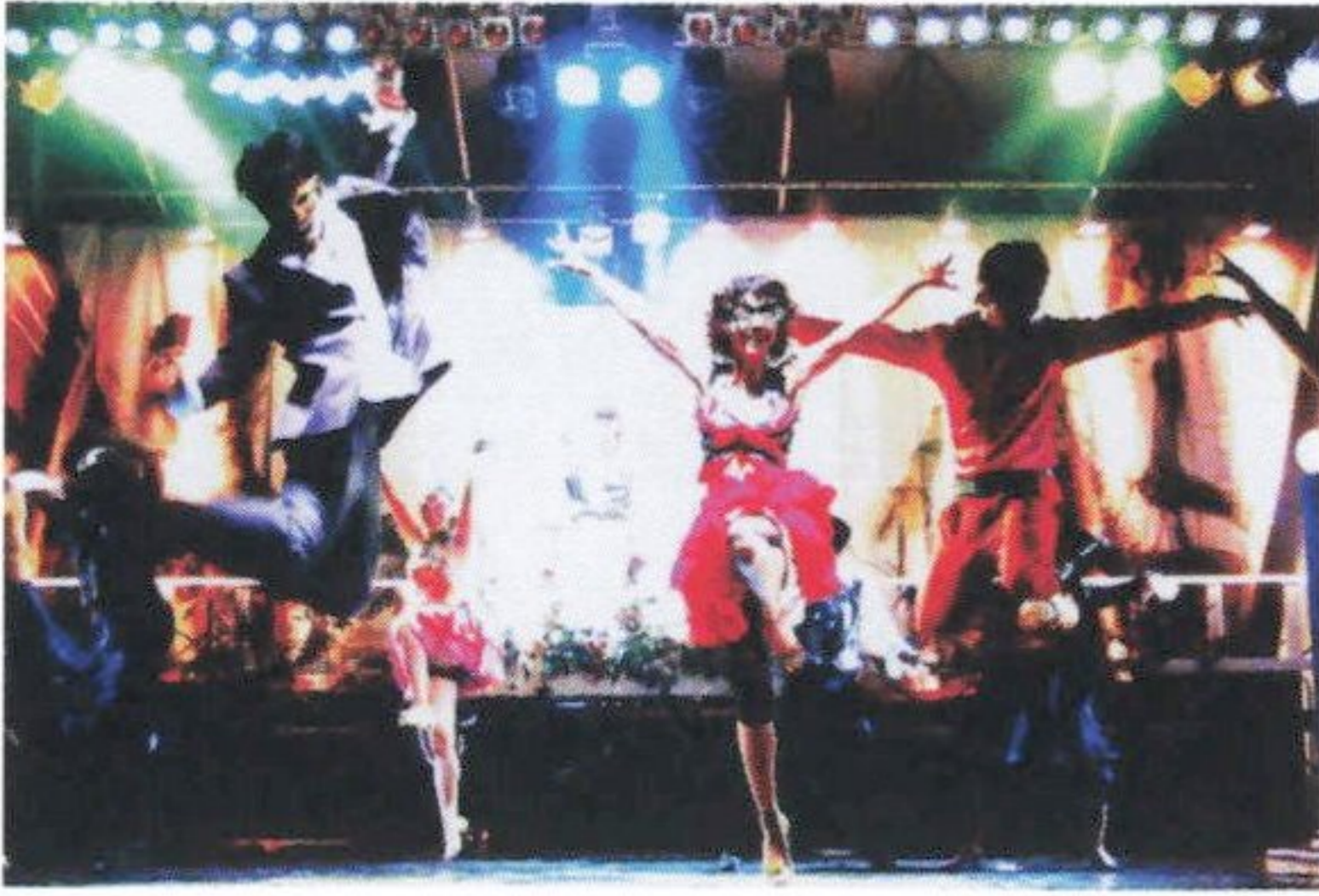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맥(645-2110)



##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의 하녀

8월 25일(금)-9월 17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  
연없음) 가마골소극장



현재 뉴욕을 배경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줄리엣의 하녀 주리, 무덤지기 아들 하킴의  
엇갈린 사랑이 원작을 비튼 엉뚱한 상황과  
인물들의 코믹 연기로 재미를 더한다.

· 작/박현철 · 연출/이윤주

· 출연/이종현, 최윤미, 강태환, 변지호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 극단 에저또 부산 10주년 기념공연 4 뮤지컬 친구

8월 25일(금)-9월 2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놀원소극장

197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젊은이들의 순  
수한 사랑을 구수한 사투리와 70년대 음악  
으로 그려낸 창작 로큰롤 뮤지컬.

· 작, 연출/최재민



· 출연/손미나, 김진욱, 이지훈, 곽정림 외

**입장료** 일반 25,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에저또(852-9161)

## 웃.찾.사 오~개그 코리아

26일 토요일 오후 4:00, 7:00  
KBS 부산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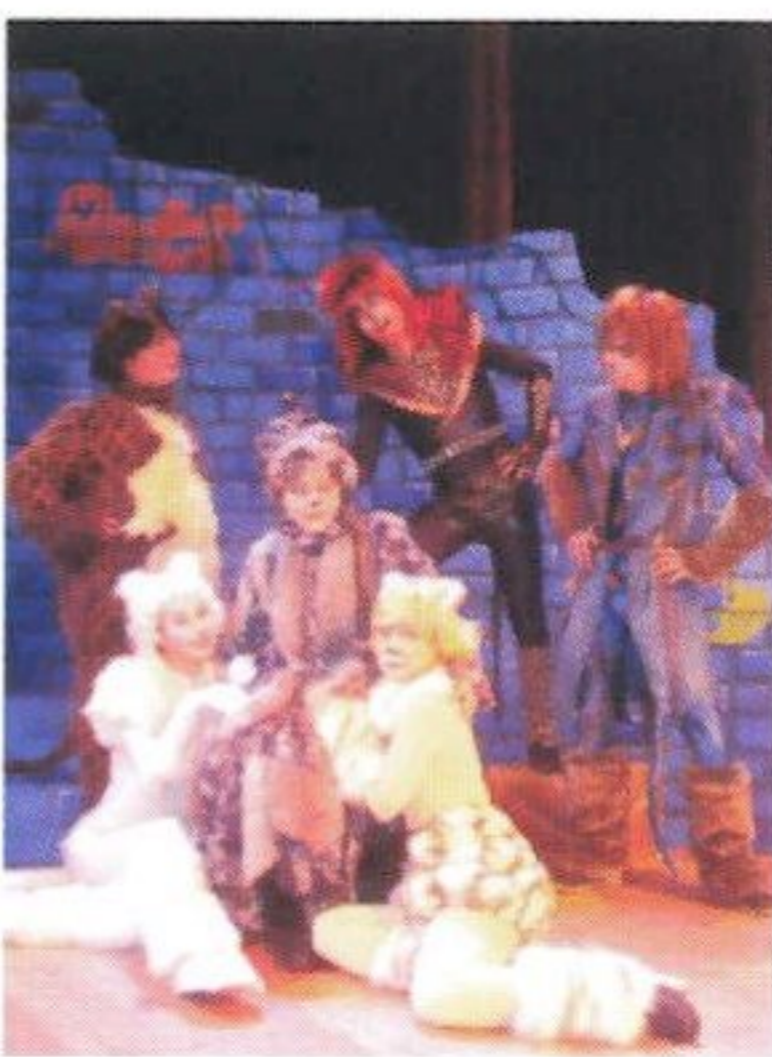
TV 코미디 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  
출연 개그맨들이 선보이는 막강 개그콘서트.

**입장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문의** 요요기획(622-5744)

## 어린이 캣츠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시민회관 대극장



어린이의 눈높이  
에 맞춘 구성과 아  
름다운 음악, 역동적  
인 안무가 돋보이는  
환상적인 무대로 관  
객의 시선을 사로잡  
는 가족뮤지컬.

· 작, 연출/유정

· 출연/임수지, 전해인, 안석훈, 양한나, 오  
부열, 이준영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부산  
시립예술단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메니지먼트 나무  
(02-2632-5578~9)

## 우리는 아직도 클레오파 트라를 생각하고 있다

8월 30일(수)-9월 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화요일 공연  
없음) 경성대학교 소극장

'희망'이라는 주제로 오브제(그림자), 몸  
(움직임), 언어(실험극)로 각각 표현한 창작  
극 '눈비', '무지개를 쫓아 달나라로 갈까'  
'우리는 아직도 클레오파트라를 기억하고 있  
다' 등 세 작품이 선보인다.

· 작, 연출/정진희

· 출연/정진희, 허종원, 김현진, 백상희 외

**입장료** 일반 18,000원 · 청소년 15,000원  
(예매시 5,000원 할인)

**문의** 극단 힘찬(011-9506-8221)

## 영 화

### B급 호러 영화 파티

7월 20일(목)-8월 10일(목) 오전  
11:30, 오후 2:00, 4:30, 7:00  
(월요일 휴관, 목요일 저녁 7시 독립  
영화 상영) 시네마테크 부산

무더운 여름을 서늘하게 할 B급 호러 영화  
14편이 상영되는 'B급 호러 영화 파티'.



## 부산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클래식음악애호가 바라던 클래식음반전문매장  
부산에도 있습니다.

· 비바체 목요일음악감상회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8:00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 비바체클래식

해운대 선플라자 빌딩 1층(지하 2, 3, 4층 무료주차)

TEL 743-0003, FAX 743-3301, vivaceclassic.co.kr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 아 동 극

### 뮤지컬 그림자 도둑

18일-20일 금-일요일 오후 2:00,  
5: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잃어버린 자신의 그림자를 찾아 떠나는 한 소녀의 모험이야기를 그린 어린이 영어연극.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라트어린이극장(02-560-0996)

### 잠자는 숲속의 공주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마녀의 저주로 깊은 잠에 빠진 공주를 구하러 가는 왕자의 모험을 그린 가족뮤지컬.  
· 각색, 연출/이제희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플러스기획(080-071-1212)

## 콘 서 트

### 코요테 어글리

11일-12일 금-토요일 오후 7:00  
그랜드호텔 칸스

동명의 영화를 통해 음악과 춤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케 한 '코요테 어글리'를 무대에서 직접 만난다.

**입장료** 균일 50,000원(19세 이상 입장,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클럽 휴(611-0002)

### 재즈 아티스트 로라 피지 부산공연

15일 화요일 오후 7:0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입장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공연라이프(626-9494)

## 행 사

### 화가 김홍석을 생각하며

7월 20일(목)-9월 18일(월)  
구덕문화공원 다목적관

故 김홍석 화백의 삶과 예술작품을 조명해 보는 추모행사로, 유작전을 비롯 추모전과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문의** 차경혜(018-317-4220)

### 시올림 제 52회 시낭송회

9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무료  
**문의** 이해웅(500-7214)

영광도서와 뮤클이 함께하는

### 클래식 · 예술공연 무료 DVD 상영

매주 일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6일 차이코프스키 오페라 '에프게니 오네긴'
- 13일 뮤지컬 '그리스'
- 20일 발레 '돈키호테'
- 27일 핑크 플로이드의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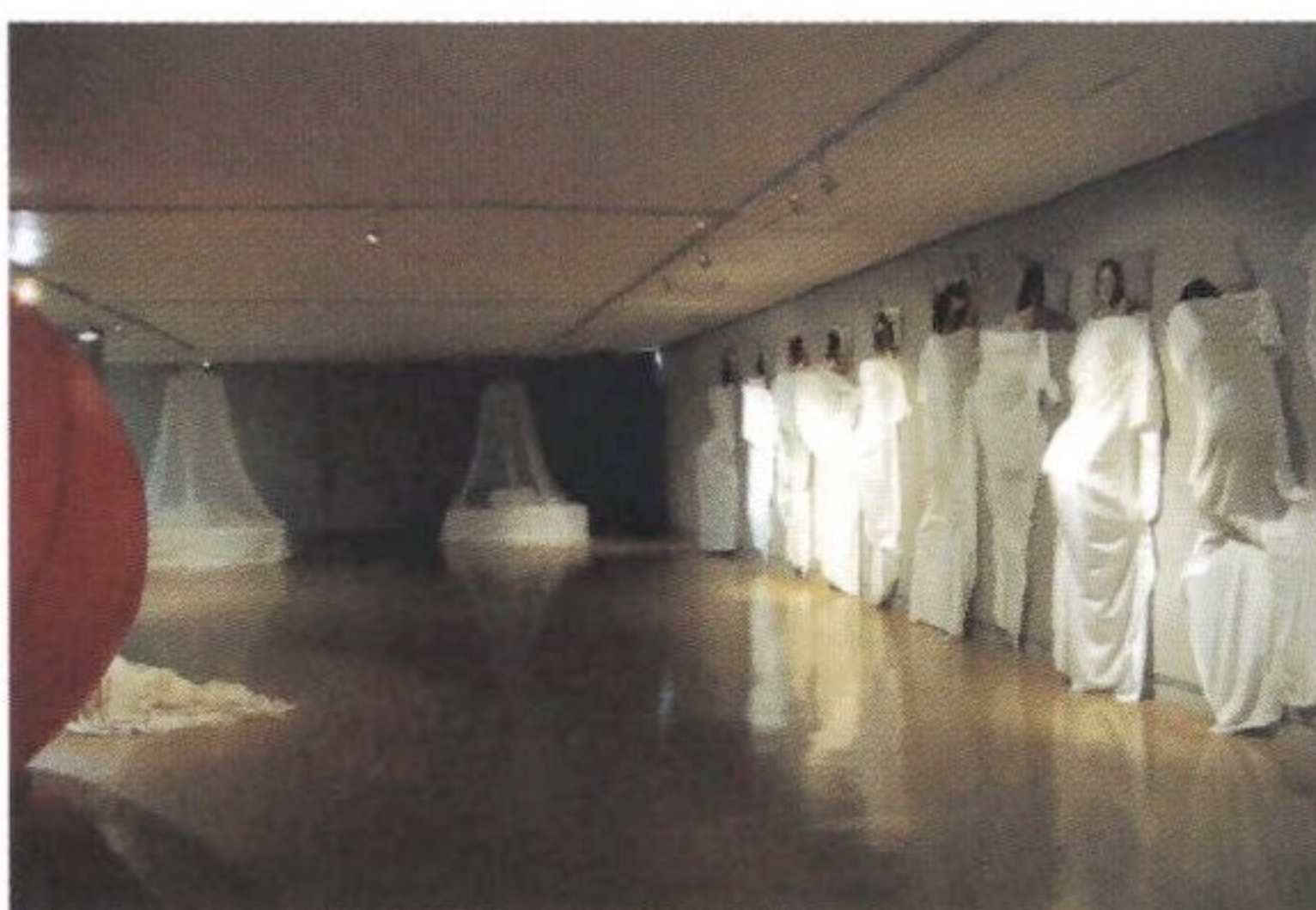
**입장료** 무료  
**문의** 영광도서(816-9500)

## 전 시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 몽환극

6월 22일(목)-8월 20일(일)  
용두산미술전시관



일상적 공간과 현실의 가시성을 벗어난 꿈, 상상, 환상, 기억 등 가상적 세계를 그린 전해원, 유미연 2인전.

용두산미술전시관(244-8228)

2006 부산박물관 특별전

### 동아시아 자수전 '선과 선이 만날 때'

7월 11일(화)-8월 20일(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부산박물관(624-6343~4)

### 청년작가 김신규 사진전

8월 1일(화)-8월 31일(목)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 책과 그림, 영상으로 만나는 평양

8월 2일(수)-8월 30일(수)  
영광갤러리(영광도서 4층)

**문의** 영광갤러리(816-9500)

### 2인의 시각전

8월 14일(월)-8월 19일(토)  
부산광역시청 제 1전시실/8월 21일(월)-8월 26일(토) 경신문화홀

광복 60주년 기념 평화사절단으로 러시아, 일본, 중국을 방문한 화가 정옥진, 사진가 정정희의 시각에 잡힌 풍경과 풍물전.

**문의** 경신문화홀(804-1243)

### '의상을 넘어서' 展

8월 18일(금)-8월 28일(월)  
경성대학교 미술관 제 1전시실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 정세훈展

8월 22일(금)-9월 5일(화)  
도시갤러리

**문의** 도시갤러리(756-3438)

### 신애원 작품전

8월 28일(월)-9월 1일(금)  
경신문화홀

**문의** 경신문화홀(804-1243)



# Recommended Performance in August

## 11th Busan Sea Festival

1st(Tues)-7th(Mon), Major Beaches in Busan

'Sea of Festival, Waving Global City'. In August, Busan surrounded with beaches is in the middle of the festival. Haeundae, Kwanganri, Songdo, Dadaepo, etc, wherever you go, you can see the various performances and events.

It has presented citizens and tourists with impressing moments for several years. Also, the festival features a variety of participation events for citizens, such as 'Water Activity Sports' 'Windsurfing championship' 'Beach Volleyball Championship' and 'Hanbada Festival for the Handicapped'.

More Information:888-3396, [www.seafestival.co.kr](http://www.seafestival.co.kr)

## 2006 Busan International Beach Dance Festival

4th(Fri)- 9th(Wed). Kwangan Beach, Busan Citizen Center Main Hall

'To the sea of dream, sea of festival' This festival will show diverse dance performances from 6 nations like Australia, Canada, German, Japan, Korea, US. Especially the Kwangan beach special stage will present us exciting dances with harmony with wonderful scenery ; sea and Kwangan Dago selected one of the most beautiful way in Korea.

More Information:632-0943, [www.bibdf.com](http://www.bibdf.com)

## 2006 Busan International Rock Festival

5th(Sat)-7th(Mon) Dadaepo B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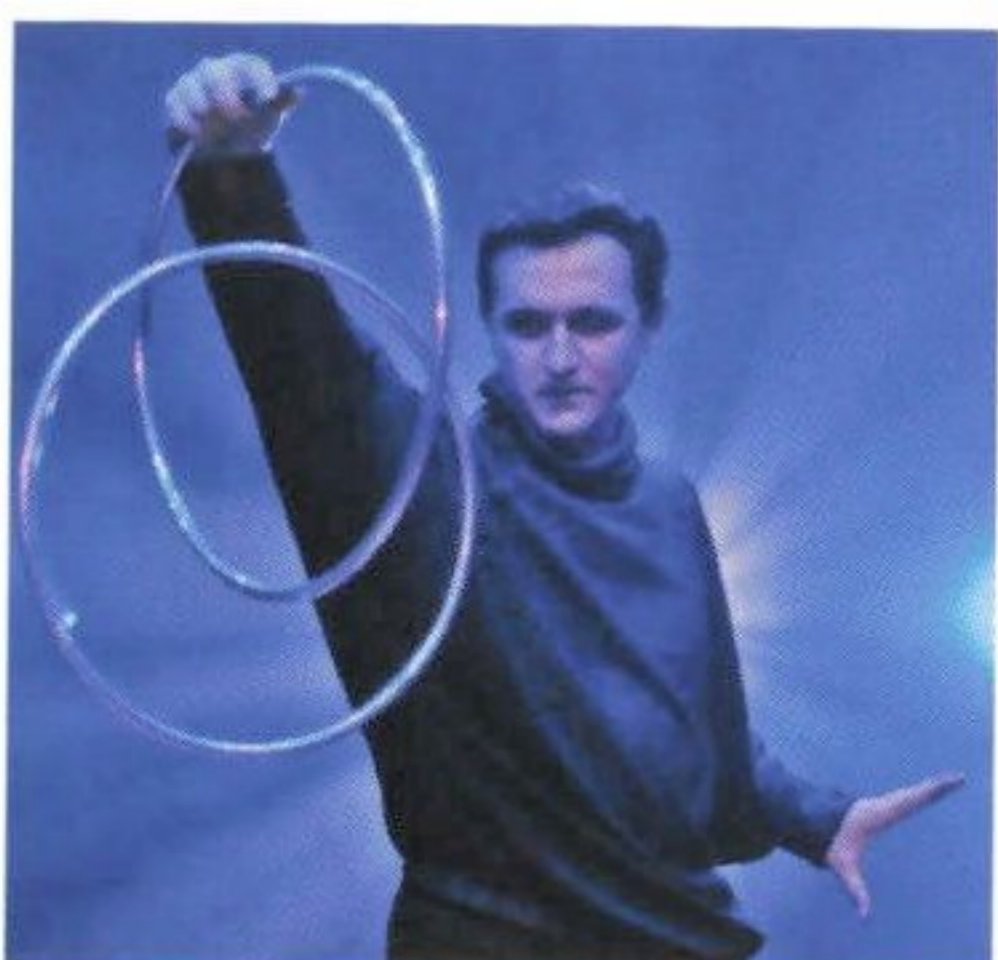
Here is 'Sea, Youth, Love'. This will make your summer night more hot. Every summer, Busan International Rock Festival takes place at Dadaepo beach.

This year's event make features of Korean top rock bands such as Deli Spice, No Brain and chart topping world rock bands such as U.F.O(England), Edguy(German), Andrew W.K(US) etc. They will perform powerful lives at the 2006 Busan Internaional Rock Festival. It will be participated by 14 teams from 5 countries.

More Information:888-3392, [festival.busan.kr](http://festival.busan.kr)

## Busan International Magic Festival 2006

10th(Thur)-15th(Tues), Bexco



This event will be held for the first time in Asia. About 40 magicians from 13 countries are coming for it. It is made of fantastic magic. You can appreciate illusional performances such as dividing of human body, disappearing of airplane and etc, by Franz Harary, one of the worldwide

top three of illusion magic. Also top of the world of card magic, Henry Evans and famous comic magician, Aldo Colombini are waiting for you.

More Information:746-2838, [www.hibimf.org](http://www.hibimf.org)

## 'Pabanggut' by Namsan Noleemadang the third story of Youngam's Sound, Motion, and Pugmul

20th(Sun) 6:0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It is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dance especially in Youngnam province. Namsan Noleemadang(performance group) have tried to express the passion, zest and excitement of Korean tradition. And they will show us successful performance.

Ticket:Adult 12,000Won · Student 8,000Won

More Information:516-4434, 016-856-4434

## Special Concert by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Selection for Summer, Interesting Journey to Traditional Music

23th(Wed)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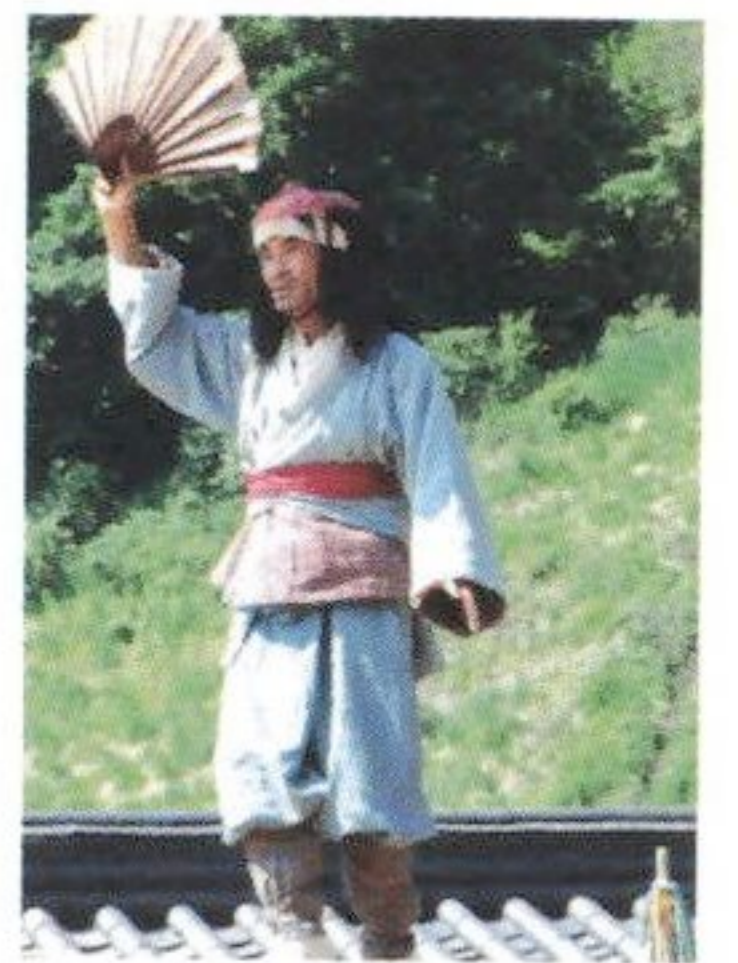
They are always trying to present us new and fresh music. This time they show us traditional music with various performances like tightrope dancing by Eoreumsani, magic gag, and songs.

· Conductor/Park Ho Sung

Ticket:R 30,000Won · S 20,000Won

A 10,000Won

More Information:607-6110, 607-6070



## Chorus of Men, 'Dream of One Summer Night' United Concert of 3 Municipal Chorus in Busan and Kyungnam

28th(Mon)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is festival aims to present various and high-class level performance for people, who live in Busan, Ulsan and Kyung Nam Area. In this year, three union chorus members will show powerful and sometimes delicate attraction of male chorus.

They are Busan Metropolitan Chorus, Ulsan Metropolitan Chorus, and Kimhae Metropolitan Chorus and will be leaded by Lee Sanglyeol, a principal conductor of Kimhae Metropolitan Chorus.

Program

G.Verdi/The Glory Of The Light

R.Wagner/Chorus Of Norwegian Sailors

Arr.Livingston Gearhart/Dry Bones etc.

· Conductor/Lee Sanglyeol

Ticket: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More Information:607-6126



# 트럼펫(Trumpet)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트럼펫의 어원은 그리스어 스트롬보스(strombos, 조가비)이다. 큼직한 천연 조가비 한쪽에 구멍을 뚫어 그 곳에 입술을 대고 소리를 내는 바로 그 조가비가 트럼펫의 시조인 것이다. 역사도 아주 오래 되어서 기원전 2000년경의 이집트의 그림에도 있다. 그 무렵에는 주로 사냥터의 신호용으로 쓰이다가 의식이나 전쟁에서도 쓰였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트럼펫의 원조는 13세기 이후 이슬람권으로부터 유럽으로 전해진 나필(nafil)이다. 우리 악기 '나팔', 게다가 금관악기를 총칭하는 단어로 쓰이는 중국어 '나팔'과 아주 흡사한 단어여서 흥미롭다. 나필의 원통관에 나팔꽃 모양의 벨이 달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13세기 무렵이었고, 15세기경부터는 거의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되었다.

트럼펫의 각 부분을 기능적으로 살펴보면, ① 양입술을 떨어 최초의 소리를 얻는 마우스피스와 그로부터 밸브에 이르는 관 ② 밸브를 포함하여 조율관 전체 ③ 밸브 이후부터 마지막 나팔부분인 벨까지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마우스피스에서 밸브까지의 관은 약 12~13cm로, 슬러를 연주하기 쉽도록 마우스피스 쪽으로 가면서 가늘어진다. 밸브는 피스톤식과 로터리식이 있는데, 로터리식이 다소 부드러운 소리를 내지만 기동력에 있어서는 피스톤식이 유리하다. 조율관은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정상 포지션에서 관의 길이를 변화시켜 전체 음높이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일종의 연결관)이다. 이 조율관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조율을 하게 된다.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벨은 제조회사에 따라 길이와 크기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벨의 직경이 크면 음을 둥글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규격 이하로 작으면 코맹맹이와 같은 답답한 소리가 난다. 벨까지의 관이 길고 벨이 넓으면 그만큼 공명부분이 많아지는 셈이 된다.

1813년, 영국의 클라렛에 의해 밸브 시스템이 발명되어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밸브 시스템의 사용이 일반화됐다. 트럼펫의 종류는 B관·C관·E관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 밖에 소형으로 1옥타브 높은 B관(피콜로 트럼펫), F관, 로터리 트럼펫, 코넷, 플루겔 혼, 관을 감지 않고 곧게 만들어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의 개선 장면 연주에서 사용된 아이다 트럼펫 등이 있다.

트럼펫의 음색은 밝고 날카로워서 환희, 기쁨, 승리의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적절하고, 연주법에 따라서는 의외로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도 낼 수 있어 독주악기로서의 매력도 그만큼 높다 하겠다.



## 부산시립극단 거창국제연극제 참가

8월 4일-5일 거창 수승대 축제극장



부산시립극단이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거창에서 열리는 제 18회 거창국제연극제에 초청받아 연극 '십이야'를 무대에 올린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지역의 대표적인 국제연극제인 거창국제연극제는 우리나라를 비롯 러시아, 일본, 프랑스, 루마니아 등 10개국 47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오는 8월 4일과 5일 두차례 거창 수승대 축제극장에서 올려지는 부산시립극단 '십이야'는 셰익스피어의 희극 중 최고의 걸작으로, 쌍둥이 남매의 닮은 외모 때문에 벌어지는 사랑소동극이다.

'십이야'는 지난 3월 부산시립극단 제 25회 정기공연으로 선보여 연극애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부산시립극단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거창국제연극제에서 '태자 햄릿'과 '선착장에서'를 무대에 올린 바 있다.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 협연의 밤 협연자 모집

오는 10월 20일 열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30회 청소년 협연의 밤에서 협연할 유능한 국악도를 모집합니다.

### ■ 모집부문

- 가) 대상 : 전국 중,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학중인자로 학교장(학과장)의 추천을 받은자.
- 나) 응시곡목 : 협주곡 (자유곡) 1곡
- 다) 모집부문 : 전파트 (소금, 대금, 피리, 해금, 아쟁, 가야금, 거문고, 성악, 사물놀이) 6명 이내

### ■ 전형

- 1) 전형일자 : 2006년 9월 15일(금) 14:00 전형자는 오디션 당일 13:30까지 대기실에 입실 완료(추첨)
-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8월 28일(월)-9월 13일(수) 18:00(우편접수는 9월 13일(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3) 접수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무실(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문화회관 내)
- 4)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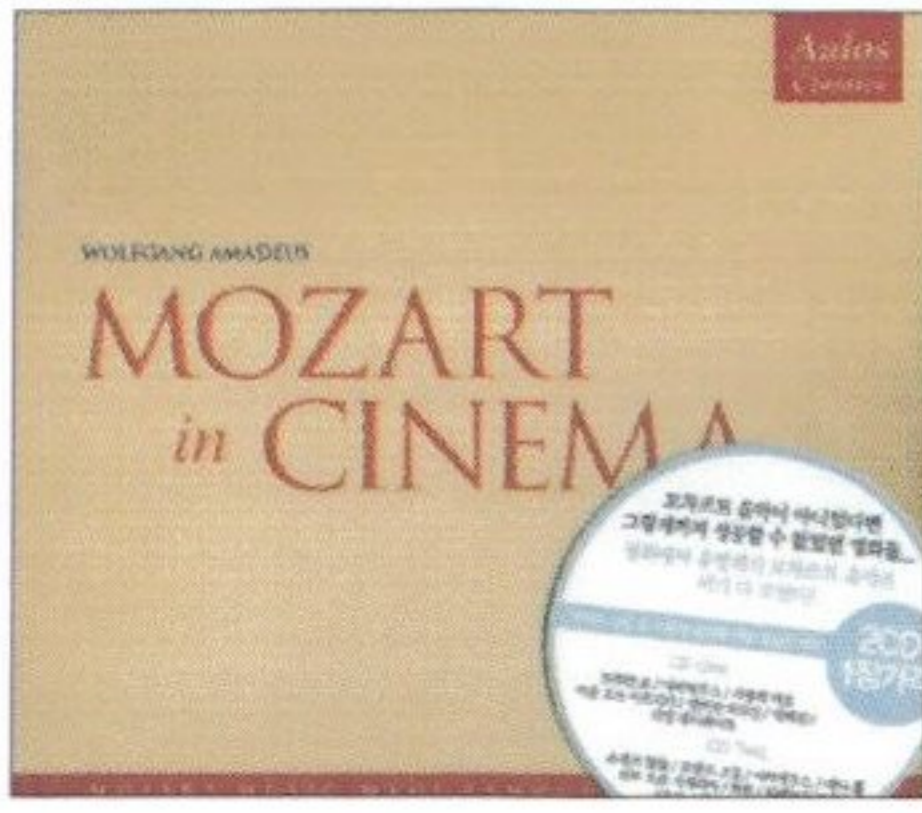
부 문	제 출 서 류	비 고
기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원서 (소정양식) 1부</li> <li>· 학교장 (학과장) 추천서 1부</li> <li>· 응시곡목 : 협연곡(자유곡) 악보 1부 제출</li> <li>· 본인 프로필 1부      · 사진 1매</li> </ul>	

- 5) 합격자 발표 : 2006년 9월 20일(수) 14:00,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재

■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 모차르트 인 시네마(Mozart in Cine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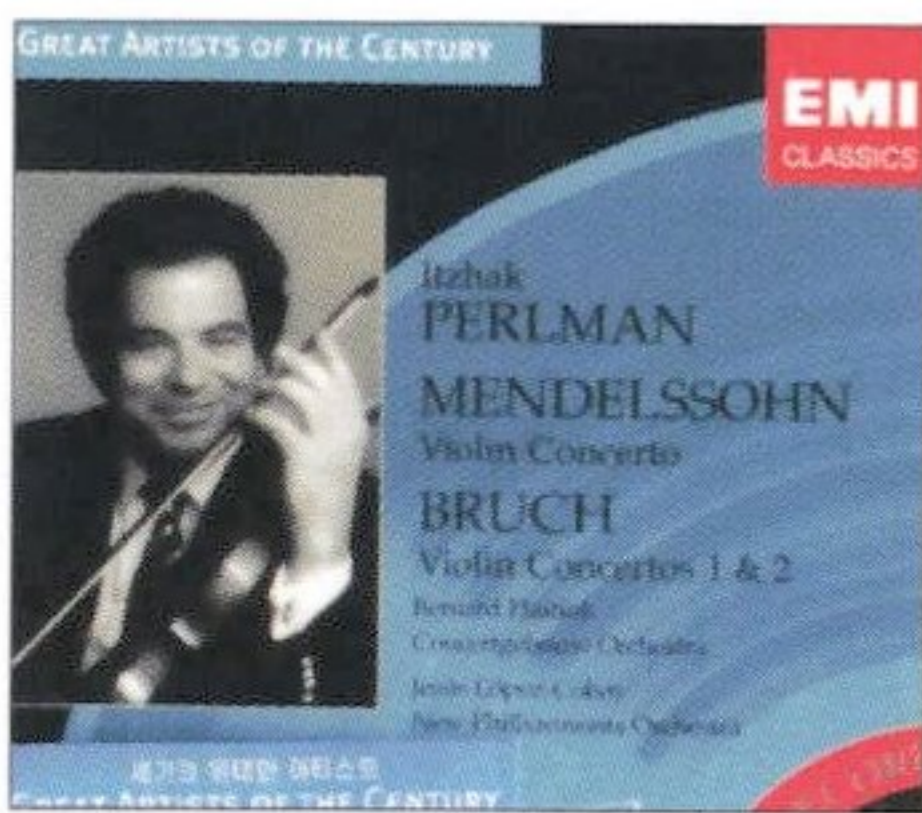


**영화에서 유명해진 모차르트 선율을 전부 모았다!**

‘모차르트 인 시네마’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아마데우스’ ‘엘비라 마디간’ ‘쇼생크 탈출’ ‘러브 오브 시베리아’ 등 스크린 곳곳에서 감동의 깊이를 더했던 모차르트 음악들을 골라 담았다.

지금까지 영화에서 쓰인 클래식 음악만을 모은 음반이 적지 않게 나왔었지만 모차르트의 음악만으로 레퍼토리를 한정, 거의 망라해 두 장의 음반으로 만든 것은 없었다. 이 음반은 비교적 상세한 시놉시스와 함께 정성과 감성이 풍부하게 곁들여진 해설까지 알찬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애호가든 음악애호가든 하나하나의 트랙이 넘어갈 때마다 바로 앞에서 명장면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져 때로는 아름다운 선율 하나가 백 마디 대사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의 파노라마 같은 이 두 장의 음반을 통해 모차르트가 얼마나 위대한 작곡가였는지 새삼 확인할 수 있다.

## 세기의 위대한 아티스트 GAOC(Great Artists of the Century)



**이차크 펄만/멘델스존,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신체적 장애라는 역경을 딛고 20세기 후반 가장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로 우뚝 서있는 이차크 펄만의 최고의 테크닉과 온화하고 혈기 넘치는 인품에서 우러나오는 따스한 음색으로 연주하는 19세기 완벽한 걸작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 베르나르트 하이팅크, 헤수스 로페즈-코보스와 펄치는 펄만 최고의 스튜디오녹음

## 루체른 페스티벌 2005의 선택(ARTE-015, ARTE-014)



**브루크너 교향곡 7번/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ARTE-015)**

**말러 교향곡 7번, '밤의 노래'(ARTE-014)**

\* 루체른의 기적으로 다시 돌아온 지휘자, 최고의 말러 스페셜리스트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뛰어난 기교와 아름다운 음색을 소유한 건반위의 음유시인 알프레드 브렌델, 콜리야 블라허(바이올린), 나탈리아 구트만(첼로), 자비네 마이어(클라리넷), 알브레히트 마이어(오보에) 등 최고의 솔로리스트들이 참여한 드림 팀,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2005년 루체른 여름축제 개막 연주회 영상물에서는 두 명의 거장을 만나보는 설렘이 있다.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이하 LFO)와 구스타프 말러 유겐트 오케스트라와 함께 멋진 황혼을 구가하는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 그리고 피아노의 도인(道人)이라 할 수 있는 알프레드 브렌델 둘의 빼어난 결합은 이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 2번 필립스 녹음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아바도와 브렌델 모두 고회를 넘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격돌하게 되는 것이다.”

-김문경 (음악 칼럼니스트, '구스타프 말러' 저자), ARTE-015 해설지 中

지휘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른바 '거장풍'이라 하여 느릿하고 폭넓은 템포를 구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바도는 오히려 더 젊어진 듯 이전보다도 훨씬 빠르게 질주한다.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말러 7번을 지휘했다면 이런 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찔한 속도감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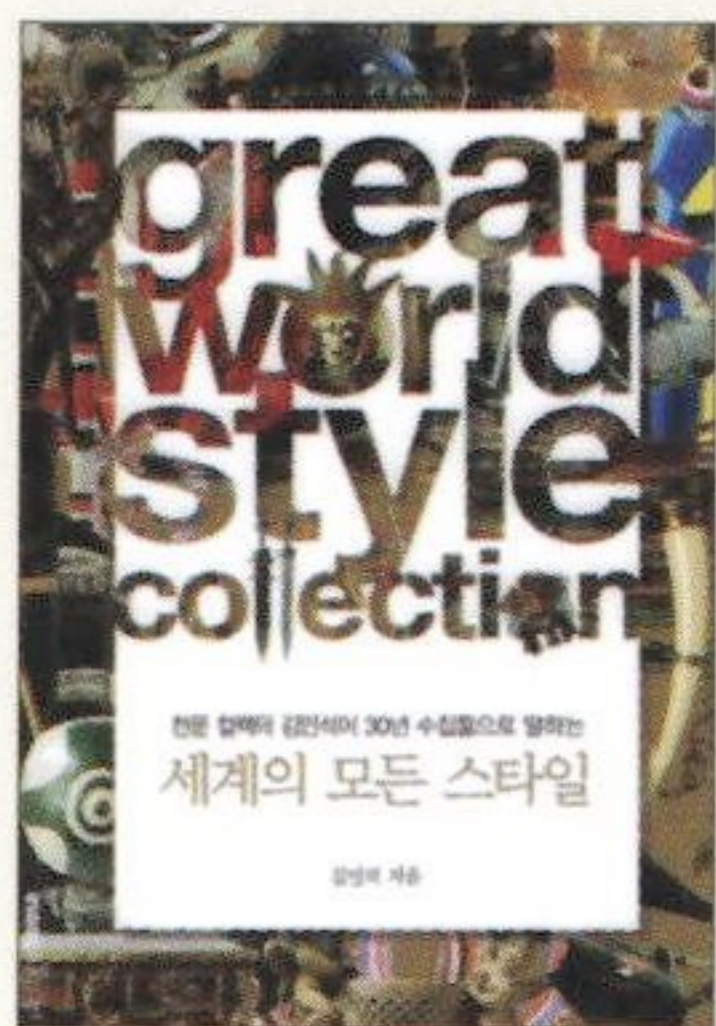
-김문경 (음악 칼럼니스트, '구스타프 말러' 저자), ARTE-014 해설지 中

■ 비바체클래식 제공



## 세계의 모든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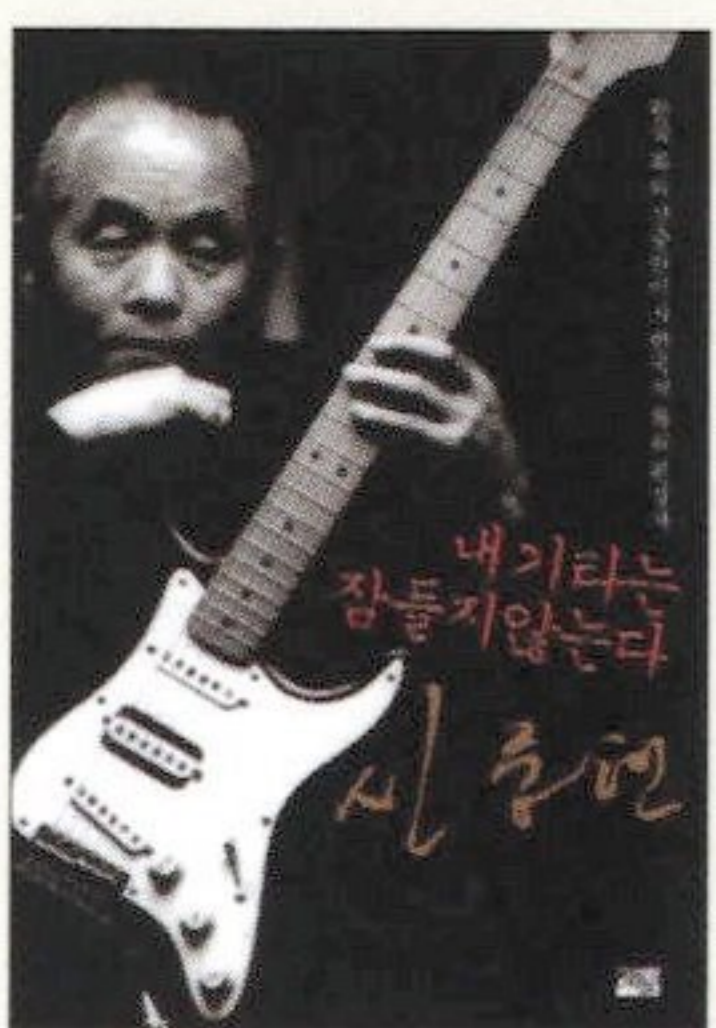
김민석 지음 | 디자인하우스 | 429P | 20,000원



좋아하는 물건을 특별히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이들은 많지만, 한 개인이 세계 각국의 예술품을 모으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김민석 씨는 1979년부터 세계 150여 개국을 누비며 예술품을 수집했다. 1년에 평균 8개월은 해외여행을 하고 비행기 마일리지는 300만 마일에 이르며, 600평 짜리 창고를 10만여 점에 이르는 수집품으로 뿔뿔하게 채운 그를 만나면 '뭔가를 모으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스물다섯 때 무작정 떠난 미국에서 닥치는대로 일하면서 한달에 한번 벼룩시장에서 오래된 물건들을 고르며 저자는 뭔지 모를 '희망'을 얻었다. 뭔가를 모으는 '벽'은 그때부터 생겼다고. 그리고 첫 번째 직장이 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미석을 손에 넣은 이후 영국 빅토리안 스타일 책상, 베니스 스타일의 화려한 가면 등 예술품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질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의 수집품들 중에서 문화예술품만 모아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대륙별로 김씨가 여행한 나라를 구분하고 나라별 수집품을 소개했다.

## 내 기타는 잠들지 않는다 신중현

신중현 지음 | 해토 | 237p | 9,500원



〈님아〉, 〈아름다운 강산〉 등 한국 대중 음악사에 길이 남을 곡을 만들어온 신중현. 언제나 새로운 도전과 실험으로 대중을 사로잡아 온 신중현의 남다른 도전정신과 나이가 들어도 사그라들 줄 모르는 음악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읽을 수 있는 책. 전쟁 통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제 손으로 묻은 이야기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음악인을 꿈꾸던 시절의 이야기, 미 8군 무대를 주름 잡던 시절의 이야기, 대마초 사건으로 고난을 겪은 이야기, 컴퓨터 음악과 노년 록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신중현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신중현이 솔직담백하게 털어놓는 일화들은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흥미롭다. 신중현은 트로트와 스탠더드를 두 축으로 하던 시대에 서구의 로큰롤과 흑인음악을 창조적으로 수용해 새롭고 독창적인 음악어법, 이른바 '뉴 뮤직'을 그것들에 병치시켜낸 인물이다. 이것은 신중현의 이름이 사회적 성격을 띠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잘 만들어진 신중현 개인의 역사는 우리 대중음악의 전체를 조망하는 통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신중현의 음악, 신중현의 인생을 만나보자.

## 꽃을 씹는 당나귀

사석원 글, 그림 | 웅진지식하우스 | 213p | 12,000원



사석원 화백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으며 어린시절에는 말수가 적고 어눌했다. 가족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사석원 화백이 독자들과의 소통을 시작한다. 살다보면 억울하고 원통하거나, 슬프고 맥 빠지는 일을 겪게 된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속풀이를 하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제각각이겠으나, 사석원 화백의 그림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보면 어떨까. 원색으로 그려진 강렬한 그림 한 장이 그 슬프고 우울한 마음을 순식간에 달래줄 수도 있다. 얼굴에 웃음을 가득 품은 동물 그림 한 장이 속상하고 어두운 기분을 환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 책에 수록된 화가 사석원의 그림에는 바로 그런 힘이 담겨 있다.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그려진 동물들의 수줍은 표정과 따스한 눈빛과 활기찬 몸짓이 옆에 앉은 동료의 수백 마디 충고보다, 엄한 선생님의 따끔한 훈계보다 더 위로가 된다. 그의 그림과 글은 곱씹으면서 천천히 볼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는 풍미가 있다. 하나의 상징에서 또 하나의 상징이 태어나고 그 의미는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진다. 풍자와 해학이 가득 들어가 있는 그림과 글, 옆에 두고 자꾸만 펼쳐 봐도 질리지 않을 것만 같다.

■ 박현주/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 7월 정기회원 테마여행을 다녀와서 배내골 손두부, 허브화분 만들기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과 국악관현악단 단원 정주아, 박순자 등 총 43명이 참가한 7월 테마여행은 배내골의 맑은 자연 속에서 즐기는 손두부와 허브화분 만들기 체험이었다.

오전 8시 부산을 출발한 탓에 이른 시간 석남사에 도착했다. 새벽 3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절집에서 야 한낮의 여유를 찾을 시간이지만 숙인들의 발길이 드문 오전시간, 고즈넉한 산사를 여유롭게 돌아보고 비 온 뒤 한층 더 맑아진 계곡물에 발을 담구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다. 오전 11시 여유롭게 석남사에서 출발, 영남 알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고갯길을 넘어 배내골에 도착했다. 부산 근교지만 배내골을 처음 찾은 회원이 많았던 탓에 배내골의 산세와 맑은 물, 아늑함에 곳곳에서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맛깔스런 시골 밥상으로 점심을 먹은 후 정주아, 박순자 단원의 피리 연주가 이어졌다. 배내골의 자연과 어우러진 피리연주는 우리 음악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작은 음악회의 아쉬움을 접고 7월 테마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손두부, 허브 화분만들기 체험장으로 향했다. 배내골 팜스테이 지킴이의 안내로 드디어 두부 만들기 시작. 잘 불린 콩을 직접 맷돌로 갈아보고 콩물을 끓이는 과정, 콩물이 눌러 붙지 않게 저어주면서 두부 만들기에 열중하는 사이 열기를 피해 한쪽에서는 허브 구경이 한창이었다. 드디어 시식 시간. 한쪽에서는 주인아주머니가 땅속에 깊이 묻어 두었던 묵은 김장 김치가 차려지고 도심에서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두부를 먹으면서 배내골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회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

일탈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응모하십시오.



### ▶ 9월 8일(금) 허브힐즈에서 즐기는 허브체험

향긋한 허브의 세계 '허브힐즈'를 돌아보고 허브비누와 양초, 압화를 제작해 보는 허브체험.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30 냉천 허브힐즈 도착
- 11:00 허브체험-허브비누, 양화, 압화
- 12:00 중식
- 13:00 허브힐즈 내 허브동산 관람
- 15:00 허브힐즈 출발
- (※ 체험비 10,000원)



### ▶ 10월 13일(금) 경주문화와 탁본체험

천년 고도 경주를 되돌아보고 탁본체험을 통해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이해하는 문화체험.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도착, 경주 박물관 관람
- 12:00 중식
- 13:00 대릉원 관람
- 14:00 탁본체험
- (※ 체험비 10,000원)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8월 당첨자

### ▶ 8월 11일(금)

가족과 함께 즐기는 즐거운 해양 체험



####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10명)

- 박순태(연제구 연산 9동)
- 최정숙(서구 부민동 3가)
- 백승민(수영구 수영동)
- 이아름(남구 문현2동)
- 이명옥(금정구 장전1동)
- 박재건(서구 동대신동 1가)
- 신준석(남구 감만1동)
- 김미애(남구 용호 3동)
- 이상훈(사하구 하단동)
- 이미옥(사하구 하단동)

#### ■ 기존가입 당첨자(엽서) 명단(10명)

- 신현숙(사상구 덕포2동)
- 이영일(남구 대연3동)
- 신정식(동구 수정동)
- 김봉선(사상구 모라2동)
- 박경희(사상구 모라2동)
- 장양애(서구 서대신동 3가)
- 김병석(해운대구 좌동)
- 이영희(북구 화명동)
- 송갑선(부산진구 부암동)
- 장미정(금정구 장전동)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문제

1. 밤나무 판위에 오동나무의 긴 널을 속이 비게 짜 넣고 그 위에 여섯 줄을 걸어놓은 우리나라 전래의 현악기.
3. 바이올린 독주곡 '찌고이네르바이젠'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
7. 현실에 대한 분노와 좌절, 삶에 대한 자조 어린 생각들을 파격적인 펑크 록을 통해 음악으로 분출한 미국의 얼터너티브 락그룹. 리더인 커트 코베인의 자살로 지난 1994년 해체되었다.
9. 한 조각의 빵을 훔친 죄로 19년간의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11. 엽전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종이나 헝겊으로 싸서 만든 어린이 장난감.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발로 많이 차는 쪽이 이김.
12. 뉴욕에 끌려온 초대형 고릴라의 이야기를 그린 미국영화.
14. 스웨덴의 팝가수 아바의 대표곡 22곡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뮤지컬.
16. 연극이나 방송극 등의 대본.

17. 1912년 1,513명의 사망자를 내고 북대서양으로 가라앉았던 초호화 여객선의 침몰사건을 배경으로 한 제임스 캐머런의 영화.
18. 본 이름 외에 따로 지어부르는 이름.
22. 고구려 말 고구려를 침입했던 수, 당나라 적군을 모두 막아낸 장군.
24. 밸브와 넓은 원뿔 모양의 구멍이 있는 금관악기로, 호른보다 무거우며 그와 비슷한 장중한 음을 낸다.
25. 유비, 관우, 장비가 등장하는 나관중이 지은 중국 장편 역사소설.
26. ○○는 게편.
27. 소외된 저소득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원하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선택,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세로문제

1. 공연예술의 세계적인 흐름과 실험정신을 만날 수 있는 국제연극제로, 매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남 거창에서 펼쳐진다.
  2.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무당이 굿을 할 때, 귀신에게 먼저 바친다고 하여 음식을 조금 떼어 던지면서 하는 소리, 또는 그렇게 하는 짓.
  4. 뒤마의 소설 '춘희'를 소재로, 순진한 청년 제르몽과 미모의 창녀 비올레타와의 사랑을 그린 베르디의 3막 4장 오페라.
  5. 노래를 부를 때 남자의 가장 높은 목소리, 또는 그 음역의 남자가수.
  6. 아프리카 서부의 기니만에 면한 나라로,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 지난 1957년 독립했다. 2006년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16강에 진출했다.
  8. 8세기말~11세기초 해상으로부터 유럽, 러시아 등에 침입한 노르만족. 무자비한 침입, 싸움, 약탈 등으로 공포대상이 되었다.
  10. 옛이름은 버마. 수도는 양곤.
  13. 인생의 한 단면을 짚고 재치있게 표현한 단편소설. 또는 유머, 풍자, 기지가 넘치는 촌극을 흔히 이르는 말.
  15. 미해결사건의 범인수사를 위해 합성으로 만들어낸 범인의 얼굴사진.
  19.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찬 넓고 큰 정기.
  20. 아프리카에서 인술을 펼쳤던 독일의 의사, 사상가. 세계의 위인, 원시림의 성자로 불렸으며 195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21. '성이 각각 다른 마한의 세 장군이 지킨 고개마루'란 뜻으로 지리산 노고단 아래에 있어 지리산 종주의 출발지로 많이 찾는다.
  23. 전문적인 화가가 아닌 시인, 학자 등 사대부층 사람들이 여기(餘技)로 그린 그림.
- (\*엽서 퍼즐판 3번 답칸이 잘못됐습니다. 윗 퍼즐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나호 정답

칠	석		마		원	심	력		대
	빙		피	카	소				단
세	고	비	아			다			상
레				모		빈	처		
나		도	미	노		치		마	임
데	미	안		폴		코	알	라	
	란		힐	리	우	드			도
잔	다	르	크		유		서		풍
나				어	부	사	시	사	
비	엔	날	레		단				드
									가

- **큰집 식사권**  
홍중여(서구 서대신동 3가) 손태은(부산진구 부전1동) 김선희(금정구 구서1동) 이명주(부산진구 연지동) 정가희(북구 만덕동)
- **산마루골터(구 돈방불패)**  
배수경(사하구 장림2동) 김지선(사하구 신평동) 김성례(부산진구 양정2동) 이진화(금정구 서2동) 정영숙(연제구 거제 4동)
- **가마골소극장 초대권**  
권미란(연제구 연산 9동) 강주찬(해운대구 반송 3동) 천정원(해운대구 중동) 하주원(동래구 온천3동) 김은희(연제구 거제1동)
- **동보서적 도서교환권**  
김봉선(사상구 모리2동) 김재은(동래구 온천 3동) 김미정(금정구 서동) 이미나(남구 문현 1동) 김문조(북구 만덕1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시 담당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더욱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 산마루 골터

- **찜갈비**
- 삼계탕, 돌솥비빔밥
- 30초 완성 참숯판구이 삼겹

UN로타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 611-4040**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http://www.kamagol.co.kr)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http://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8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KOREA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 8월 19일 토요일 대극장 오후 4:00 호산 가야금연주단 연주회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 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전승보존하고 있는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산하단체인 호산 가야금연주단의 무대.

### 프로그램

아랑의 꿈(25현금/김혜련, 차선민, 이정은)

울산아가씨(25현금/이보은, 정효은, 최은정)

첼로와 25현 가야금을 위한 중주곡 '5월 하늘' (25현금/김지영, 조영아, 이선혜, 공혜영 · 첼로/우리라)

백규진/절영의 전설(25현금/박은정 · 가야금선율 25현금 I/김나영 · 해금선율 25현금 II/서희, 피리선율 25현금 III/김지영 · 장구/정동주)

소품 연곡(25현금/김혜련, 최은정, 공혜영, 차선민, 김명수, 이선혜, 김지영, 박수영, 강연미, 이정은, 조영아, 박은정, 이보은 외)

## ● 8월 28일 토요일 중극장 오후 4:00 버슴새예술단 공연

부산, 경남의 뜻있는 젊은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버슴새 예술단의 무대.

1995년 '부산풍물버슴새'의 전신으로 출발한 버슴새예술단은 2002 부산아시아게임, 2002 한·일월드컵, 부산세계합창올림픽 등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 프로그램

타귀(출연/박현호 외 8명), 처용무 독무(춤/장영진), 가야금2중주(18현/옥경화 · 25현/정세희 · 장구/이주현), 부채춤(방명희 외 4명), 해금독주(해금/최윤희 · 콘트라베이스/박성진, 이현정), 판굿(출연/최정민, 김대원, 이주현, 이형곤, 박현호, 김한동)

## ● 9월 2일 토요일 소극장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수요남극(가야금/정세희, 오은영, 김혜련, 윤경선 · 거문고/이대하, 박용란, 엄애리, 박하혜 · 장구/이장우 · 양금/장미진)

### 프로그램

피리독주 '박범훈 류 피리산조' (피리/박순자 · 장구/송강수)

시나위(대금/채수만 · 피리/김용우 · 해금/하지행 · 아쟁/홍영혜 · 가야금/송영남 · 거문고/강상호 · 장구/신문범 · 징/전학수)

가야금중주 민요메들리 '아리랑, 밀양아리랑' (18현/오은영, 옥경화 · 22현/이명일, 김혜련 · 장구/장미진)

사물놀이(꽝과리/이주현 · 장구/최오성 · 징/전학수 · 북/신문범)

해설/백규진

• 입장권 : 무료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8월 4일, 11일은 무대보수공사 관계로 토요상설무대 공연은 쉽니다.





# 부산에서 바로 떠나는 **홍콩** / **마카오** 자유여행



## I 홍콩/마카오 에어텔 5일

₩ 399,000 (홍콩 1박/마카오 2박)

₩ 419,000 (홍콩 2박/마카오 1박)

### ■ 홍콩/마카오 왕복항공권 ₩250,000 ~ (tax 별도)

- 포함사항 | 부산-마카오간 항공료, 4성급호텔(2인 1실), 호텔조식  
※ 홍콩, 마카오 자유 & 배낭여행 책자 제공
- 별도사항 | 부산, 마카오 공항세(TAX:₩45,000), 유류할증료 (왕복 45\$)
- 추천일정

제 1 일 06:50 김해공항 미팅  
08:20 김해공항 출발  
10:55 마카오 도착  
페리 터미널 이동 후 홍콩 이동(1시간 소요)

제 2 일 전 일 1. 홍콩 데이투어

제 3 일           ▷ 빅토리아파크, 리펄스베이, 오션파크, 야시장 등 시내관광

제 4 일           ▷ 침사추이, 몽콕야시장 등 쇼핑관광  
                  ▷ 홍콩 디즈니랜드 관광

                  2. 심천 데이투어  
                  ▷ 소수민족쇼 및 대형문화 유람지 관광

                  3. 마카오 드라마 '궁' 촬영지 데이투어  
                  ▷ 와인 & 그랑프리박물관, 세나도광장, 세계적인 카지노관광 등

제 5 일 02:55 마카오 출발 / 부산항발  
07:10 부산 도착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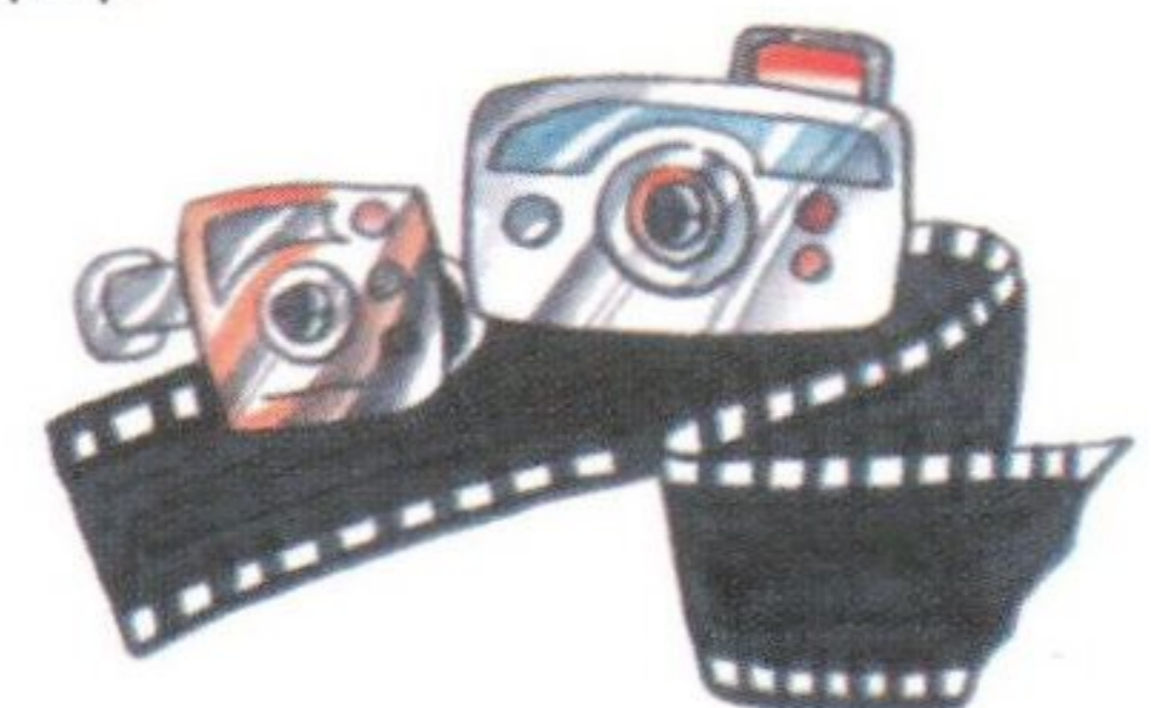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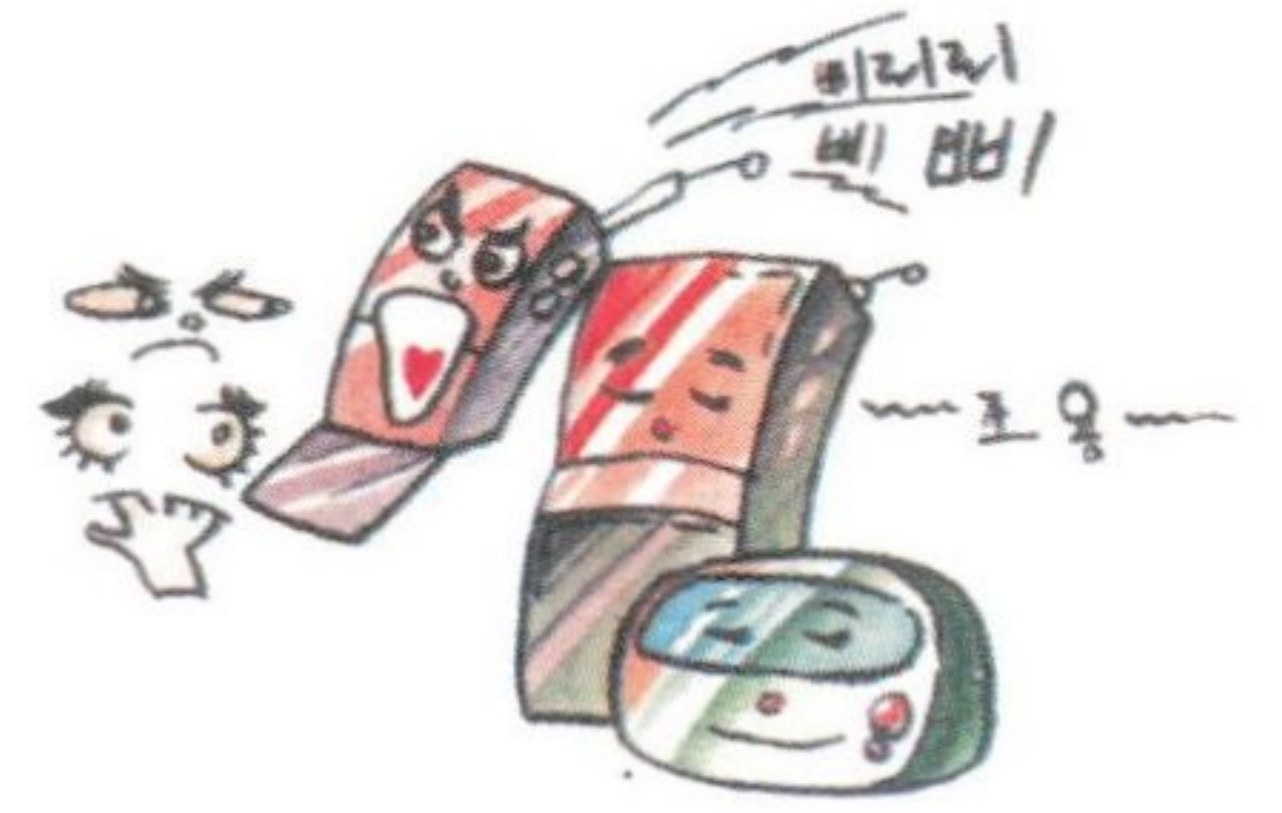


##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연장 신사, 숙녀

- ◇ 입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좌석번호를 확인하여 앉습니다.
- ◇ 공연 중에 지정좌석을 찾으실 때는 뒤에서 기다리거나 빈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한 곡이 끝나면 조용히 자리를 찾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발소리, 기침소리, 부스럭대는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까지도 옆사람에게 방해가 되니 조심합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신발을 벗거나 무릎 위에 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 ◇ 남의 앞을 지날 때는 몸을 숙여 남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 연주중에는 들락날락하거나 뛰어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 옷차림은 가능한 정장이나, 양전한 복장을 합니다.
- ◇ 껌을 씹거나, 음료수·음식물 등을 반입하여 드시면 안됩니다.
- ◇ 휴대폰, 호출기 등 소리나는 물건은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입장합니다.
- ◇ 공연시작 5분전까지는 입장하여 자리에 앉습니다.
- ◇ 냄새나는 음식을 드셨을 때는 옆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입을 씻고 입장합니다.
- ◇ 7세이하의 어린이는 공연장내에 동반하지 않습니다.(공연장 3층 어린이 놀이방 활용)
- ◇ 화환이나 꽃다발은 입장시 로비에 보관하셨다가 공연후 증정하도록 합니다.
- ◇ 앵콜 연주까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일어서거나 나가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 ◇ 공연장내 휴지나 인쇄물(프로그램, 좌석권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연주자의 연주에 방해가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10% 할인권  
(1매 4인 사용가능)

대상 : 할인쿠폰 소지자 또는 예술단 정기회원카드 제시자  
기간 : 12월 3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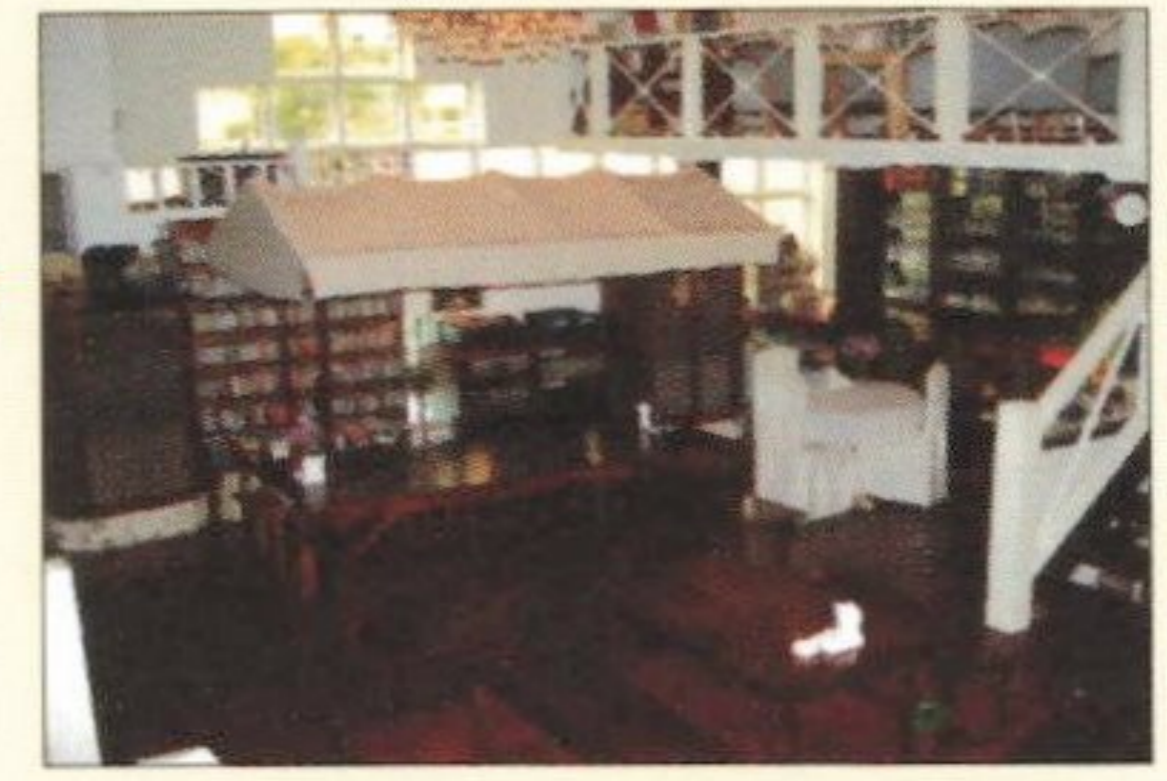
해운대 스펀지 3층 TEL:051-740-4858

Sinc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부산시립극단 제 27회 정기공연  
한·일 합동 제작 공연

# 고래섬

한 처음에 바다에서 섬이 하나 떠올랐다.  
그 바다를 바라보고 살던 양쪽 땅 사람들이  
그 섬을 차지하고자 다투어 섬으로 왔다.

그 뒤로 그 섬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그 섬이 새끼를 잃은 거대한 어미고래라고도 한다.

지금도 보름달 뜨는 밤이면 어미를 찾는 새끼고래의 울음소리가  
온 바다에 울려 퍼진다고 한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 작/홍원기 · 공동연출/손기룡(부산시립극단), 시나가와 요시마사(동경 킹가도)

2006. 9. 21(목) ~ 2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평일 오후 7:30 / 토요일 오후 4:00, 7:30 / 일요일 오후 4:00

문의 : 부산시립극단(607-6136~7),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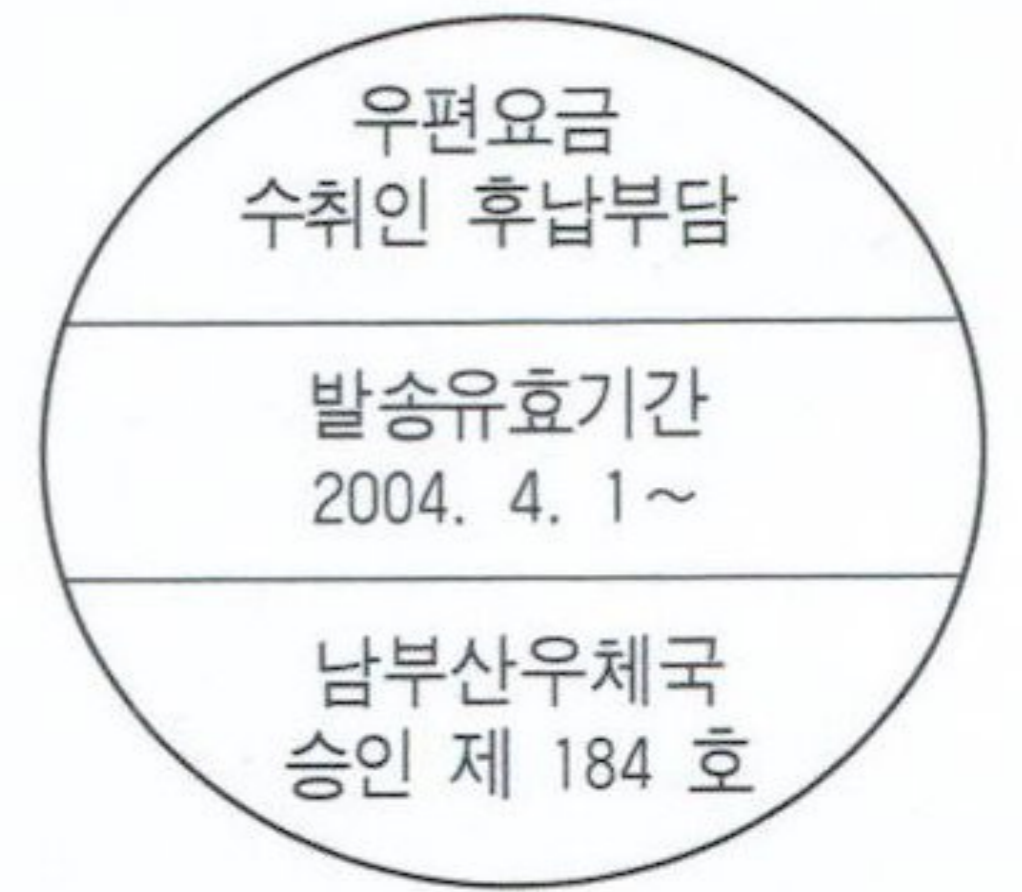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



타악기로 연주하는  
재즈, 팝 그리고 영와음악... **여름방학특집**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THE SPECIAL CONCERT  
PERCUSSION ENSEMBLE OF MUSA  
음악감독 승기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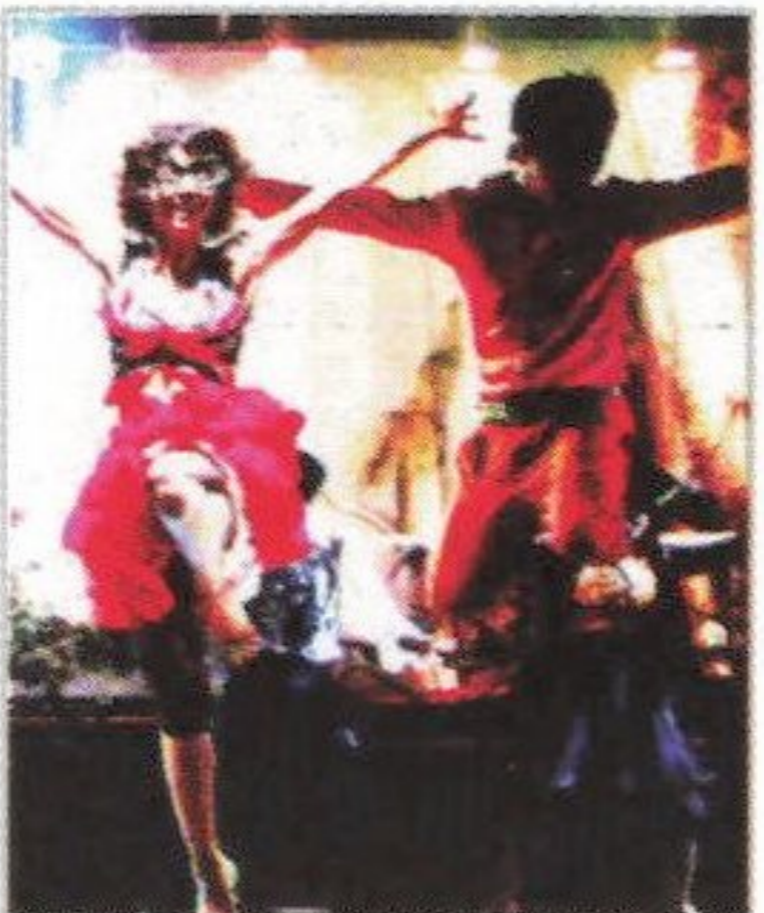


**MUSA**  
주최: MUSA 부산타악 앙상블 공연문의: 010-5633-0864 051-628-8377  
부산시민회관 대표전화 051-530-5200 을숙도문화회관 대표전화 051-220-5321-4

2006. 8.21 (월) 19:30 1회 오후2시 2회오후5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극장  
2006. 8.25 (금) 19:30 1회 오후2시 2회오후5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할인권 2,000원**은 할인권 소도시 매당 공연일에 할인권용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의 하녀** **10% 할인**



▶ 날짜 : 2006. 8. 25(금)~9.17(일)  
▶ 시간 : 평일 7:30/토요일 4:30, 7:30/  
일요일 3:00, 6:00(월 공연없음)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www.kamagol.co.kr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이미 예매하신 분은 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9월 테마여행을 응모합니다.**

- 회원명
- 회원번호  
(※마이비카드는 마이비숫자 10자리를 적어주십시오.)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 응모엽서는 8월 1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 주십시오.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 이번호에서 유익하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제 | 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Busan International Kids' Film Festival

2006.8.15~8.19

주최 :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조직위원회, 한겨레

주관 :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집행위원회

후원 : 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해운대구청,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산광역시 교육청, 한국독립영화협회, 문화연대, 양정청소년수련관

장소 : 해운대 메가박스 1~5관 예매처 : 부산은행 티켓+365 Tel. 1588-2528







소리꾼 장사익 가수 김수희 마술개그 이영재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권원태(어름산이)

# 2006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여름특선, 아주 특별한 국악여행

## 필빙수 같은 시원한 음악회



지휘 박호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연주곡목

- 힘찬 창작관현악 "화랑"
- 개그맨 이영재의 마술 개그와 국악관현악 [거울나라]
- 왕의 남자 '남사당 줄타기' 와 국악관현악
- 장사익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황혼길, 꿈꾸는 세상]
- 김수희의 대중가요와 국악관현악 [애모, 남행열차, 광야]

공동주최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부산·경남 대표채널 KNN

2006. 8. 23(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협찬 FORAD [주]포에드(주)문화광고대행사

입장권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인 4매 30% 할인 (R석, S석에 한함) 문의 부산문화회관 625-8130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6070  
일반단체 30명 이상 할인 20% (R석, S석에 한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6110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인터넷 예매 ■ 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 부산은행 - 티켓 365 www.ticket365.co.kr

금정구: 신나라레코드 518-6686(부산대앞), 골든악기사 512-4295(부산에고앞) 서면: 동보서적 803-8001, 영광도서 816-9500, 유니트레장 462-0833 (까루)  
남포동: 남포문구 245-8911, 문우당서점 245-3843, 국도레코드 247-4240(광복동) 남구: 면학도서 623-9404(경성대 앞) 해운대구: 해운대약국 752-0100  
비바체클래식 743-0003(선프라자 1층) 사하구: 향학서점 203-9381(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부산은행 (부산, 경남) 200개 지점